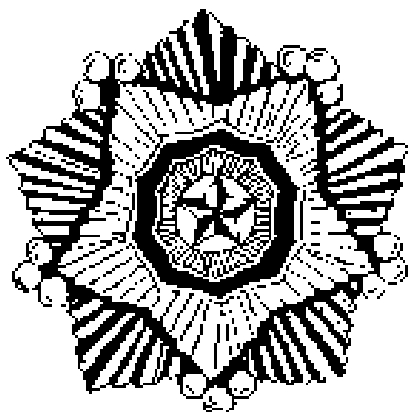




11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4)년 제11호

(루계 제 685 호)

◇◇◇◇◇◇◇◇◇◇ 차 례 ◇◇◇◇◇◇◇◇◇◇

| | |
|------------------------------|----|
| 혁명적작품창작의 진로를 열어준 강령적지침 | 3 |
| 명언해설 | 6 |
| 최고사령부의 시간..... | 7 |
| 장군님의 미학관 | 12 |
| 대덕산의 구호바위..... | 13 |
| 정의의 선군 | 16 |
| 태양의 해돋이 | 17 |
| 단번에 알아맞히신 수수께끼..... | 32 |
| 위인칭송무지경 | 33 |
| 송암동굴앞에서 | 37 |
| 내 운영의 영원한 불빛..... | 38 |
| 내 고향의 한드레벌 | 39 |
| 한드레벌처녀..... | 43 |

| | |
|-------------------------------|----|
| 령수증 | 44 |
|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용사에 대한 진실한 형상 | 53 |
| 오늘도 울려오는 한나의 메아리 | 55 |
| 뿌 리 | 56 |
| 민속음식 쉬움떡 | 63 |
| 전호가의 꽃 | 64 |
| 총대와 붓대 | 65 |
| 철령의 철쭉꽃 | 66 |
| 땅이여, 고향이여 | 66 |
| 전사는 웃고있다 | 67 |
| 병사가 안고산 당부 | 68 |
| 고향이여! | 68 |
| 나는 총을 놓을수 없다 | 69 |
| 코 무덤 | 70 |
| 고구려화가 담징 | 71 |
| 장군님사랑 | 75 |
| 모 란 꽃 | 76 |
| 《깡통령》 부쉬 | 80 |

혁명적작품창작의 진로를 열어준 강령적지침

김정웅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40돐을 맞이하고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53(1964)년 11월 7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으로써 자주시대, 문학예술발전의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의 진로를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복무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고무적기치로 되였으며 오늘날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과업, 우리 문학예술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기 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는 그 시기의 혁명정세와 당과 인민앞에 나선 혁명과업에 의하여

규제된다. 로작이 발표되던 당시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해 내야 하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과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체 조선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는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은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인것만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다고 하여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과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를 노래하는 문학예술이 물론 필요하고 더 많이 나와야 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남반부인민들과 혁명가들을 교양하며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문학예술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혁명정신을 북돋아주며 계급적각성을 높여주는 문예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이러한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사상미학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혀 광복후 우리 인민이 진행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그린 작품들,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그린 작품들, 산업국유화를 위한 투쟁을 그린 작품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들과 인민군대의 투쟁을 형상한 문예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밝혀져있다. 로작에는 또한 10월인민항쟁, 4. 19인민봉기, 6. 3시위투쟁 등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과 광복전에 있는 광주학생사건, 3.1운동 등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대작창작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원형으로 하여 대작을 쓸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광복전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 혁명임무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지하투쟁을 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불요불굴의 투쟁을 한 모습, 광복후 오래동안 헤어졌던 동지들의 감격적인 상봉,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며 군대를 창건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눈부신 활동,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적의 포위를 뚫고 다시 들어오는 간고한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작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과 같은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대작이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으며 이런 작품을 써야 사람들에게 파연 혁명이란 파란곡절이 많구나 하는것을 깨닫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량만주의정신으로 교양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모습을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적대작의 특성과 창작원리를 밝혀준것으로 하여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미학실천적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작품을 통해서 혁명가의 일생이라는것이 간고한것이지만 한번 각오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청년들을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에는 우리의 민족음악을 민족적바탕에서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

와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 눈보라, 눈보라》, 《결전의 길로》, 《영광의 땅 보천보》, 《압록강2천리》, 《샘물터에서》,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등 노래들이 조선적인 선율로 일관되어있고 시대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것이 바탕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사람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서양음악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예술을 주체적으로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로작에는 광복전에 부르던 류행가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데 대한 문제, 민족음악에서 민요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판소리를 장려하지 말데 대한 문제, 음악발성에서 썩소리를 없앨데 대한 문제, 민족음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민족악기를 개량할데 대한 문제, 서양악기를 민족음악에 복종시킬데 대한 문제, 미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즈》를 철저히 반대배격할데 대한 문제 등 음악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창조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로작에 제시된 우리의 음악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창조발전시킬데 대한 리론은 사회주의음악예술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사회주의현실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음악작품창작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는 이밖에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문예작품과 혁명투쟁에 관한 문예작품의 창작비율을 5:5로 할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창작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등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진리성과 정당성, 심오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심금을 울리였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으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로작에 제시된 문예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창작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었으며 빛나

는 결실을 이룩하였다.

로작에 제시된 문예사상과 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손수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종류의 소설과 예술형식으로 옮기는 사업이 훌륭히 실현된것이다.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피는 처녀》, 《혈분만국회》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로 훌륭히 옮겨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문학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조국통일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소설작품들과 시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내었다.

혁명적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특출한 성과는 수령형상소설의 대표작인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가 높은 사상에 예술적수준에서 창작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편이 완성되고 광복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전면적으로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원리와 투쟁방법, 투쟁경험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적대작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으며 주체의 사실주의소설문학의 위력과 견인력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작품으로 되고있다.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품모를 형상화하는데 바쳐진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세차게 벌리였으며 이 과정에 커다란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높은 사상에 예술성과 거대한 인식교양적역할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

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문학부문에서 혁명적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투사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되는것은 최근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린 60여편의 장편소설이 창작되고있다. 이 소설작품들은 장기간 적들의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켜낸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이 키워낸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 가를 가르쳐주고있다.

혁명적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은 시문학부문에서도 힘있게 벌어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같은 서사시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영화예술분야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이룩하였다. 지난 시기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민족의 태양》, 《유격대의 오형제》, 《한 지대장의 이야기》, 《이름없는 영웅들》과 같은 혁명적인 영화작품들을 내놓아 주체적영화예술의 위력을 과시한 우리의 영화예술은 선군시대에 이르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같은 세계적인 걸작을 내놓았으며 인민군군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해내었다.

우리 나라에서 창조된 혁명적영화작품들은 그 높은 사상에 예술성과 미학적감화력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제시하신 음악예술을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이론이 구현되어 음악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민족적선물을 적극 살리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미감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김정일장군의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정일봉의 우뢰소리》,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강성부흥아리랑》, 《선군닐리

리》와 같은 가요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었으며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 《백두산아 이야기하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은 큰 형식의 작품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리론은 가극, 연극, 무용, 미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빛나게 구현되어 찬란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조 발전되었으며 이 땅에 선군문학예술의 새 시대가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인 선군시대의 문학예술, 선군 문학예술창조에서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선군시대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대결과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총대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시대이다. 선군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중요한 시대적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출현한 선군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반제혁명사상을 뚜렷이 반영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과 정신이 흘러넘치는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스런 로정과 그 길우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거대한 생활력을 력력히 과시하고있으며 이 사상과 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데 선군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선군시대의 문학예술, 선군 문학예술창조에서도 작가, 예술인들이 확고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제시되어있는 사상과 리론을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이 고전적로작을 깊이 연구하고 로작에 제시된 사상과 리론을 창작실천에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선군문학예술창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명언해설

《인간생활에 음악이 없다면 그런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 같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인간생활에 반드시 음악과 노래가 흘러넘쳐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음악과 노래가 없는 생활은 꽃이 없는 꽃밭과 같다. 음악과 노래가 없는 생활은 생기없고 메마르고 딱딱한 생활이며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질수 없다. 음악과 노래에는 다양한 인간생활이 비껴있고 자주적인 삶의 지향과 아름다운 감정정서가 담겨져있다. 음악과 노래는 아름답고 풍부한 사상정서적감화력으로 생활을 보다 보람있고 생기와 광만이 넘쳐나도록 해준다. 음악과 노래가 있어야 인간생활이 온갖 꽃이 만발한 꽃밭처럼 아름답고 정서적인것으로 된다.

최고사령부의 시간

홍현양

1

술푸른 언덕을 끼고
굽이돌아간 길
한그루 은행나무에 까치가 앉아
꼬리를 달짝이며 울어대는 곳
그 누구를 기다려
이 아침 부일이 여기에 나와있는가

이제는 머리에 흰오리가 섞이고
어깨우에 장령의 별이
그가 살아온 한생을 말해주는듯
가벼운 바람이
군복자락을 다정히 쓰다듬어준다

저 멀리 평양으로 뻗어간
한줄기 자동차길을 바라보는 눈길
이제나저제나
장군님 보내주신
종군작가들을 맞이하려
술고개 언덕까지 마중나온 부대장

아, 저기 보이는 한대의 소형버스
뽕얀 먼지를 말아올리며
질풍같이 달려온다
(그들이 오고있구나)
기쁨에 높뛰는 부일이의 마음

차는 어느새
부일이 앞에 멎어서고
열린 차문으로 내려서는 종군작가들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준다

-반갑습니다
먼길을 달려온 작가들의 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일이 친근하게
힘주어 하는 말

그런데 이 어인 일이냐
후리후리한 키에

도수높은 안경을 낀 한 시인이
부일이의 손을 덥석 잡고
놓지 못하는 그 사연
-이거, 부일동무가 아니요?!
-아, 철산동무
이게 몇해만이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더니
정말로 죽마시절 친구를
부일이가 술고개에서 만날줄을
어찌 알았으랴
서로 얼싸안는 뜨거운 포옹이여

봄같은 포옹속에
말없이 찾아오는 추억이 있다
부일이와 철산이
만경대혁명학원 그 트락에서 다시 만난듯
두눈엔 무엇인가
축축한것이 젖어있구나

-자네 지금도
갈게잡일 좋아하나?
철산이의 룡취인 물을
-암, 그 버릇이야
지금도 못버리지
부일이 얼굴 붉히며
소시적웃음이 비낀 대답

나이먹고 장가들고
이제는 손자, 손녀도 데리고
옛 추억에 잠길 시절
그러나 어린 시절 강변에 해지는줄 모르던
그 땅에 붙인 정을 어이 버리랴

오, 가버린 세월이여
네 다시 울수만 있다면
이들의 소꿉시절을
다시 불러와 다시 불러와
그 강변에 세워주려마

못잇을 갈게잡이
그 이야기를 해주려마

2

가렬치절 한 싸움
그 불길이 도시와 마을을 태우고
고지와 고지마다에서 번개를 일으키던
전쟁의 두번째 해 그 봄날

청산골
밤나무 우거진 골짜기에
만세의 폭풍이 터졌다
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찾아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였다

발을 동동 구르는 원아들
엎어질듯 달려가 안기며
어버이수령님 옷자락에
매달리는 꼬마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 봄날

어버이수령님
인자하신 웃음을 만면에 지으시며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사랑의 해빛을 안겨주셨다

꿈속에서도 뵈고싶던
어버이수령님
원아들은 서로마다
그 모습 우러르며
눈시울 적시는데
그속에 부일이도 함께 걸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그 손을 꼭 잡고
떨어질세라 다시 꼭 잡으며
철산이도 부일이와 같이
행복에 봉 떠서 벌건거리던 그 봄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대고
어데선가 향긋한 풀냄새가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축복의 노래인양
시내물소리도 유정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어버이수령님
다정히 잡고계시는
원아들의 손을 보고 마음쓰신것을
아마도 전쟁인 까닭에
누구도 스쳐버린 작은것에서
큰것을 찾아보신 그 심중을

-너희들의 손이
왜 이렇게 뒤틀느냐?

어버이수령님의 다정하신 물으심에
철산이 허물없이 올린 대답
-갈게잡이 장난질에
좀 뒤틀습니다

-하하, 갈게잡이라
배가 고프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장군님
철산이의 대답
-정말입니다
우린 만두도 실컷 먹습니다
뒤질세라 말씀올리는 부일이

안심이 되신듯
철부지 원아들의 두눈동자에서
그늘없는 푸른 하늘을 보신듯
부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네 아버지는 무엇을 했느냐고
다심하게 물어주시는 수령님

아버지는 조국광복회 회원이었다고
전략적일시적후퇴시기
아버지는 미국놈들한테 피살되었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부일이

아, 울음섞인 부일이의 말에서
이 나라 피흘리는
인민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보시는
어버이수령님
먼 남쪽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부일이의 머리를 자꾸만 쓰다듬어주시였다

-너도 이 다음 커서
아버지처럼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부일이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피눈물을 씻어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그 말씀
밤나무숲이여
너도 목이 메여 설레이느냐

아, 아들딸들을 남겨두고
떠나간 원아들의 부모들이여
태양의 이 뜨거운 열을 아시는가
넋이라도 다시 돌아와
청산골의 꽃으로 피어나시라
아버이수령님의 이 사랑을
소리쳐 세상에 전하라

3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혁명학원 원장실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협의회가 열리었다
사랑의 시간이 흘러간다

작은 수첩을 펴시고
제기된 문제들을 적으시던 수령님
문득 혁명학원 원장에게
물으시었다

원아들의 하루급식량이며
목욕탕과 세면장
잠자리는 어떠한가
부모가 그리워서
우는 아이들은 없는가고

아버이수령님
학원을 돌아보시고 하신 이 말씀
학원원장인들 왜 모르랴
갈게잡이놀이엔 정신이 팔려
작은 손이 트는것도 잊고사는 아이들

싸움이 한창인 나라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어버린 강토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서
원아들에게 더 좋은것을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줄 모르게
혁명학원의 추녀를
고향집추녀로 엮어주고싶으시었다

아이들이 갈게잡이를 하는것을
장난으로만 생각지 말라고

손이 트는것을
있을수 있는 일로만 여기지 말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원장에게 이르는 말씀

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싸움을 한다고 해도
원아들에게 고기를 먹여야 한다고
오리목장을 크게 지어주자고
목욕탕도 빨찌산식으로 지어
원아들의 손이 트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마디마디 부모의 정을 담아 하신 그 말씀

원장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든것이 재가루로 날리는 땅에서
빨찌산식목욕탕
기름진 오리목장을 세우시는
그 위대한 손길앞에
목이 메일뿐이었다

-원장동무
애들이 밥먹던 숟갈까지 내동맹이치고
우리에게로 달려왔다는게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원아들이 너무 기뻐서
수령님께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아버이수령님
그것 보라고
애들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게 했겠는가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주 나와봐야 하겠다고
자주 나와 원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하겠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는 수령님

아, 인류력사 갈피갈피에
전쟁의 승패를 적은
피의 기록은 수천수만이어도
최고사령관이
교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그런 사랑은 알지 못한다

혁명학원 원장실에서
조용히 진행된 협의회
이것은 최고사령부의 시간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원아들에게 바쳐진
조선의 평범한 하루였다

그 사랑속에
부일이가 자랐고
철산이가 자랐고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자라
선군의 총대가 되었다

4

어버이수령님 모신
협의회도 끝나고
봄날의 하루해가
청산골에 저물어가는 저녁

시계의 초침만 보아오던
최고사령부 수행원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수령님께 간곡히
말씀올린다

-최고사령관동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나도 알고있소
원아들이 우리와 떨어지기 싫어
다음 일파로
들어가지 않고있소

아, 떨어지기 아쉬워
어버이수령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아이들
어버이수령님의 한초한초는
조국의 운명
철부지 어리광들이
이것을 어찌 알고있었으랴

어버이수령님
원아들과 더 있고싶으시여
애들이 다 들지 못한
밥술을 마저 들리워주시는듯
원아들의 문화오락시간

춤노래를 보자하신다

혁명학원의 다음 일파는
이렇게 이어지고
최고사령부의 밤은
혁명학원에 깃들여
한없이 깊어간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즐거운 문화오락시간
기쁨에 들썩
흥에 겨워 동기당당
최고사령부의 시간속에
원아들이 춤추고 노래부른다

《그리운 강남》을 부르는 아이
인민군전사의 등에 업혀
적후천리
총탄이 비발치는 산밭을 넘어온
태백산 전사의 아들

북두칠성 바라보며
어버이수령님이 그리워
가랑잎 깔고 잠못들던
그런 밤은 얼마였던가
오늘은 그 그리움을 걱정으로 더친다

분홍치마저고리에
나물바구니 손에 들고
도라지춤
장단맞춰 추는 소녀
어찌보면 물찬 제비런듯

부일이도 철산이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기들의 문화오락시간에
어버이수령님 함께 있는것이
고향집추녀를 엮어주신
그 사랑인줄 어이 다 알랴

위대한 수령님
원아들의 씩씩한 독창과 중창
그늘없는 노래를 들으시며
철조망을 몸으로 덮어
진격의 돌파구를 연
영웅전사의 모습을 보신다

이 땅의 불타는 산과 강

이 땅의 격전터마다에서
수령을 위해
당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인민군병사들을 보신다
승리의 함성을 들으신다

아, 원아들과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의 시간은
최고사령부의 시간은
조국의 시간
떠나가신 시각은 새벽 2시
단 한초의 공백도 없이
최고사령부의 시간은
이렇게 이 땅우에 흘러갔다
원아들을 위해 한밤을 새벽에 이어놓았다

그 시간속에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이 땅의 모든
고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었고
조국의 승리를 불러오시었다

멸적의 화살표가 그어지는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도
아버이수령님
고아들을 친히 안아키우시었다
이 나라 도시와 마을과 들길에서는
방랑아들이 없는 전쟁의 불길이 타고있었다

5

갈게잡이이야기로 시작된
부일리와 철산리의 상봉
오늘은 장령과 시인으로 된
죽마시절 두 친구
산발을 오른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 오르신였던
그 산발
그 전호속을
승엄한 마음안고 우리른다

앞에는 적구
최전연 감시소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적정도 료해하시며
지략을 펼치시고

용맹을 안겨주신 장군님
부일리의 손도
아버이수령님 잡아주셨던
그 따뜻함으로
힘있게 잡아주시며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었다

아, 철산이
부일리의 그 말을 들으며
몽쿨해지는 마음을
어찌 달랠수 있었으랴
어찌 잠재울수 있었으랴

부대의 문화회관
병사들의 침실과 세목장
일일창고도 돌아보시고
병사들의 치솔까지 헤아려주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은
아버이수령님과 똑같은 사랑

중대예술소조공연도
병실에 앉아 보아주시며
고향과 나이도 물어주시는
아버이장군님의 그 모습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그 모습

철산이
부일리의 말을 들으며
사랑의 전설을 들으며
아버이수령님
학원에 찾아오시었던
그날을 다시 보는듯

부일리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던 그 믿음으로
시인들의 종군길을 열어주시고
철산이의 작품도 친히 보아주시는
아, 아버지장군님!

최고사령부의 시간은
이렇게 한초도 드림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백두산시간에 맞추어
선군시대의 궤도를 달리고있구나

깊어지는 철산이의 생각

-부일동무
내 최전연에 나와보니
우리는 오늘도
최고사령부의 변함없는 그 시간속에
살며 일하고있구만!

-암, 그렇구말구
나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혼자 눈굽을 적시는 때가 많네

두 친구의 이야기
최전연의 전호속을 걸으며
못잊을 추억과
오늘을 안고 바라보는
빛나는 조국의 래일이여

너는 오고있다
우리 부일리와 철산이
신심에 넘쳐 바라보는
백승의 빛발속에 싸여
우리 최고사령부의 그 시간속에
너는 있다

용맹과 지략
사랑과 믿음을 안고흐르는
그 분과 초는

천만의 심장을 하나로 합쳐
천만의 총대로 일떠세운다

그 어떤 침략자
그 어떤 봉쇄와 압력도
백전백승의 이 시간을
절대로 멈추지 못하리라

강성대국으로 달려가는
선군조국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여
너는 백두산의 시간을 안고있어
민족의 무궁한 번영만을 안아오리라

부일리와 철산이
최전연 고지에 올라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민족의 발자욱소리를 듣는다
인류의 환호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우리 부일리와 철산이의
소시적웃음을 간직하시라
그리고 부디 기억하시라

혁명일화

장군님의 미학관

몇 해전 11월초였다.

최전연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건설한 크지 않은 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로대 란간을 잡으시였다. 그러시더니 발전소를 부감하시면서 아주 멋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하였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발전소를 유원지처럼 잘 꾸렸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유원지처럼 꾸린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건설하니 유원지처럼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럴즈음 부대의 한 일군이 그이께 단풍이 들었을 때에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단풍이 떨어져 보기에

싫게 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면서 지금도 멋있다고, 보기 좋다고,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보다도 병사들이 땀으로 이룩해 놓은 창조물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보시는 그이의 병사사랑의 미학관앞에 탄복을 금할수가 없었다.

박봉운

대덕산의 구호바위

예로부터 바위나 돌은 령험과 신비화된 인물이 태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하여왔다.

인간은 수렵과 농경생활을 하게 되면서 돌을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인류력사에는 석기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돌에 그것의 속성인 견고함, 불변성과 함께 생산력과 창조력, 신비로운 응결력 등 신화적의미를 부여하였다.

《삼국유사》에는 동부여의 부루왕이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아들을 구할 때 그가 탔던 말이 곤연에 이르러 큰 돌을 마주 대하고 눈물을 흘리기에 사람을 시켜 그 돌을 들쳐보니 금빛개구리모습을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는 전설이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임금이나 영웅이 탄생한 고장으로서 바위가 지니고있는 생명력을 상징하고있다.

고구려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하늘에 조회하러 갈때에 디뎠다는 대동강물속에 있는 조천석이나 은산 북쪽 30리에 있는 천성산 관음3봉중 기린마의 발자국이 있다는 중봉바위는 모두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관문으로 신성하게 여기었다.

뿐만아니라 어느 한 지방에서는 두 마을사이에 있는 큰 돌이 정초에 어느쪽으로 기울어지는가에 따라 기울어진 쪽의 마을이 풍작을 이룩한다 하여 그 바위를 령험스런 존재로 숭상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전에 평양부근의 어느 고개마루에 서있던 큰 돌의 색깔이 피빛으로 변하였다는가, 어느 절간의 석벽에 새겨진 돌부처의 배꼽에서 땀이 흐르자 큰 사변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다 바위와 관련한 전설로서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내려오고있다.

그러나 대덕산의 바위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근간에 창조된 전설로서 종래의 바위전설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것이다.

대덕산은 아버지수령님과 뜻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최전면에 솟아있는 고지이다.

대덕산기슭에서 포장한 도로를 따라 한참 올라가 느라면 길 오른쪽에 대문짝만 한 큰 선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당백》이라는 구호가 써여있다.

이 바위는 그 누가 다듬어 세운것도 아니요, 어디 다른 고장에서 가져온것도 아니다.

먼 옛날부터 대덕산에 이 바위가 있었으니 어느 때 어떻게 되어 이 바위가 이곳에 세워졌는지 아는

이가 없다.

이 바위에 《일당백》이라는 뜻깊은 글자가 새겨진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입에 올리면서 이 선돌에 관심이 많아져 저마끔 제 생각들을 말하다나니 어느덧 여기에 신비스런 색채가 가미되었다.

신생대 제4기에 맹렬해진 화산분출활동에 의해 백두용암대지와 신계곡산대지 평강-철원고원을 비롯한 용암대지들이 이루어질 때 생겨났다는것은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세에 백두산이 화산을 분출할 때 뿜어나온 용암이 흘러내려 여기에 와서 굳어진 백두산의 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백두산의 령기가 깃들어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바위는 생겨날 때부터 《일당백》이라는 글자를 새길 사명을 안고있었다고도 하였다.

그것은 이 바위가 누가 다듬어 놓은것처럼 면이 모두 평평할뿐아니라 모양새나 크기가 《일당백》이라는 세 글자를 새기기에 딱 알맞출하다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여러번에 걸쳐 이 바위에 나타난 신기한 현상을 련거하기도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크게 력점을 찍어 말하는것은 이 바위에 《일당백》 구호를 새긴 직후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2(1963)년 2월 6일 몸소 흰눈덮인 대덕산정에 오르시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서 리정표로 되는 《일당백》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일당백》이란 말은 한명의 군사가 적병 100놈을 당한다는 뜻이니 이는 곧 모든 군인들을 무적의 용사로 키운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대덕산초소의 군인들은 수령님께서 다너지시자 그 즉시 자연바위에 붉은색으로 《일당백》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놓았는데 그것은 이 구호가 수령님의 뜻이여서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놓아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 한 일이었다.

그후 병사들은 그 구호바위앞을 지날 때면 절로 마음이 커지고 용감해질뿐아니라 온몸에 힘이 우쭐 우쭐 솟구친다고 하니 이는 다 그 바위에 새긴 구호의 위력이요, 신통력인것이다.

그래서 대덕산초소의 군인들은 매일 아침 이 구호를 보며 바위앞을 지나 훈련길에 오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우에서 내려왔다는 간부라는 사람이 이 구호바위를 보더니 《〈일당백〉이라, 참 좋구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어떻게 병사 한사람이 적병 백을 당한단 말이야. 너무 허황해 이런 구호는 철없는 군인들을 들뜨게만 한단 말이야. 당장 지워버리시오.》 하고 나발을 불어댔다.

이놈은 우리 대렬내에 우연히 기여든 나쁜놈이었다.

군인들이 서리찬 눈길로 쏘아보자 이놈은 주춤거리며 그들을 얼리려들었다.

《생각해보라구. 뭐 적들은 아이나 머저리가 아니거든. 괜히 될수도 없는 일을 구호로 내걸면 너희들이 고생만 한단 말야. 꼬마병사, 그렇지 않아? 그래네가 적 백놈을 당할수 있는가. 하하.》

이놈은 이렇게 뇌까리고 슬그머니 달아나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생겼다.

그놈이 꼬마병사라고 한 용국이라는 병사가 그날 깊은 밤에 밖에 나갔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였던것이다.

사위는 온통 먹물어놓은 사발밑처럼 캄캄한데 그 구호바위언저리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것이였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말하니 다른 군인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용국이는 안타까와 제 혼자 슬그머니 구호바위에 가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일당백》이라는 세 글자중에서 《일》자만은 누가 정으로 쪼았는지 획들이 깊이 패워져있는것이였다.

《동무들!-》

용국이가 소리쳐 불러 달려온 군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가 이렇게 했을가?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해보았으나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용국이는 또 전날밤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용국이는 이번엔 발뽕발뽕 구호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누가 밤에 몰래 나와 글자를 새기는것이 아닐가?)

그러나 가까이 가보았어도 거기엔 사람이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불그스름한 그 빛발은 바위에서 발산하는 빛이였다.

다음날 아침 또 이 사실이 알려져 중대군인들이 모두 구호바위로 달려 가보니 이번에는 《당》자의 획들이 깊이 패워져있는것이였다.

이런 일은 그 다음날에도 계속 생겨 《백》자의 획들까지 깊이 패워졌다.

그러다나니 드디어 《일당백》 구호는 영원히 지울수 없는 글발로 바위에 새겨지게 되였다.

(이상한데...)

고개를 기웃거리던 용국이는 어린 시절 자기 고향 고성에서 들은 전설이야기를 떠올리였다.

삼일포근방 봉천암터뒤 금강문앞에 있는 바위에 생겨진 《암파》(어둠이 깨진다는 뜻)라는 글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체33(1944)년 겨울 어느날 깊은 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 한 천둥이 울고 동이만 한 불덩이가 떨어져 벼락을 치더니 집채만 한 바위가 돌로 쪼갈라졌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암파》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는것이였다.

한 로인이 그 글자를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어둠이 깨지고 광명이 온다는 뜻으로서 왜놈이 망하고 나라가 광복된다는 하늘의 예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후에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 글은 바로 **김일성** 장군님께서 룡마를 타고 금강산에 오시여 붓으로 바위에다 쓰신것인데 아침해빛을 받자 정으로 쪼은듯이 글자의 획들이 깊이깊이 패워졌다고 하였다.

바로 그 해석이 그대로 들어맞아 그 다음해 8월 일제가 망하고 나라가 광복되었던것이다.

하지만 이 《일당백》 글자는 누가 새겼을가?

용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었다.

이 일은 상급참모부에도 알려져 그 소행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종시 알아내지 못하고말았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에 왔던 그놈이 또다시 중대에 나타났다. 이놈은 바위에 깊이 새겨진 《일당백》 구호를 보더니 텐갑을 하여 소리쳤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당장 잡아내라!》

그러나 이것은 혁명의 원쑤가 켜치는 단말마적인 비명소리였다.

옛글에 《연작(제비와 참새)이 어찌 봉황의 뜻을 알라.》 하는 말이 있듯이 쥐새끼처럼 뒤구석에서 쫓라닥거리던 그놈이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리해나 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놈의 행동은 단순히 그 뜻을 몰라서만이 아니였다. 우리 혁명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악랄한 책동이 었던것이다.

얼마후 이놈은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되고말았다.
수령님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고 계시여서 그 어
느것 하나 실현되지 않는것이 없다는것은 20세기
가 찾은 진리이니 《일당백》 구호는 그대로 현실로
꽃피었다.

바로 이놈이 그렇게 깔보았던 꼬마병사 용국이는
일당백의 용사로 자라났다.

어느날 군사분계선을 넘어 백여놈의 적들이 불의
에 침입하여왔을 때 용국이는 혼자서 적병 수십놈
을 소탕해버렸던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무훈을 높이 평가하여 표창을 하
게되었는데 용국이는 100놈의 적을 잡지 못했기때
문에 일당백용사가 못되었으니 되려 책벌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때 군인들속에서 많이 퍼졌던 일화이다.
그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그 글자를
누가 깊이 새겼는지 알수가 없어 날이 갈수록 그
일은 점점 더 신비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신기한 일은 모두 하늘의 조화에 맡겨두니 이것
역시 하늘의 조화라고밖에 할수 없었다.

군인들은 수령님의 뜻이 하도 높고 깊어서 하늘
땅이 조화를 부려 높은 산봉우리 바위에 《일당
백》 구호를 깊이 새겨 놓은것이라고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은 통하는
것이여서 설사 사람이 한일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조화로 여긴다고 하여 그 누가 탓할이도 없는것이
다.

어떤 사람은 구호바위가 백두산의 정기가 어려있
는 돌이여서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것은 응당하다고
도 하였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듯 그후 대덕산의 구호바
위에는 신기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다.

적들이 《팀 스피리트》니, 《울지 포커스 렌
즈》니, 《팀팩》이니 하는 전쟁연습을 벌릴 때마다
대덕산의 구호바위는 빨갛게 달아오르고 거기에 새
겨진 《일당백》 글자들이 빛을 내뿜는것처럼 보인
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군인들의 가슴엔 중오심이
타오르고 온몸에 《일당백》의 장수힘이 용솟음친
다는것이다.

더우기 신기한것은 주체85(1996)년 3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대덕산에 다녀가신 후에 생겨난
일이였다.

그날 《일당백》 구호바위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
군님께서는 군인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구호바위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고 하시면서 그것을 잘 관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큰물이 날수 있는데 그러면
무너져내리는 산사태에 구호바위가 피해를 받을수
있다고 하시며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일깨워주
시였다.

그날 그이를 안내해 드린 군부대 부대장은 얼떠
름해하였다. 큰물에 사태가 나다니?

대덕산중대출신인 부대장은 수십년세월 대덕산
과 함께 군사복무를 해오면서도 언제 한번 여기서
큰물이 나거나 더우기 산사태가 난것을 보지도 못
했고 그런말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장군님의 말씀이여서 언제인가는 꼭 큰물
이 나리라 생각하며 큰물피해대책을 세우기 위해
구호바위가 있는 뒤편봉우리에 올라가 지형을 조사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태가 날만 한 위험개소를
찾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호바위뒤 골짜기에 물
끓을 깊이 파주고 몇군데 옹벽을 쌓도록 하였다.

큰물피해방지를 위한 공사가 끝난지 몇해가 지난
주체89(2000)년 여름이였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더니 바다를 기울
인듯 폭우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어찌나 퍼부어
댔던지 잠간사이에 구호바위뒤 골짜기에서 큰물이
사품쳐 흘러내리고 와그르르 산사태가 났다.

군인들은 급히 구호바위가 있는 산봉우리로 올라
갔다.

어느새 알았는지 부대장도 달려왔다.

산아래를 내려다본 그들은 모두 《아!》 하고 일
시에 탄성을 내질렀다.

어쩌면 이리도 신통할수 있을까?

무너져내린 산사태는 구호바위로부터 10m 채 못
되는 우에서 방향을 바꾸어 왼쪽으로 밀려내려간것
이였다.

하마트면 산사태에 구호바위가 묻힐번 하였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 왼쪽골짜기로 무너져내렸을
가?

물론 미리 옹벽을 쌓아놓긴 하였지만 무너져내린
산사태의 크기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도 작은것이였
다.

그들이 파놓은 물끓도 골짜기로 흘러내린 엄청난
물량에 비하면 대비도 안되게 좁고 얇았던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산사태와 골짜기의 물이 구호바위
에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마치 그 어떤 거대한 힘이 구호바위에 미치지 않
게 산사태와 물흐름을 돌려놓은것만 같았다.

《정말 신기하오! 신기하단 말이요.》

산봉우리우에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거연히 서있는 구호바위를 내려다보면서 부대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여기 대덕산에 큰물이 나고 산사태가 난다는것을 아시였을가? 그와 함께 부지중 그의 뇌리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우시는 《일당백》 구호가 새겨진 바위를 하늘땅이 받들고 지켜주고있다는 생각이 번개치듯 스쳐지나갔다.

날이 갈수록 구호바위는 더더욱 신비해져 대덕산을 찾는 사람들은 그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의 가슴속엔 언제나 《일당백》의 봉우리 대덕산이 우뚝 솟아있어 온몸에 장수힘이 샘솟게 하였으며 적들은 대덕산이란 말만 들어도 기가 질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팔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언제나 대덕산을 마음에 안고계시였다.

1980년대중엽 어느해 봄날, 그이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인민무력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다고 한다.

《어제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왜 그런지 자꾸만 대덕산군인들이 눈앞에 보이더구만. 정말 그들이 보고싶소. 시간이 있으면 대덕산에 가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덕산에 다녀오라고 하시였다.

그후에도 이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적들이 대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겠는가.

얼마전 희석희석해진 머리에 금줄을 두른 장령모자를 쓰고 어제날의 꼬마병사 용국이가 대덕산에 찾아왔다고 한다.

못잊을 옛 병사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대덕산의 여러곳을 돌아보고난 그는 구호바위앞에 점도룩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옆에 서있는 중대장에게 말하였다.

《이 구호바위앞에 서니 옛 병사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눈앞에 삼삼하오. 그런데 한가지 일만은 아직 풀리지 않는것이 있소. 그때 이 바위에 글은 새긴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있단 말이요.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알지 못하고있으니... 정말 하늘의 조화가 맞는것 같소.》

《장령동지! 우리들도 하늘의 조화가 분명하다고 믿고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세기가 되어오도록 이 글을 새긴 사람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소. 중대장동무 말이 옳소. 이 글은 분명 하늘이 새겨놓은것이요.》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장령과 중대장의 대화는 오래동안 계속되었다.

그렇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은 대덕산의 천연바위에 새긴 《일당백》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하늘이 새겨 놓은것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하늘이 그 구호바위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고있다.

김우경

가사

정의의 선군

림공식

내 조국의 존엄위해 천만군민 틀어잡은
선군의 총대는 백승의 보검이다
인민의 운명을 총대로 지켜주는
장군님의 선군은 정의의 선군이다
그렇다 정의의 정의의 선군이다

조선이 열여가는 선군의 그 길 위에
불구름 가셔지고 노을이 불란다
민족의 번영을 총대로 담보하는

장군님의 선군은 정의의 선군이다
그렇다 정의의 정의의 선군이다

조국이며 인민이며 선군은 우리 생명
자주와 평화의 영원한 기치이다
오늘도 래일도 태양조선 펼쳐갈
장군님의 선군은 정의의 선군이다
그렇다 정의의 정의의 선군이다

태양의 해돋이

김대원

창밖에는 봄기운이 완연했다. 입원실창가엔 서서 면회왔던 가족들이며 여러 손님들을 손저어 바래주고난 최룡선장령은 천천히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원탁쪽으로 다가갔다.

원탁우에는 편지 한장이 놓여있었다. 좀전에 면회를 왔던 부관이 얼마전에 조국을 방문했던 한 총련일군이 전해주더라면서 두터운 천으로 정성스레 포장한 커다란 한폭의 그림과 함께 가져온것이였다.

항일유격대시절부터 한생을 손에 총을 잡고 인민 무력부문에서 사업해 온 최룡선장령에게는 이렇게 외국인들로부터 편지를 받는적이 드문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이렇게 몇달씩 병원 신세를 종종 지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다.

결에 놓인 안경집에서 안경을 찾아 낀 최룡선장령은 천천히 편지를 집어들었다.

《최룡선선생양. 도표에서 마에다 시게오 올림》이라고 곁봉에 큼직큼직하게 박아쓴 글체가 그의 눈안에 확 안겨들었다.

(마에다 시게오라?!)

한동안 생각을 더듬던 최룡선장령은 10여년전 당시 일본정계의 유력자였던 마에다 산조와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발신인의 얼굴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편지를 개봉하였다.

《안녕하십니까?

10여년전 아버지 마에다 산조와 함께 귀국을 방문했던 마에다 시게오가 이 글을 올립니다.

조선을 방문했던지도 퍼그나 오랜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유언을 실행고저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이란 자기가 미완성 유고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태평양의 해돋이> 라는 그림을 꼭 완성하여 **김일성**주석님의 명전에 올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그림은 온 세계가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숭앙해마지 않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아버지자신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의 발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며 또 제가 어떤 사연을 안고 부친의 그 유언을 지키게 되었는지 아마 선생님은 다는 모르실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랄가 제가 얼마전에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3돐을 맞으며 <**김일성**주석접견기> 라는 제목으로 <아사히신봉>에 발표한 글의 일부를 적어 보냅니다.…»

최룡선장령은 잠시 편지에서 눈길을 때고 유포에 포장된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에다 산조, 반공우익보수세력의 필두로 우리 공화국에 그 얼마나 많은 못된짓을 하였던가....)

이윽하여 다음장을 펼쳐드는 최룡선장령의 기대 어린 시선은 편지의 글줄들을 더듬었다.

1

...

내가 아버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의 도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199×년 ×월 어느날 이였다.

그때 나는 도표 우에노미술관에서 열리고있는 빈센트 완 고흐, 폴 고갱 등 인상파화가들의 최고미술전을 구경하려고 오래간만에 고향도시로 왔던 참이였다. 고흐나 고갱과 같은 화가로서 남다른 흥미와 기대를 가지고 미술전을 관람했던 나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심란해짐을 느끼며 미술관정문을 나섰다.

《...한생을 인간과 태양사이에서 몸부림치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완 고흐, 그의 자살은 태양과 인간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제나름의 흥분에 떠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던 해설자의 말이 귀전에 그대로 울리고있음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미술관앞 공원길상으로 다가갔다.

(태양과 인간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

나는 담배를 피워물고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였다.

일생의 전부를 자연풍경에 미치는 태양의 힘을 화폭에 재현코저 몸부림친 완 고흐, 동료의 유업을 가슴에 안고 태양과 가장 가깝다는 태평양의 타이치섬으로 찾아갔던 폴 고갱...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태양의 진모를 화폭에 담지 못한채 고독과 절망속에 스러져간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볼수록 나는 가슴속에 이상스런 예감이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혹시 나에게도 그들과 같은 운명이...

나는 지못게 갈마드는 고흐와 고갱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애쓰며 좀전에 사넣었던 석간신문을 꺼내들었다.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며 신문의 표제들만 대충

훔쳐 내려가던 나의 눈길은 특호활자로 찍혀진 어느 한 기사에 가 멎었다.

《중의원 의원 마에다 산조 북조선방문결심 확약. <천황> 에게 국제사회앞에서의 우리 정부의 공식 사죄 요구. 오늘 오전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정계의 가장 큰 론의 거리로 되어오던 <도요마루>호 선원문제 해결차로 마에다의원자신이 직접...》

(아버지가... 끝내 아베파에 몰리우고만것인가?)!

아베란 나의 아버지 마에다 산조와 오래전부터 정적관계에 있는 파벌의 우두머리였다. 아베일파는 자민당내에서도 나의 아버지 마에다가 이끌고있는 파벌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파벌에 대하여 구실이 없어 어찌지 못하고있는 형세였다. 얼마전 북조선령해를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다가 나포된 《도요마루》호 선원문제를 두고 두 파간의 대립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민간 어선으로 위장했던 《도요마루》호가 해군성의 특별지령을 받은 정탐배였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이끄는 파벌의 핵심인물인 니시무라 해군대장뿐 아니라 파벌 전체를 《국회청문회에서 탄핵》이라는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었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누구든 평양을 방문하여 북조선정부에 정식 사죄하고 선원들을 귀환시키는 문제는 아버지가 이끄는 파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정치적 과제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간다는것은...

나로서는 참으로 놀랄만 한 경이가 아닐수 없었다.

나는 새 담배가치를 붙여물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아버지를 만류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머리를 돌려 고층건물이 꼭 들어찬 도시교외의 집쪽을 바라보았다. 사실 나는 오래간만에 도쿄에 올라왔던 기회에 인상화화가들의 미술전을 구경한 다음 애인인 후미에나 만나보고는 곧장 오사카로 내려갈 생각이였다. 두해전에 의절하다싶이 하며 아버지와 헤어진 나로서는 아버지를 만류하려 집으로 갈 용기는 사실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닌가?)

아득히 흘러간 대학시절, 나는 도쿄교외의 어느 한소학교의 교원으로 일하고있는 후미에라는 처녀와 사랑을 약속했었다. 사랑에 빠진 청춘들치고 누구에게나 자기의 애인에게 반하게 되든 남다른 계기나 측면들이 있기마련이다. 하지만 내가 후미에에게 사랑을 쏟아붓게 되는데는 그 어떤 류다른 계기나 사연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 누가 중의원 의원

이미 자민당의 요직인물인 마에다 산조의 아들, 이 마에다 시게오에게 용모도 그리 빼어나지 못하고 몸도 체소한 그리고 재산이나 가문도 별로 마음이 끌릴만 한데가 없는 그런 처녀에게 어떻게 되어 반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구태여 대답이라고 생각되는것이 있다면 그저 남다르게 보이는 그 순진한 눈매때문이였달가. ... 아마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을것이다. 하여튼 나는 후미에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다.

일장춘몽처럼 흘러간 1년여의 달콤한 련애기간의 어느날, 그날은 미술대학을 졸업한 나의 아사히신문사 취직이 결정된 날이었다.

나는 처녀들처럼 수집음으로 빨강계 달아오른 얼굴로 아버지에게 후미에를 소개하였다.

처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게 싶어 바재여지는 마음을 달래는 나의 아래도리가 후두두 떨렸다.

허나... 무용수처럼 상큼한 고개를 가웃이 숙이며 인사를 하는 후미에의 얼굴을 띄여보는 아버지의 《조는 눈》은 모질게도 찌프러졌다. 사실 나로서는 언제인가 후미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아버지가 어느 정도 긍정을 표시한적이 있어 얼마간의 자신심을 가지고있었다.

《음...》

찬성인가, 반대인가?... 나는 종잡기 어려운 부친의 태도에 나도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말았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헛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날 저녁, 처녀를 바래주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불리워갔다.

《그 처녀의 할아버지인가 하는 사람이 조선사람이라면서?》

아버지는 쏘파에 걸터앉아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물풍스레 물었다.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

《안된다. 우리 집안엔 야마도민족의 혈통이 아니 고서는 안돼. 단념해라.》

《...》

나는 한동안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조선사람이었다는 그 하나의 리유때문인가요?》

한참만에야 겨우 입을 연 나의 어조는 사뭇 떨렸다.

《뭐라구?!》

아버지의 《조는 눈》이 모로 이지러졌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는 조선인이나 조선계 혈통의 가문과 사돈을 맺는 경우에 자신의 정

치적출세의 길이 막힌다는 말은 나에게 차마 할수 없었다고 한다.)

《난 후미에를 버릴수 없어요.》

《그렇다?!... 그럼 난 너를 내 아들로 치부하지 않겠다. 비록 세살적부터 예미없는 외아들인 너를 홀로 키워온 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만...》

《뭐라고요?!》

이 일본땅에 순수한 야마도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는 이런 항변이 목구멍으로 터져나오는것을 겨우 참았다.

《그리고 내 안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요새 그 처녀에게 미쳐 조선말까지 배우며 돌아간다는데 싹 걷어치우는게 좋겠다... 이 집안에서 그 반도인 냄새를 조금이라도 피웠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는 작두날같은 성미 그대로 더는 할 말이 없다는듯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은후부터 나는 아버지를 의식적으로 멀리하기 시작했다. 출장을 구실로 몇달씩 나가있기가 일쑤였고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집에 붙어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아사히신문 오사카부사로 조동되었다는 한마디를 우편배달부가 편지배달하듯 훌쩍 뺏아놓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그 모든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 아버지의 생각은 오직 한가지, 어떻게 하면 정계에서 실권을 잡겠는가 하는데만 쏠려있었다. 누구는 어느 편에서 어떤 권모술수로 떼여내고, 누구는 어떤 음모로 실각시키고, 누구는 어떻게 매수하여 끌어당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정치파쟁속에서 아버지의 머리는 건잡을새없이 세여져갔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가 살고있는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있던 나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는 아버지에게 신문부터 내밀었다.

《네가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너를 만나려던 참이었는데...》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뭇말이나?》

내가 내미는 신문에서 특호활자로 인쇄된 자기의 북조선방문에 관한 보도내용을 본 아버지는 《조는 눈》을 치켜뜨며 나의 얼굴을 별스레 여겨보았다.

《사실이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꼭 가셔야 되는가요?》

《꼭 가야 한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물며 쏘파에 걸터앉았다.

《물론... 아버지도 잘 알고계시지만... 아버지가 평양에 갔다오면 아버지의 정치적운명이 어떻게...》

《그만해라. 나도 모르는바는 아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아베 노부스께 그놈이 아마 나의 목줄을 끊어버리자고 덤벼들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평양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뵙는것은... 나의 여생의 소망이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말마디들이 매우 힘들게 흘러나옴을 느꼈다.

《소망이라구요?》

나의 놀란 눈길이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었다.

나는 적성국가의 수반을 깃듯이 존대하여 **《김일성 주석님》** 이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처음 보았거니와 더우기 그분을 만나뵙는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간직하고있다는 사실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참 너 아직 후미에를 잊지 않고있겠지?》

《...》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쓸데없는... 30이 넘은 네가 여적 다른 처녀들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고 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며칠전에 가와시마상을 만났댔다. 참 너 그가 누구인지도 모를테지... 음, 그럴만 한 일이 있다. 후에 다 알게 될게다.》

아버지는 감았는지 뻗는지 모를 《조는 눈》을 내려간채 한동안 아무말없이 담배연기만 피워올렸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애야!》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이 애비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다... 들어주련?》

《뭇데요?!》

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침을 꿀꺽 소리가 나게 삼키며 반문하였다.

《다른게 아니고... 나와 함께 평양에... 가지 않겠니?》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조는 눈》이 번쩍 떠지며 나의 얼굴로 향해지는것을 느꼈다.

남달리 눈두덩에 살이 많아 중년기가 지나서부터는 뻗는지 감았는지 분간키 어려운 아버지의 눈을 두고 몇해전 영국의 어느 한 탐방기자가 《한번 치프기만하면 <벼락> 이 떨어지군 하는 마에다 의원의 <조는 눈>》 이라고 표현한후부터 유명해진 아버지의 눈이었다. 이 몇해어간에 아버지의 눈두덩살이 더 많이 쳐져내렸음을 가슴아프게 느끼며 나

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해 눈길을 돌렸다.

《평양에요?!》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한동안 그저 덤덤히 앉아만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이 애비가 아들인 너에게 하는… 부탁들중 가장 힘들게 하는… 부탁이라는것을 말해두고싶다.》

아버지는 《조는 눈》을 또다시 치켜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나는 한번 치켜뜨기만 하면 《벼락》이 떨어지곤 한다던, 언제나 도고한 자존심에 넘쳐있던 아버지의 그 《조는 눈》에서 지금은 어쩌서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애원의 빛만이 느껴질까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다.

잠자리에 든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인차 잠들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무엇인가 일생에 가장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것만은 분명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아버지의 그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었다.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하게 했을까?… 백전로장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호기심때문일까? 아니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들지 못하고 상념에 시달리던 나는 새벽녘이 거의다 되어서야 서서히 꿈나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2

가고시마현의 오랜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난 나의 아버지 마에다 산조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학대와 잔인성으로 일관된 무사도 교육과 교양의 영향 밑에서 성장하였다.

할아버지도, 아버지와 두 삼촌들까지도 사무라이인 마에다의 가문은 남자들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모두 일본도를 옆구리에 차고 일본인특유의 긴 상투꼭지를 건 땡거리며 거들스레 위세를 뽐내면서 다니곤 하여 린근의 웬간한 다이묘들도 속보지 못하는 대가정이었다.

마에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앞으로 커서 꼭 그들과 같은 사무라이가 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마에다는 그들의 《어명》을 단 한번도 거역해본적이 없었다. 마에다가 17살 나이에 조혼하게 된 것도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였다.

요네하라 기미요라는 두살이나 우인 시마네현의 제화업자의 딸과 얼굴도 못보고 결혼을 한 마에다

에게는 이듬해에 맏아들 이찌로가 태어났다.

그 애의 출생을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아버지인 마에다보다도 80이 넘는 로구인 할아버지였다.

자리에 누워 대소변을 깡그리 받아내게 하면서도 사무라이 기상만은 현현하여 큰소리를 곧잘 치곤 하던 할아버지는 어린애처럼 손벽을 치며 기뻐했다. 마에다의 어머니는 령감이 로망을 한다고 부엌에서 혼자 두덜거리곤 하였으나 그도 역시 맏손자를 끔찍이도 귀여워했다. 온 가정의 총애속에 이찌로는 생김새는 물론이였거니와 기질면에서도 사무라이 가문의 후손답게 다른 집 애들보다 사납고 세찬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그 애가 5살 잡히던 어느해 가을날이었다.

아버지 가꾸에이와 함께 가문이 경영하던 양주소의 회계를 맞춰보고 돌아오던 마에다는 자기 집 대문밖에서 떠들어대는 녀인들의 목소리에 시끄러움을 느끼며 무슨 일인가 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마에다의 안해 기미요와 이웃에 사는 아베씨의 며느리가 무슨 일로 해서인지 서로 목청을 돋구어 가며 다투고있었다.

《무슨 일인가?》

시아버지인 가꾸에이가 짐짓 가장의 위엄이 풍기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우리 이찌로가 자기네 모찌를 훔쳐먹었다지않아요.》

《뭐라구?! 이찌로가?… 이찌로를 데려와.》

가꾸에이는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며느리에게 호령했다.

기미요가 집안으로 달려들어가 낮잠을 자고있던 이찌로를 깨워 데려내왔다.

《이찌로. 바로 말해라 네가 정말 모찌를 훔쳐먹었니?》

가꾸에이는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무사용단검자루로 이찌로의 턱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아니요. 난… 훔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던 이찌로는 턱밑을 파고드는 단검자루를 겁질린 눈으로 띄여보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오꾸상, 들었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요.》

《아니예요. 아까 이 맥 이찌로가 우리 쇼파로와 우리 집에서 놀다간 다음에 보니 글쎄…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이 우리 쇼파로 할아버지의 3년제사 날이라 제상에 올릴 음식에 손을 댔기에…》

《이찌로, 다시한번 똑바로 말해봐라. 떡을 훔쳤니, 안훔쳤니?》

가꾸에이는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마을사람들을 수치감어린 시선으로 둘러보며 다시금 손자를 다그어댔다.

《아니예요. 난 안흠쳤어요.》

이찌로는 눈물이 글썽하여 완강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여보 오꾸상, 똑똑히 들었지. 우리 이찌로는 그 따위걸 흠칠 애가 아니요.》

《뭐라구요?! 그따위것이라구요? 원 참, 남의 제상음식을 보구… 그럼 내가 없는것을 지어서 말하겠나요? 별꼴 다 보겠네. 흥… 도적놈새끼 같으니라구.》

아베씨의 머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이찌로를 도적으로 몰아댔다. 마을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를 만났다는듯 빙 둘러서서 수군거렸다.

《도적놈새끼라구요?!》

가꾸에이의 얼굴은 벌써 울기가 올라 시뻘겋게 상기되어갔다.

먼발치에서 일이 시끄럽게 번져가고있는것을 바라보고 서있던 마에다는 이 자리에서 이찌로의 청백함을 밝혀 보이지 못한다면 동네사람들에게 무라하찌부(에도시대때부터 발생되어 내려온 따돌림형식의 처벌로서 대단히 잔인했던것으로 알려져있다.)를 당하리라는것을 느꼈다.

아버지 가꾸에이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옆구리에 서 무사용단검을 뽑아들고 아베씨의 머느리를 쏘아보았다.

이발을 사려물고 행악을 쓰던 그 녀자는 가꾸에이의 손에 쥐여진 시퍼런 칼날을 보자 겁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하였다. 가꾸에이는 온몸에 살기가 뻗쳐오르는 모양으로 두팔소매를 부르르건으며 씹어뱉듯 말했다.

《야 이년아! 뭣이 어찌구 어째. 이 개같은년. 우리 이찌로가 흠쳐먹지 않았다면 어쩔테냐?》

가꾸에이는 번개같이 손을 뻗쳐 그 녀자의 목살을 그러잡았다.

《그… 그것도 말이라구 해요? 우리… 쇼파로가… 봤다는데두요.》

《좋다, 만약 흠쳐먹지 않았다면 내가 증명하는 날엔 내 손에 네년의 목줄이 끊어진다는것을 알아둬라.》

가꾸에이는 이찌로쪽으로 돌아서며 손자의 머리끄덩이를 움켜잡았다.

《이찌로, 흠쳐먹었니, 안먹었니?》

이찌로는 겁에 질려 눈물을 똑똑 떨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먹었던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 저년에게 보여주자. 네가 흠쳐먹었는지 안먹었는지를 말이다.》

가꾸에이는 손자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다. 그리고는 손에 들었던 단검을 이찌로의 복부에 사정없이 들이박았다.

《악-》

이찌로는 물론 모여섰던 동네사람들과 행악을 쓰던 그 녀자의 입에서도 새된 비명이 터져나왔다.

창자가 쏟아져내렸다.

마에다는 아버지 가꾸에이의 피묻은 칼날을 똑똑히 보았다.

《자, 봐라. … 이번엔 네년 차례다. 이년아!》

가꾸에이는 너무도 끔찍하여 얼굴을 돌리고 내뺄려는 아베씨 머느리의 목덜미를 피묻은 손으로 거머잡으며 소리쳤다.

이미 제정신을 상실한 가꾸에이는 덜미를 그러잡힌채 버둥거리는 그 녀자의 목줄기에도 서슴없이 칼날을 들이박았다.

누구도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잔인한 행동이 오히려 역세고 사내다운 무사도적기질의 발현으로 찬양을 받던 시대였다....

마에다의 일가는 그날 밤중으로 몇대를 두고 살아오던 가고시마의 향촌을 떠나 도표로 거처지를 옮기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 마에다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몇번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 가문의 《자랑》이었다.

이 《자랑》을 들려줄 때마다 아버지는 의례히 너도 조상들처럼 《무사도다운 사내대장부》로 자라야 한다는 결구로 말을 마치고 하였었다.

도표로 거처지를 옮긴 그 이듬해에 아버지는 화가가 되려던 꿈을 버리고 관동군에 징집되어 중국 동북지방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7년여에 걸치는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또다시 놀라운 사실에 부닥쳤다.

일본의 전면항복을 선언하는 히로히토 《천황》의 방송연설이 있던 그날 밤, 말끝마다 정통사무라이혈통을 넘볼처럼 외우던 90객의 로구 증조할아버지의 《엄숙한 제의》에 따라 할아버지 가꾸에이가 할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안해 기미코와 6살난 아들에까지 온 집안을 독실했버리고 자기까지 자결해버렸던것이였다.

이른바 《군신》 노기 마레스께처럼 《결사의 순국》의 길을 택한다는것이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간을 홀로 살아오던 아버지는 친척, 친우들의 거둬되는 권고에 못이겨 40이 넘는 나이에 두번째 장가를 들었다. 요시다수상의 먼 친척별이된다는 아버지의 두번째 안해 마에다 나쓰코-나의 어머니는 명문가출신의 녀성답게 퍼그나 현숙하고 세련미를 풍기는 녀성이였다.

외가와 그 가문의 후원으로 아버지는 정계진출의 기회를 얻을수 있었다. 하지만 부친 자신이 한탄했

듯이 여자박복의 팔자를 타고난 아버지에게 시집을 온 나의 어머니 역시 다섯해를 못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버지는 또다시 독신생활을 하면서 나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심했어요. 아버지, 함께 가겠습니다.》

《고… 맙다.》

아버지는 나의 두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그 검버섯이 드문드문 내뿜은 두손에서 따뜻한 혈육의 정을 느끼며 부친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평양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여러가지 마음속 궁리가 있었다. 우선 내가 함께 가면 후미에와련애할 때부터 배운 조선말을 어지간히 번질줄 아니 아버지를 도울수 있겠다는것과 이즈음에 와서는 거의 의절하다싶이 해오던것으로 하여 로년기에 이른 아버지에게 한을 남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가 내민 한줄기 인연의 실마리를 팽정히 끊어버릴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3

평양에 도착한 나와 아버지의 일행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만경대였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나와 아버지는 **김일성** 주석님은 가난한 농사군의 자손이라고 하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실감하였다.

지난날 조선의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수수한 초가, 찜지게 가난한 살림이었음을 말해주는 가장집물들, 대대로 손때를 묻혀온 농기구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원형준비서와 인민무력부의 최룡선장령 등 여러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고향집의 안팎을 주의깊게 살펴보던 아버지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빈곤은 모든 위인들의 요람에 붙어 그들을 위인으로 키워냈어라.》는 하이네의 명구가 흘러나왔다.

방문을 마친 일행이 승용차에 오르려고 할 때였다.

원형준비서와 최룡선장령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만경대방문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말입니까?》

아버지는 대답을 생각하는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이제야 왔을가 하는 후회뿐 이랄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북조선을 두고 무서운 호전국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정의의 리상국이라고 찬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안개속에 파묻힌 미궁같은 수수께끼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물론 평양에 대한 방문이 이제 더 심화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조선속담 그대로 실지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 없겠다는것입니다… 오늘 만경대방문에서 나는 반백년동안 단 한번의 실각도 없이 이 나라와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김일성** 주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뿌리를 보았다고 할가…》

《그렇습니까?… 선생의 만경대방문이 우리 나라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했다니 나로서도 기쁩니다.》

원형준비서의 얼굴에는 언제나와 같이 따뜻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저… 어제도 부탁한바이지만… **김일성** 주석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형준비서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할 때 나는 뒤에 서있던 최룡선장령의 얼굴빛이 별스레 굳어짐을 느끼었다.

어제 비행장에서 마중 나온 북조선측 일군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도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최룡선장령의 얼굴빛은 어딘가 석연치 않아하는 기색이었다.

항일유격대시절부터 **김일성** 주석님을 보좌해 온다는 백전로장의 모습은 나에게 그 어떤 위압감을 안겨주었다.

《수령님께서도 몹시 바쁘십니다. 지금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십니다.》

뜻밖에도 최룡선장령이 거센 탁성으로 통명스레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생이 수령님을 만나뵈울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원형준비서는 차문을 열며 아버지가 먼저 오르도록 권하였다.

아버지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어쩐지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 뵈으려는 아버지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어제 평양으로 오는 비행기안에서도 《**김일성** 주석님을 꼭 만나뵈워야 하겠는데…》 하면서 주석님과 접견이 방문일정에 예견되어있지 않음을 두고 몹시 걱정스러워 하던 아버지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3박4일의 체류기일중 두번째날의 방문일정을 마친 아버지는 저으기 피로한 기색으로 숙소의 응접실에 앉아 텔레비존을 보고있었다.

그날 오전에는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등 평양 시내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원형준비서를 단장

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과의 공식회담에 참가하여 조선과 일본사이에 제기되고있는 현안문제들을 토의하느라고 어지간히 지쳤던것이다.

회담은 그만하면 만족스럽게 진척되고있었다.

이제 남은것은 《도요마루》 호 선원들의 귀환문제였다. 회담에서 아버지는 국제사회앞에서의 조선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를 담보로 선원들을 귀환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원형준비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토의를 진행하여야 하겠다고말하였다. 그러나 회담보다도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 뵈오려는데 아버지의 최대관심이 있다는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텔레비죤에서는 자강도의 어느 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김일성** 주석님의 모습이 방영되고있었다.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농장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손수 강냉이이삭을 드시고 무게도 가늠해보시고 이삭당 알수도 세여보고계시였다.

나는 텔레비죤을 보고있는 아버지가 별로 측은하게 생각됨을 느끼였다. 감았는지 뗏는지 모를 그 《조는 눈》으로 텔레비죤을 보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놓았던 옷옷을 찾아입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음… 이러다간 내가… 원비서를 만나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뵈게 해달라고 다시한번 말해보려구…》

《아버지, 저 주석님을 만나뵈는것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것이 어떨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대뜸 눈살이 찡뚱해서 되물었다.

《물론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됩니다만… 북조선측의 취지에서… 가깝게는 **김일성** 주석님의 립장에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뭘라구?!》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석님께서서는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삼촌들과 동생까지도 모두 우리 일본사람들 손에 잃은분이 아닙니까?… 주석님께서도 인간이실테니… 원주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버지같은 사람과 마주앉는다는것이 그분으로서는… 내 생각엔 아버지가 단념하시는게 옳을것 같군요.》

《음… 그렇단 말이지?》

아버지는 한방망이 얻어맞은듯 한 열떠름한 표정으로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렸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 한동안 머리를

짜쥐고 앉아있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침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애 시계오… 이 애비가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뵈고 싶어하는것은 내가 청춘시절 관동군에 복무하던 그때 그분과 맺어진 남다른 인연때문이다. 물론 나도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만 사실… **김일성** 주석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할수 있는분이다.…》

…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올무렵에야 행군대오는 멎어섰다. 이어 소대단위로 모닥불을 피우고 야침식사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였다.

마에다는 가와시마와 함께 등에 지고 오던 탄약상자를 내려놓고 진대나무우에 걸터앉았다.

《여기가 어딜까?》

가와시마가 겁질린 어조로 물었다.

《그건 알아 뭘하겠소?… 어차피 산중고혼이 될 신세인데.…》

《그래도 사민들이야 죽이지 않겠지.》

《군대고 사민이고간에 다 같은 일본사람들인데 그래 사정을 봐줄것 같소?》

가와시마가 지금까지 몇십번은 더 말했을상실은 그말에 마에다는 버럭 성을 내며 밀막아버렸다.

이들이 상흥리목재소에서 잡혀 온지도 벌써 사흘째, 후속부대의 임무를 받고 무산지구의 붉은 바위 일대에 출몰했다가 압록강을 건너 사라진 유격대의 행적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던 마에다의 소대는 그날 밤이 꺾 깊어서야 일본인목재상 가와시마가 경영하는 상흥리목재소에 도착했었다. 여기서 하루밤을 묵기로 작정한 그들은 목재소의 여러 방들에 분숙했다. 여러날동안 산속에서 밤을 지새운 그들은 인차 세상 모르게 뿔아떨어졌다. 보초병마저 줄기 시작했던 새벽녘, 천지를들부서버리는듯 한 총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이 시작되였다.

유격대의 습격은 순식간에 소대장이하 소대인원 전멸이라는 결과로 결속되였다. 행운이랄지 불행이랄지 목재소주인 가와시마의 방에서 자던 소대장련락병 마에다만이 유독 살아남았다. 함께 자던 소대장은 그래도 《황군의 용기》를 발휘하여 권총과 군도를 뽑아들고 문밖으로 달려나가다가 물방으로 터지는 유격대의 수류탄세례를 받고 순식간에 모가지 없는 귀신이 되고말았다. 마에다는 습격이 개시되자 창황중에도 얼른 벽에 걸려있던 가와시마의 옷을 벗겨입고 사민홍내를 낸것이 큰 도움이 되였다고 지금껏 마음속 위안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지금은 그런 실오래기같은 행운에 기대가 가

지 않았던것이다.

《여보게, 자네 이 전쟁에서 살아돌아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려나?》

가와시마가 느닷없이 묻는 말이였다.

《나 말이요?... 난 화가가 되고싶소.》

《화가?! 음... 어제 저녁 그 봉변도 그래서 당했잖군.》

가와시마는 이해가 된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봉변?!... 흥... 그들은 아마 내가 자기들의 무슨 큰 비밀이라도 적어넣었는가 했겠지.》

어제 저녁 마에다는 평소의 취미 그대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자그마한 속사수첩을 꺼내들고 우등불가에 앉아있는 유격대원들의 인상적인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했었다. 그러다가 키가 크고 얼굴이 갱긋한 한 유격대지휘관에게 수첩을 압수당했던것이다. 그 지휘관은 마에다의 수첩에 그려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는 더욱 대노하여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퍼부었던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할테요?》

이번에는 마에다가 물었다.

《난... 누구도 살지 않는 인적드문 산골에 들어가 농사나 지으며 일생을 살고싶소... 솔직히 말해서 난이 전쟁이 막 역겹소. 왜 서로 싸우는가 말이요. ... 당신은 왜 총을 메고 여기로 왔소? 누가 당신더러 여기로 오라고 했소? 어째서 이 낯설은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고생을 하는가 말이요.》

가와시마는 제 흥분에 떠서 마구 지껄여댔다. 마에다에게는 적어도 지금 가와시마가 자기로서는 이해할수도 없고 또 이해하고싶지도 않는 그 어떤 녀두리를 지껄여 댄다고 생각되였다. 그로서는 당장이 이름모를 산속에서 속절없이 죽는다는 그것이 한스러울뿐이였다.

공을 세워 가문의 영예를 빛내인 영웅남자로 금의 환향하리라고 생각했던 청운의 꿈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는 그 절통한 생각뿐이였다. 한동안 기염을 토하던 가와시마는 마에다가 아무 응대도 없자 제풀에 입을 다물어버리고말았다. 마에다는 만사가 다 귀찮다는듯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진대나무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밀림속 사이로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는 동편하늘가를 넋없이 바라보았다. 영낙없이 죽게 되리라는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다.

수림속공지 여기저기 들에서 모닥불들이 타올랐다. 구수한 밥짓는 냄새가 마에다의 창자를 자극했다.

행군대오 선두쪽에서 두사람이 다가왔다. 목갑총을 찬것으로 보아 지휘관들인듯 싶었다. 그들은 이곳저곳 대원들의 밥짓는 곳들에 멈추어서서는 룡담

도 하고 그 어떤 명령도 짭박히 내리군 하였다. 두사람 다 갱긋한 얼굴에 눈찌가 만만치 않아보였다. 두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마에다는 그들중에 어제 저녁 수첩을 압수하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쪽퍼고있던 다리를 가드라트렸다.

《저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달고다니오? 내 어제 저녁 말하지 않았는가. 빨리 처리해버리라고 말ियो.》

두사람중 키가 좀 더 커보이는 사람이 눈을 흘기며 곁에 선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인차 주력부대를 만나게 되면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구... 그리고 민간인들이라구...》

《민간인들이라? ... 그건 누구의 지시요?》

《련대장동지가 전광수동지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구, 최룡선련대장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군. 안되오. 저놈들을 살려보내면 우리 유격대의 행처가 어떻게 된다는것쯤은 초보적인 상식이 아니요. 련대장동무가 어디 있소?》

《저기 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선 두사람은 저쪽에서 걸어오는 몸이 다부져 보이는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들 세사람은 한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의논하는듯 싶었다.

마에다는 그들의 대화내용을 잘 알아들을수 없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들리지도 않았거니와 조선말을 모르는 그로서는 그들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들을수는 없는 노릇이였다. 하지만 마에다는 그들이 대체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짐작이 갔다.

(아마 키가 큰 그 사람은 분명 우리를 죽여버리라고 하였을것이다.... 아, 하긴 달리는...)

그들이 왔다간후 가와시마의 낯빛은 더욱 컴컴하게 어두워져갔다....

한낮이 가까와올무렵 행군대오는 밀영에 당도하였다. 밀영에 도착한후 두사람은 수림속공지가녁에 의파로 떨어져있는 귀틀막에 《감금》되였다.

마에다의 수첩을 압수하던 키가 큰 그 사람이 보초병과 함께 두사람을 귀틀막까지 데리고 왔다.

두사람을 귀틀막안에 들여보낸 그 사람은 제손으로 문고리에 빗장까지 지르며 보초병에게 뭐라고 몇마디 그루를 박아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는 어딘가 섬찍한 느낌을 주는 눈빛으로 귀틀막에 든 두사람을 훑어보고는 저쪽 귀틀집쪽으로 가버렸다.

마에다는 절망에 찬 한숨을 내쉬는 가와시마의 숨결을 등뒤로 느끼며 귀틀막안을 둘러보았다. 귀틀막안은 생각보다는 펄 깨끗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바닥에는 마른 풀단을 고르게 깔아놓았

고 한구석에는 통나무를 깎아 만든 긴 결상까지 놓여있었다. 동남향으로 조그만 피창까지 나있었는데 수림속을 뚫고 들어온 해빛이 귀틀막안까지 제법 밝게 비쳐주었다. 마에다는 방구석에 놓인 통나무 결상에 주저앉아 피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쪽빛 하늘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여보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죽일까?》

가와시마가 여전히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죽이겠지.》

마에다는 까짓것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흥심없이 대답했다.

《자네 홀몸이니 걱정이 없겠지만 난 처자가 있던 말일세.》

그때에야 마에다는 이 사람이 조선녀자를 데리고 사는 피짜라고 하던 소대장의 말이 기억났다.

(조선녀자라…흥, 비국민갈으니…)

마에다는 증오에 가까운 경멸감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그따위 조선계집따위가 뭐 그리 귀중해서…》

《뭐라구, 조선계집이라구?!》

가와시마는 억이 막히는지 더 말을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마에다는 자기가 너무 혹독하게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구태여 그것을 시정하고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처자가 있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기 생각들에만 잠겨있었다.

창밖 수림속공지에서는 유격대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앉아 총도 소제하고 군복의 터진 곳에 바느질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던 마에다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저기 저 몸이 다부진 저 사람말이요. 분명 아까 련대장이라고 했지?》

《가위를 들고 머리를 깎아주는 그 사람이 련대장이네.》

《옳네. 그 사람말이네. 분명 련대장이 옳지?》

《그렇네.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가와시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련대장이 직접 대원들의 머리를 깎아준다는 소릴들어 본적이 있나? 아까 행군할 때에는 저 애 어린 대원의 배낭도 메다주더니…》

《음…확실히 유격대는 우리 일본군대와는 판판 달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밖에서 《련대장동지, 근무중 이상없습니다.》라는 보조병의 보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몸매가 다부져 보이는 련대장이 손에 군용밥통을 들고 들어왔다.

《큍 시장하겠는데… 내 좀 있다 다시 오겠으니 빨리 식사부터 하시오.》

련대장은 들고온 군용밥통을 통나무결상우에 놓아주고는 아무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유격대원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사람이 방금 식사를 끝냈는데 졸전에 왔던 그 련대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몇 사람이 귀틀막안으로 들어왔다. 그중에는 마에다에게서 수첩을 압수하던 그 사람도 있었다. 놀라운것은 일행의 가운데서 계시는분의 모습이였다. 손에 자그마한 수첩을 드신 그분의 광채어린 안광은 마주보기조차 서슴어졌고 얼굴에는 어디라 없이 인자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마에다는 첫눈에 범상한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는 속생각을 하며 그분께서 들고 계시는 밤색수첩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는 분명 그 수첩이 압수당한 자기의것이라고 짐작을 하며 가와시마와 함께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올렸다.

그분께서는 련대장이 가져다주는 통나무쪽결상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말씀을 건네시였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얘기합시다.… 우리 유격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와시마는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무섭게 생각했었는데(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쨌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잡혀 오기전까지만 해도 유격대는 무서운 <비적무리> 라고 하는 당국의 선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동안 유격대를 따라다니는 과정에 그 선전이 거짓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전에도 내가 직접 목격한바이지만 상관이 대원들의 옷을 기워주고 머리도 깎아주는 그런 군대가<비적> 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자그마한 세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한가지 물어도…괜찮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에는 시종 인자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저…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 우린 민간인들입니다. 그저 금전을 목적으로 목재장사를 하느라고…》

가와시마는 얼굴을 수그린채 조심스런 어조로 말 씀을렸다.

《허허… 우리는 포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시원스런 그분의 대답에 가와시마는 얼굴을 번쩍 쳐들며 물었다.

《믿어도 됩니다. …참, 이 수첩이 누구의것입니까?》

그분께서는 손에 드신 수첩을 내보이며 물으시었다.

《저… 그전 이 사람의것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화가가 되고싶다면서 늘 어디가나 그림을 그리곤 하지요. 뭐…다른 목적으로 그리는것은 절대로 아녜지요. 저…이 사람은 조선말을 잘 모릅니다. 제가 담보합니다. 그저 취미가 그렇다나니…정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가와시마는 마에다쪽을 연신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다면…믿겠습니다. 그럼 이 수첩을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한가지 말하고싶은 것은

<동조동근>, <내선일체> 를 부르짖으며 우리 조선을 가로타고앉아 갖은 만행을 다 저지르고있는 일제야말로 진짜 강도의 무리, 비적의 무리들이라는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도의 무리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의 군대, 혁명가들의 군대입니다. 당신들은 군대가 아니라니 이런것들을 외면할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이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정의와 부정의를 옳게 가려보고 인생을 참답게 살것을 권고하고싶습니다.》

대화는 주로 그분과 조선말을 잘 아는 가와시마 사이에 진행되었다.

담화를 마친 그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뒤에서있던 그 키가 큰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나서 들고있던 수첩을 마에다에게 주시었다. 마에다는 영문을 알수 없어 가와시마의 얼굴만 돌아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첩을 받았다.

일행이 돌아간 다음 가와시마는 마에다에게 그분과의 대화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이 눈이 바로 배긴 사람들이니 그대로 돌려보내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하여 기빠 어쩔줄을 몰라했다.

가와시마의 말을 들은 마에다는 몇번이고 그제 사실인가고 되물으며 그의 두손을 잡고 귀를막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여보게, 아까 그분의 모습을 보았지. 역시 비범한 인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데. 보통인간이 아니야.》

마에다역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참, 자네 고향이 어딘가?》

가와시마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물었다.

《고향말이요?! 가고시마현이요.》

마에다는 그건 갑자기 왜 묻느냐는듯 한 표정의

로 가와시마를 바라보았다.

《내 고향은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요. 유명한 후지산이 멀지 않은 곳이지 나는 어릴 때 후지산에 올라가 태평양의 해돋이 구경을 즐겨했소. 자네도 후지산에 올라가본적이 있나?》

《아니, 난 올라가본적이 없소.》

《그렇데지. 이제 전쟁이 끝나면 꼭 한번 올라가 보게. …내가 왜 갑자기 후지산 소리를 하는가 하니 … 방금 나와 담화를 나눈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그 장쾌한 태평양의 해돋이가 려상되었기때문이요.》

《태평양의 해돋이라?!… 전쟁이 끝나면 꼭 한번 올라가보겠소.》

마에다는 가와시마의 말에서 그 어떤 비상한 감정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밤, 유격대원들은 수림속공지 한가운데 우등불을 피워올리고 그주위에 둘러앉아 오락회를 벌리었다. 마에다는 피창을 통해 그들속에서 유난스레 안겨오는 그분의 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얼마후에야 정신을 바로잡은듯 마에다는 주머니에서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고 그분의 모습을 그려보다가 사색에 잠기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위인의 모상이야 종종 화가들을 흥분시키는 법이지. 저런분의 모습을 후세에 남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화가로서 일생 후회하게 될거네.…》

가와시마는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마에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

그로부터 이틀후 마에다는 유격대에서 풀려나와 상흥리에 있는 가와시마의 집에 도착하자 바람으로 그분의 모습을 그리려고 화필을 들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끝내 그려내지 못하였다. 며칠을 모대기며 안타까와하는 그에게 가와시마가 의아스레 묻자 마에다는 딱소리가 나게 화필을 꺾어 던지며 시들하게 대답했다.

《난 아마 화가가 될 재목이 못되는것 같네. 그분의 모습이 통 머리속에 잡히지를 않는구만. 그저 온통 태양과도 같은 불덩어리같은것이 머리속에 콕 차오를뿐… 화가에게선 기억력이 기본이라는데…》

《알만하네.》

가와시마는 자기도 무엇인가 깨도가 된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

아버지는 목이 마른지 잠시 말을 끊고 탁자우에 놓인 차잔을 입에 가져갔다. 나는 놀라움에 젖은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의 감정은 놀라움보다도 경이에 가까웠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이였다. 지금까

지 아버지의 가슴속에 그런 놀라운 사연이 간직되어있었다는 것은 부친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일점혈육인 나로서도 전혀 뜻밖이었던것이다.

《그래서였군요.》

《바로 그런 은인을 나이 70이 넘도록 지금껏 몰라보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하냐?... 그래서 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기회에 꼭 그분을 만나뵙고 사죄도 하고... 그런데 네 말을 듣고보니... 내 궁리가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무래도 내가 단념하는것이...》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바람에 아버지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원형준비서와 최룡선장령이 빠른 걸음씨로 방안에 들어서고있었다.

《마에다선생, 기뻐하십시오.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생을 부르십니다. 빨리가십시오.》

《뭐라구요?!... 그게 정말입니까?》

아버지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단념해버렸던 소망이 뜻밖에도 실현된터라 한동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있기만 했다.

나의 마음도 아버지와 다를바 없었다. 그때 어떻게 행장을 차리고 어떻게 승용차를 타고 주석님께서 계시는 곳까지 갔던지 지금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4

편지를 읽어가던 최룡선장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도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넋을 잃고 자기와 원형준비서를 바라보던 마에다의 모습이 너무도 삼삼하게 안겨와서였다. 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 마에다일행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실 때의 일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수령님,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삼흥리목재소에서 일본인목재상과 함께 우리에게 잡혀왔던 그 일본인청년이 기억나십니까?》

《일본인청년?!... 가만 거 그림을 그리다가 전광수에게 수첩을 압수당했던 그 청년말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전광수가 그들을 죽여버리자고 할 때 수령님께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며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 일이 있었소...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정부의 요직인물이 되어 나타났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껏 일본우익반동세력의 우두머리로 우리 공화국에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엔 수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것을 다시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꼈던 그에 대한 인상은 그가 그렇게 례의도 도리도 모르는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수 없겠지만...》

사실 최룡선장령은 비행장에서 마에다일행을 마중하던 그때에 벌써 그를 어디선가 꼭 보았던듯 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추억의 갈피들을 더듬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뜻 떠오르는것은 없었다. 그러던 최룡선장령이 마에다의 얼굴을 알아본것은 그의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때 만경대방문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던 마에다는 원형준비서의 두손을 마주잡고 수령님을 꼭 만나뵙게 해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하였었다.

그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최룡선장령은 수십년전 동북의 수림속에서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자기의 손을 부여잡고 인사를 하던 마에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자기의 머리속에 청춘시절의 마에다의 모습이 떠올러지는 순간 최룡선장령의 놀라움은 컸다.

(일두 참,... 그때 자기를 살려준분이 누구시었다는것을 저 사람은 알고있거나 할가?!... 그런데 어쩌서 저사람은 그토록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어하는것일까? 방문일정에도 예견되어있지 않는것을...)

뜨거워 오르는 가슴속 흥분속에 그때의 일을 감회깊이 더듬어보던 최룡선장령은 차츰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리로 돌아와 앉아 다시금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정문밖까지 나오시여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계시었다.

《마에다선생,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이 포옹해주시는 주석님에게 아버지는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따뜻한 미소, 뜨거운 친화력... 마주보기조차 서슴어지는 빛나는 그 안광...

나와 아버지의 일행은 주석님과 원형준비서, 최룡선장령 등 북조선측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마에다선생, 방문일정도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은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그저 인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나누어봅시다.》

주석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자리를 권하시며 말씀하시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그이의 허물없는 말씨에 사의를 표하며 절상에 앉았다.

《체류기간 어디 불편한데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버지는 황황히 손사래를 치며 그렇지 않다는 뜻을 표시했다.

《참, 우리 나라에 와서도 아침운동을 계속 합니까?》

젊어서 관동군에 복무하던 시절부터 유도를 수련해오던 까닭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침운동을 하루도 번지지 않고 해오고있었다.

아버지는 주석님께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아시는지 놀랍다는듯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올리고있다가 《평양에 와서는…하지 않았습시다.》 라고 외마디 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하지 않습니까? 아침운동에 좋을것 같아 일부러 대동강유보도가까이에 있는 숙소를 마련해드렸는데…》

주석님께서서는 못내 섭섭하신듯 말끝을 흐리시었다.

《아침운동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은것입니다. 늙을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신체가 로화되지 않고 병에도 잘 견디어낼수 있습니다. 나는 선생이 젊은 시절부터 유도7단의 소문난 육체력을 소유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하…》

주석님의 그 웃음은 긴장해있던 우리 일행의 마음을 한결 풀어주었다.

이에 힘을 얻었는지 아버지는 주석님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정상화문제에 대한 주석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주석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신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버지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시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 일제는 반세기가까이나 우리 나라를 가로타고앉아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고통을 들씌웠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재부들을 약탈해갔는지,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아들딸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선생도 잘 아실겁니다. 김혁, 차광수… 권영벽, 마동희, 오중흡… 일제에게 과감히 저항해 나섰던 수많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일제의 손에 한줌의 흙으로 되었습니다.… 광복후에 조국에 돌아와 나는 무덤조차 바이 찾을 길이 없는 그들의 영령앞에 오래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습니다.》

주석님께서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시었다.

방안에는 숙연한 공기가 떠돌았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주석님의 자당께서 가장 가까운 일가친척들의 대부분이…저는 우리 일본정부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솔직히 사죄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껏 이 모든것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만…》

고개도 쳐들지 못한채 주석님께 말씀올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나와 우리 인민은 선생처럼 과거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조일 두 나라 인민들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뜻을 품고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시간에 언제든지 환영할것입니다. 조일 두나라는 더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주석님의그 말씀에 아버지는 무엇인가 결심을 내린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습니까? … 주석님, 사실 저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조심히 꺼내들었다. 모두들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아버지의 손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밤색겉가위에 보풀이 하얗게 인 조그마한 수첩이었다.

《주석님, 이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드신 주석님께서서는 수첩의 겉피들을 번져 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아, 이게 그때 선생이 우리한테 잡혀 왔을적에 압수당했던 그 수첩이 아닙니까?》

순간 아버지의 《조는 눈》 이 번쩍 떠졌다.

《아니, 그럼 주석님께서서는…》

주석님께서서는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시고 곁에 앉아있는 최룡선장령을 돌아보시었다.

《마에다선생, 이 사람이 낮이 익지 않습니까? 그때 그 련대장이 바로 이 최룡선동무입니다.》

이때 나와 아버지의 놀라움은 말할수 없이 컸다. 주석님께서 수첩을 기억하고계신다는 사실도 놀라왔지만 그때 그 련대장이라는 사람과 수십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또다시 마주앉게 되다니?!…

《그럼 그때 군용밥통에 밥을 가져다주었던… 어쩐지 비행장에서부터 낮이 익다했더니…》

최룡선장령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놀라움으로 아연해진 표정을 감추지 못해하며 최룡선장령의 손을 잡았다.

《주석님, 사실 제가 주석님을 만나뵈오려고 한것

은 지금껏 은인을 몰라보고 죄되는 것만 해온 제의 막중한 큰 죄를 빌고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관동군 병사였던... 저는 목숨이 아까워... 주석님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수그린채 말씀올렸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라면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선생이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알고있었던 말입니까?》

아버지는 놀란 눈을 들어 주석님을 바라보았다.

《알으십시오. 앉아서 얘기합니다. 참, 그 목재상이라고 하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습니까?》

주석님께서서는 웅색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일부터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예, 그 사람은 지금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성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지금에 와서나마 비로소 모든것을 깨닫게 된것은 바로 그 사람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속에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가가다계오, 아스카다 이찌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나라방문신청을 해온 미키 다케오 전수상의 부인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금전에 선생이 질문한 바이지만... 우리 조선과 일본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 우리 인민앞에 자기의 죄많은 과거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선린우호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조일관계를 정상화하는것도 조일 두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정치정세발전의 추이로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마에다선생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석님.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생을 참답고 보람있게 살고싶은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옛적 사람들은 60전에 일생을 돌이켜보곤 했다는데... 저는 70이 넘어서야 한생을 돌이켜보니... 참, 한도 많고... 이제는 저의 생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아픈 마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어조에는 자신의 여생에 대한 비감이 절제 어려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의있는 추억은 힘이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차게만 살수 있다면 선생의 여생도 그리 짧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량심과 정의를 잃지 않고 진보의 력사속에 발걸음을 맞추어 산다면 순간도 영원속에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마에다선생은 알아야 합니다.》

주석님께서서는 아버지에게 힘을 주시는듯 한손을 힘있게 내흔드시며 말씀하시었다....

담화는 벽시계의 바늘이 밤10시를 가리켜서야 아쉬운 마무리를 지을수 있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담화를 마치시며 아버지의 건강에 깊은 념려도 하여주시고 《도요마루》 호 선원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숙소로 돌아온 아버지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기분상태를 처음으로 목격하였다. 주석님을 만나뵈은 마음속 충격은 그토록 아버지를 흥분시켰던것이다.

얼마후에 우리가 든 숙소로 최룡선장령이 찾아왔다. 두손을 맞잡고 뜨거운 포옹을 하는 두사람의 상봉은 참으로 감격적이였다. 그날밤 아버지와 최룡선장령은 밤을 지새우면서 조선인녀자를 안해로 데리고 살았다는 가와시마에 대한 후일담 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아버지가 평양을 방문하기 얼마전에 만났었다는 가와시마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떻게 되여 70이 넘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평양을 방문할 결심을 하였는가 라는 최룡선장령의 물음에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자면 저 애의 혼사문제부터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것이였다.

《혼사문제라?! 거참 흥미있는데요.》

최룡선장령은 자못 흥미가 동한다는듯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나도 의아한 낮빛으로 무슨 말을 하려나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얘기의 서두로 아버지는 내가 후미에라는 처녀와 연애를 하던 이야기며 그 처녀의 할머니가 조선녀자라는 리유로 자기가 혼사를 반대한 사실 그리고 그 처녀 아니면 장가를 안갈 결심으로 아버지와 별거생활을 한것 등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나의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계속해나갔다.

...

얼마전 어느 일요일이였다.

휴식일을 리용하여 언제부터 버르어오던 정원 채마밭의 김을 매주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이른 아침 호미를 찾아들고 밭으로 나갔다.

오래간만에 번거롭던 정치잡사에서 벗어나 호미 밭을 일구며 한동안 김을 매어나가던 아버지는 피

춤에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엎어진김에 쉬어 간다고 발머리에 나앉아 담배를 피워물던 아버지는 등뒤에서 울리는 부름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저…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식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쭙는 말이였다.

《누군데!》

아버지는 엉거주춤 일어나 대문쪽으로 나갔다.

대문가에는 웬 낫모를 로인 한사람이 서있었다.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저… 시계오상의 아버지되는분을 만나려고…》

로인은 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얼굴을 돌렸다.

《제가 시계오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제가 후미에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로인의 눈길에 자기의 얼굴을 정확히 직시함을 느끼었다.

《후미에?!… 그 혼사일때문이라면 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는 시끄럽다는듯 얼굴을 찌프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예, 물론 손녀애의 혼사일때문에 온건 사실입니다만 저… 한가지 좀… 혹시 1930년대말에 관동군에 복무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인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관동군에 말이요?!… 예,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묻습니까?》

아버지는 낫모를 로인의 입에서 자기의 과거지사가 흘러나오자 놀랍다는듯 되물었다.

《그럼 옳구만 내 짐작이 옳았소. 아직도 날 모르겠소?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내가 바로 그때 상흥리목재소주인 가와시마란 말이요. 우리 둘이 유격대에 잡혀갔던 일이 생각 안나오? 하하…》

가와시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흔들며 흥분에 찬목소리로 말했다.

《…》

아버지는 가와시마에게 손을 내여말긴채 어리둥절하여 그냥 서있기만 하였다.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도 나를 못알아보겠던가고 하면서 다짜고짜 잡아끄는 가와시마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다.

8. 15를 얼마 앞두고 신병으로 고생하던 안해가 사망하자 목재업을 걸어치운 후 귀국하여 선친이 물려준 자그마한 포목점에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간다는 가와시마의 집은 도교교외의 한적한 곳에 자

리잡고있었다.

《내 당신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오?》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와시마는 극성을 피우며 꺾작 하나를 아버지앞에 내놓더니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소중히 건사했던듯 싶은 신문한장을 꺼내놓는것이였다.

《이걸 보오. 이 사진을 말ियो. …누군지 알겠소?》

《이 사진이야… 북조선의 김일성 주석님이 아니요?!》

아버지는 의아한 낫빛으로 가와시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신문에는 1953년 미제와의 3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열병광장의 높은 연단위에 서시여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크게 실려있었다.

《누가 그걸 모른다우? 차 이런, 잘 보라는데…》

가와시마는 데모테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실로 안타깝다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도 모르겠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때 유격대에 잡혀가서 만났던 그분이란 말이요.》

《뭐라구요?!》

《난 이 신문을 보고 첫눈에 알아보았는데… 그렇게도 모르다니… 이 신문을 본 다음부터 내 당신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오? …하하… 이렇게 만날줄이야… 정말 그 산속에서 살아돌아오던 때가 어제 일갈구만… 그때 당신은 그분의 모습을 그리려다가 끝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종내 화필을 쥐고 말았었지.》

(바로 이분이었던 말인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놀라움으로 고개치는 심정을 진정하지 못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분의 모습이 옳았다. 분명 그때 자기가 수첩에 초상소묘까지 하려고 했던 그분의 모습이였다.

《그때 당신이나 나는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오… 그분께서 천은을 베풀지 않았던들… 내 그때 한 말이 생각나오? 어릴때 후지산에 올라 본 태평양의 해돋이얘기를 말ियो…… 우린 지금껏 그분께 죄를 짓고 살아왔던 말ियो.》

그날 아버지는 인사가 늦었다면서 손녀를 독촉하는 가와시마의 손에 이끌려 시아버지에게 하는례의를 갖추어 나부시절을 하는 후미에를 바라보면서도 그가 차려준 소박한 주안상앞에 마주앉아 가와시마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도 혼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밤이 이슥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때 유격대에 잡혀가 압수당했던 그 속사수

침을 꺼내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귀가에는 일제와 미제 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꺼꾸르트리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로 만인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가와시마의 이야기가 태평양의 장쾌한 해돋이의 편상과 함께 메아리가 되어 울리었다.

(태평양의 해돋이라?!... 그분은 어떤분이실까? 한번 꼭 만나보았으면...)

그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시즈오카현으로 가 후지산을 탐승하였다. 장쾌한 태평양의 해돋이는 70객의 늙은이 마에다 산조의 마음속에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었다...

5

편지의 내용에 심취되어 시간가는줄 모르고있던 최룡선장령은 글줄이 보이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최룡선장령은 석양빛의 잔광으로 룬광들이 더욱 뚜렷해져 보이는 병원정원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을 더듬었다.

맨먼저 비행기에서 내린 70객의 늙은이 마에다의원은 눈감박탈새에 《사람장벽》에 에워쌓였다. 서로 맞부딪치며 돌아가는 사진기들, 촬영기들...

《평양방문소감이 어떻습니까?》

첫 질문의 충구를 연것은 NHK 텔레비존방송국 기자 스기무라 야스오였다. 마에다의원은 한번 치뜨기만 하면 《벼락》이 떨어진다는 그 유명짜한 《조는 눈》을 치켜뜨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기자들을 천천히 일별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벼락의 발언》을 기다렸다.

《정말... 훌륭한 방문이였소. ...나는 평양에서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받아안았소. 다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무도 늦게 평양방문용단을 내렸다는 그것뿐이요.》

마에다의원은 진정으로 아쉬운듯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저... **김일성** 주석님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눈물을 흘렸소. **김일성** 주석각하를 만나뵙고 그분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것을 나는 숨기지 않소. 왜냐면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인앞에서 매혹의 눈물을 흘린것을 나는 궁지롭게 생각하기때문이요. ...나는 비록 인생의 말년을 살고있는 정치가이지만 **김일성** 주석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요. 이것은 정치가로서 나의 마지막사명이라고 생각하오.》

마에다의원은 조금도 서슴어 하는 기색이 없이

마치도 머리속에 미리 외워 두기라도 했던것처럼 《마이니찌신봉》의 녀류기자 이시하라 준코의 두번째 질문에 대답했다.

이 발언은 우리 기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본국민 전체에게 한 마에다의원의 《벼락의 확인》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단 며칠동안에 정적들로부터 《친조파》, 《김마에다》라고 불리우게 된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경이가 아닐수 없다.

마에다의원의 이번 《벼락의 발언》은 일조일석에 원쑤를 벗으로 만드는 천명의 《인간감화비법》을 터득하고 계시는 **김일성** 주석의 인간상을 다시한번 만인에게 확인시킨 훌륭한 기회로 되었다...

이것은 마에다일행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 일본의 어느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 한 토막이었다. 생각에서 깨어난 최룡선장령은 벽쪽으로 다가가 전등불을 켰다. 다시금 원탁앞에 마주앉은 최룡선장령은 편지의 마지막구절들을 읽어나갔다.

...

우리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우익반동들을 비롯한 아버지의 정적들은 갖은 모략과 책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우익계 신문, 잡지들에 아버지를 비난하고 헐뜯는 기사들과 만화들을 싣는가 하면 방송차를 동원하여 부친의 사무소와 집주변을 돌아치면서 정치적인기를 떨구기 위해 온갖 비방중상을 다하였습니다. 지어 폭력배들까지 동원하여 아버지에게 협박편지나 위협전화까지 하여 《평양을 찬미하는 일체 활동을 중지》할것을 강압해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종당에는 비렬하게도 《탈세법위반》이라는 당치 않은 감투를 씌워 아버지를 정계에서 추방시키기까지 하였던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그 모든 책동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전국각지를 순방하면서 **김일성** 주석님의 위대성에 대한 순회강연도 벌렸으며 진보적인 언론매체들에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로록 바쁘게 황혼기의 여생을 보내면서도 아버지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태평양의 해돋이》라는 그림을 일생의 력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끝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앓던 운명의 그 시각 아버지는 관동군시절의 그 속사수침을 나에게 안겨주면서 《한스럽구나. 꼭 내 손으로 완성하려고 했었는데... 내대신 이 그림을 꼭 완성하여 **김일성** 주석님의 령전에 드려주렴, 부탁이다.》라고 마지막유언을 남겼던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들으면서 나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고향, 고강 등 인상파화가들의 미술전을 관람했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혹시 나에게도 진정한 태양의 광휘로움을 화폭우에 재현시키려다가 실패한 그들의 운명이...)하고 까닭모를 불안감을 느끼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겨 보면서 나는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결코 실패해서도 안되며 또 실패할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현세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님이 나의 가슴속에 빛나고있음을 생의 확증으로 절감하고있었던것입니다.

선생님, 《꽃을 피우려면 고목에도 햇빛은 있어야 하고 때늦게 길을 떠난 늙은 말에게도 리정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부터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째서 그 말을 자주 하였는지는 지금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군 합니다.

평양을 방문하여 주석님을 만나뵙고 인생의 새로운 리정표를 받아안았다고 그토록 기뻐하며 분투하시던 저의 아버지는 끝내 자기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위인의 덕망과 위업은 생전보다 생후에 더욱 빛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주석님의 서거이후에 저는 그분의 위대성을 시시각각으로 더욱 절감하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림의 완성에 나의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습니다...

최룡선장령은 편지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가로 다가간 최룡선장령은 창문을

활짝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달아오른 최룡선장령의 기분을 청신하게 해주었다. 정원에서는 외등들이 아늑한 빛을 부리며 방긋이 웃고있었다. 이윽도록 창밖을 내다보던 최룡선장령은 벽에 기대여 놓은 그림쪽으로 다가갔다. 유포로 정성스레 감싼 그림의 포장을 풀어헤치는 최룡선장령의 손이 가늘게 떨리었다.

러명속에 바야흐로 일렁이기 시작하는 태평양, 그것을 배경으로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태양이 찬연한 자태를 드러내는 장쾌한 해돋이...

한동안 황홀한 눈길로 그림을 들여다보던 최룡선장령은 불현듯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쾌쳐오름을 느끼며 벽에 모셔진 그이의 초상화를 우러러보았다.

(아, 수령님!...)

×

그로부터 얼마후 마에다 시게오는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최룡선장령과 함께 태양절을 기념하여 열린 국가미술전람회장에서 유화 《태평양의 해돋이》를 보는 시게오의 감격은 류달리 컸다.

(아, **김일성** 주석님. 아버지가 받아안았던 그 인생의 리정표는 저의 가슴에서도 빛나고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는 시게오의 두손은 심장가까이를 더듬고있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속사수첩이 간직되어있었다.

혁명일화

단번에 알아맞히신 수수께끼

어느해 이전 미국무장관이었던 알브라이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후 사람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화들이 전설로 전해지고있다.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어느 연회에서 알브라이트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냈다고 한다.

열손가락을 가지고 수자 16이 나오게 해보라고...

연회장엔 잠시 평평한 공기가 흘렀다.

열손가락으로 어떻게 수자 16이 나오게 할것인가? 쉬운것 같으면서도 명석한 분석, 비범한 예지가 없여가지고서는 짧은 시간에 알아맞히기가 간단치 않

았다.

바로 이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거야 뭐 힘들게 생각할것이 있는가고 하시며 두손을 모으시더니 엄지손가락 둘로는 《X》 표식을 하시고 나머지 량쪽 네손가락을 쭉 펴보이시였다.

그러니 4×4=16이 되였다.

순간, 이것을 본 알브라이트의 두눈가에 경탄의 빛이 어리더니 이어 박수를 치며 매혹된 눈길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보는것이였다.

높아가는 박수소리와 더불어 알브라이트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이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위인칭송무지경

《위인칭송무지경》이라는 말은 위인을 칭송하는 마음에는 국경이나 민족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인결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명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법이며 또 그만큼 넓은 범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기 마련이다.

이런 리치로 볼 때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영웅중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명성과 영향력은 한 나라, 한 대륙의 범위를 벗어나 온 세상, 전 인류적인 것이었으니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고 존경하며 높이 칭송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지경을 그을수 없다.

하여 《위인칭송무지경》전설도 태어나서 력사와 함께 전해지며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

1940년대를 가까이 하고있는 때였다고 한다.

황해북도의 평산땅 어느 소학교에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학부형들까지도 경악실색케하는 뜻밖의 사건이 생겼다. 수업이 한창 진행될 때 경찰들이 교실에 뛰어들어 일본인 력사교원 구미무라 히데오를 체포해갔던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별동지를 쫓서 놓은듯이 술렁대던 학교와 마을이 채 조용해지기도 전에 학교운동장에서는 바로 이 학교에서 체포해간 구미무라 히데오선생에 대한 공개재판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자기들을 가르치던 선생을 재판한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이 때를 지어 모여왔고 학부형들도 구름처럼 모여왔으며 린근의 여러 학교들에서 교원들이 밀려왔다.

운동장이 넘쳐나게 모여와서 진정을 못하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눈치는 한결같이 도대체 일본사람인 력사선생이 무엇때문에 일제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무슨 죄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기색이었다.

교사의 현관을 등지고 림시로 꾸린 재판석에 법관들이 나앉고 손목에 수갑을 채운 교원이 경찰들한테 끌려나왔다.

사람들의 눈길은 일시에 교원에게로 쏠렸다.

재판정에 끌려나온 자기 선생의 모습을 보는 학생들의 가슴은 무엇이라 이름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구미무라 히데오선생은 비록 일본사람이기는 하지만 마음씨 곱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성실한 교육자였다.

그는 일본 혼슈지방의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남들처럼 마음껏 배울수가 없었다. 끝없는 항학열에 불타던 히데오의 녀속에는 어느덧 배울래야 배울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자라났으며 기어이 교원이 되어 자기처럼 마음껏 배울수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리라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리하여 입술을 깨물면서 고학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했으나 일본땅에서는 그에게 소학교 교원자리 하나 차례지지 않았다.

히데오는 제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가졌어도 실현될수 없는 세상을 저주하면서 군대에 입대하여 만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친구인 호리모도가 이끄는 《토벌대》에서 복무하였다.

쓰디쓴 참패의 수치만을 맛보면서 몇해동안 군대에 복무한 히데오는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을 실생활을 통해 깊이 알게 되었다.

일본 《황군》은 허장성세하면서 승산없는 싸움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은 히데오는 어깨에 부상을 당한것을 구실로 제대되었다.

군복을 벗고보니 또다시 교원이 되고싶은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조선으로 나와 평산땅에서 교편을 잡았던것이다.

그는 선생은 아이들에게 진리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있었다.

때문에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일본교과서를 제쳐놓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는것으로 시간을 채울 때가 드문하였다.

방학때면 학생들을 데리고 태백산성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멸악산에 올라 산천경개를 구경시키기도 하고 글짓기를 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산정에 올라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사람인만큼 조선을 사랑해야 한다. 나도 내 나라인 일본을 몹시 사랑한다. 제 나라, 제고향을 사랑하는것은 어느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나 응당한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때 일제는 1930년대말부터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창씨개명도 법령으로 내려먹여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고있던판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선말을 해도 벌을 세우고 장마당에 흰옷을 입고 나가면 먹물총을 쏘아 까맣게 만들면서 조선사람의 넋을 깡그리 빼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이런 때에, 그것도 일본사람인 그가 조선학생들에게 제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처음 학생들은 의혹에 찬 눈길로 선생을 바라보며 속을 주지 않고 그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학생들은 히데오선생을 리해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자 히데오선생은 그들에게 더 자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교장을 비롯한 악질적인 교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이따금씩 교실문밖 복도에 학생 하나를 내보내어 망을 보게 하고는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어느날이었다. 히데오선생은 교실에 들어서더니 교과서도 펼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였다.

《누구 하나 밖에 나가 망을 좀 보거라.》

이것은 곧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신호였다. 복도에 나가 망을 보게 된 아이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을수 없는것으로 하여 죽기보다도 싫었지만 순변을 정해 놓았기때문에 별수없이 나가야 했다.

히데오선생은 학생들을 찬찬히 둘러보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생들! 나는 일본사람이지만 일본군대가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를 이길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장군님은 축지법도 쓰시고 변신술, 둔갑술, 승천입지... 별별 술법에 능하시고 천문지리에도 환하시어 천리밖에 앉아서도 일본군대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하신다.

장군님의 뜻은 하늘에 닿았고 장군님의 인품은 천하를 안을만 하시고 장군님의 지략은 비범무쌍하여 이 세상에 따를자가 없다. 바다와 같은 도량과 하늘과 같은 덕망, 산악과도 같은 담력과 예지를 한몸에 지니시고 광복위업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며 만백성을 한몸에 안아 보살펴주시니 온 세상이 장군님을 우러러 칭송하고있고 하늘처럼 떠

받들고있다.

이런 위인을 모시고있는 유격대는 필승불패이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내 친구가 <토벌> 대장으로 있는 일본군대에 복무하면서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을 이야기하겠다.》

히데오선생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어느날 호리모도는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젊고 혈기왕성하고 야심만만했던 호리모도는 《혁혁한 군공》을 꿈꾸면서 곧 부대를 출동시켰다. 히데오도 함께 출전하였다.

《여보게, 선비! 자네는 이번 출전에서 싸울 생각은 말구 전투상황이나 잘 알아 두었다가 신문기사나 써주게나.》

호리모도는 흰소리까지 쳤다.

히데오는 그 덕에 호리모도곁에서 따라다니며 《전투상황》을 자초지종 자세히 볼수가 있었다.

호리모도는 한번 적을 발견하면 진드기처럼 떨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추적하는 전술이라 하여 《다니전술》(진드기전술)이라고 하는것을 제일 좋은 전법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거리추격전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다니야 유격대를 따라잡을수 없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유격대의 긴 행렬은 마치도 놀리기라도 하는듯이 늘 그만 한 거리에서 굽이쳐가고있었다. 이쪽에서 행군속도를 높이면 그쪽에서도 행군속도를 높이고 이쪽에서 행군속도를 늦추면 유격대쪽에서도 쉬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하면 그쪽에서도 출발하였다.

약이 머리끝까지 오른 호리모도는 미칠 지경이 되어 《토벌사령부》에 연락을 띄웠다. 다른 부대를 동원해서 유격대의 앞을 막아달라는것이였다.

얼마 안있어 《토벌대》의 다른 한 부대가 유격대의 앞을 막았다. 그랬더니 이번엔 유격대의 대렬이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고말았다. 눈이 휘둥그래서 살펴보니 어느새 자기네의 뒤쪽반대방향에서 대렬이 흘러가고있었다.

호리모도는 다른 《토벌대》를 동원하여 유격대를 포위하자고 《사령부》에 또 제기를 하였다.

《토벌사령부》에서는 또 그의 제기를 들어주었다. 동서남북에서 《토벌대》들이 유격대를 포위하고 한치한치 조여들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땀뿜며 폭탄을 떨어주고 기관총을 쏘아댔다.

《이번에야 갈데 없지.》

호리모도는 산마루에서 망원경으로 포위환속에서 유격대의 행렬을 살피며 호언장담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포위환은 점점 좁아졌다. 유격대의 대렬은 동그라미가운데에 놓여있는 점처럼 그 자리에 까딱않고있었다.

당황하는 기색도, 급해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의기양양해진 호리모도는 산우에서 망원경으로 계속 감시를 하면서 포위환을 더욱 바싹 조이라고 지시를 했다. 점점 포위환이 좁혀졌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었다.

《아마 모든 가능성을 잃자 결사전을 각오했거나 아주 락망해버린 모양이군.》

호리모도가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 뜻밖에도 유격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너무도 놀랍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어서 호리모도는 어리둥절해졌다.

(유격대도 인간일진대 어찌 저럴수가 있는가?)

절망에 빠졌다면 비판의 빛이라도 보일게고 결사전을 각오했다면 비장한 기색이라도 있을것이고 모든것을 운명에 맡기고 생의 마지막순간을 기다린다면 통탄의 한숨이라고 쉬련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정말 모를 일이 었다.

아무리 정황이 위급해도 그저 배포유하고 자신만만하고 태연할뿐이다.

어디에서 저런 배짱이 생겼을가?

《투항하라!》, 《투항하라!》

사방에서 소리치고 하늘의 비행기에서도 소리칠 때였다.

일진광풍이 휘익 불어치며 눈가루가 날리더니 유격대원들은 시야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호리모도는 물론이고 포위망을 좁히던 모든 병사들이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아! <승천입지> 를 한다더니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잤는가?》

탄식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푸른 하늘 구름사이로 유격대행렬이 굽이쳐가고 있었다.

《아, 유격대가 승천을 했구나!》

호리모도가 소리치자 줄병놈들도 고개를 젓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까마귀 뿔듯 하였다.

《유격대가 하늘에 올랐구나!》

《항공대를 불러대라!》

《그런 수작말아라. 저기서 내려쪼면 우린 멸살한다.》

줄병놈들은 쥐구멍을 찾았다.

호리모도는 더는 어찌지 못하고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때에 사방에서 총탄이 몰방으로 터졌

다. 호리모도를 따라다니던 히데오는 어깨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니 병사들은 거의 전멸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호리모도가 곁에 앉아있었다. 두사람은 너무도 지쳐서 네발걸음을 하다싶이 하여 병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군법회의가 호리모도를 기다리고있었다. 《토벌사령관》은 노발대발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목을 치려 하였다. 이때 어데선가 편지 한장이 날아와서 《토벌사령관》앞에 떨어졌다.

놀라서 읽어보니 편지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토벌> 대장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들이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 너무도 고생하며 헤매기에 실컷 보라고 군사들의 눈과 망원경에 약간의 조화를 부렸을뿐이다. 백두산대장수.》

《토벌사령관》은 놀라서 호리모도와 다른 《토벌》대장들의 망원경을 가져다 눈에 대고 내다보았다. 렌즈안에 점선같은 《유격대행렬》이 들어있어서 눈에 대기만 하면 곧 유격대행렬이 보이군 하였다.

《토벌》에 동원되었다가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들이 눈만 뜨면 유격대가 보인다고 아우성을 친다기에 그들의 눈을 검진해보니 꼭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참으로 **김일성**장군의 술법은 신묘하기 그지없구나!》

《토벌사령관》은 그만 털썩 주저 앉고말았다.

히데오선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단 말인가? 밖에 나가 땅을 보던 아이까지 살그머니 교실에 들어와서 이야기에 취해있는 사이에 악질적인 훈육주의놈이 도적교양이처럼 다가와서 모든것을 엿들었던것이다.

그리하여 히데오선생은 체포되었고 아이들에게 《불온사상》을 선전했다는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것이다.

《당신은 대일본제국의 국민이며 교육자로서 어찌하여 반도학생들에게 **김일성**장군을 격찬하는 선동을 하였는가?》

재판관이 히데오에게 엄하게 따졌다.

《선동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뿐이요. 교원은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의무가 있소.》

히데오는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닥쳐! 대일본제국의 야마도민족이라면 웅당 천황폐하와 제국에 충실해야 옳지 제국이 가장 위협시하는 **김일성**장군을 숭상, 선전하는가?》

재판관은 책상을 탕 치며 불맞은 승냥이처럼 날

뛰었다.

히데오선생은 그러거나 말거나 목을 외로 돌리고 북쪽 어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재판관은 히데오선생의 그 태도에 약이 올라서 더욱 미친듯이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네놈은 야마도민족이 맞기는 맞느냐? 당장 네놈의 목을 쳐서 네 몸뚱이에도 야마도민족의 피가 흐르고있는지 내 눈으로 볼테다.》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분명 일본사람이요. 우리 선조들은 혼슈지방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친척들이 살고있소.》

《그렇다면 무슨 도깨비가 들려서 그따위 선전인가?》

재판관은 잡아먹기라도 할듯이 으르렁거리며 펄펄 뛰었다. 그래도 히데오는 태연하였다. 그저 법관들의 꼴이 가소로운듯 고개를 외로 돌리고 웃을뿐이었다. 그러다가 재판관이 제풀에 맥이 빠져서 잠시 입을 다물자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법관나리. 당신은 나더러 일본인으로서는 어찌 조선의 **김일성** 장군을 칭송하고 선전하였느냐고 따지고들면서 범죄시하는데 그것은 천부당만 부당한 처사요. 어째서 당신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천황>을 받들라고 강요하면서도 일본사람들이 조선의 **김일성** 장군을 존경함모하는것은 엄중시하며 한사코 막으려 하는거요? 위인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강권으로 내려먹이거나 법으로 다스려서 되는게 아니요. 결출한 인물의 위인상에 매혹되어 스스로 존경하고 스스로 따르며 스스로 충정을 바치는것이요.》

《닥쳐랏, 네놈은 변절자다. 매혹이 아니라 미쳐버렸다.》

재판관은 마치도 전간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허리를 꺾었다. 너무도 흥분한탓에 심장경련을 일으킨 모양이다. 갑자기 재판정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법관들이 모두 환자를 이끌고나가자 히데오는 군중을 향해 연설하듯 웅얼었다.

《여러분! 학생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되는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종은 크면 클수록 그 소리도 크고 멀리 가는 법이며 등불은 크면 클수록 그 밝음도 크고 멀리 비치기 마련입니다.

자기 마을의 지경을 넘어 누리에 울려퍼지는 그

종소리를 들었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한집안의 트락을 벗어나 누리에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겠습니까?

김일성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십니다. 장군님의 명성은 온 세상을 들었다놓고있습니다. 천출위인을 우러르는 마음에야 어찌 국경이 있을수 있으며 민족이 따로 있을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을 우러러 칭송하는데도 나라가 따로 있고 민족이 따로 있습니까? 태양과도 같은 전 인류적인 위인, 전 세계적인 위인은 전세계적인 존경과 함모, 전 인류적인 함모를 받기마련입니다.

김일성 장군님은 태양이십니다. 온 누리를 밝히는 영원한 광명이며 세상만물에 생명을 주고 뜨거운 열을 주는 태양을 온 우주가 우러르고 따르며 받드는것은 천만번 지당하고 자연스러운것입니다.》

히데오선생은 어느새 격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언제 준비해 두었었는지 품속에서 빼라한뭉치를 꺼내서 사람들의 머리위에 내던졌다.

빼라는 사람들의 머리위에 함박눈처럼 날아내렸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위인칭송무지경! 천출위인 **김일성** 장군!》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이 빼라를 쥐고 설레이는 사이에 경관들이 뛰어나왔다. 그러나 히데오선생은 간곳이 없고 재판석의 책상우에는 큼직한 종이에 쓴 글발이 놓여있을뿐이었다.

《위인칭송무지경》

큼직큼직하게 붓으로 쓴 글발은 책상에서 뿔뿔이 떨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붕우에 날아내린 빼라들과 담벽에 붙은 빼라도 뿔뿔이 떨수가 없었고 지울수도 없었다고 한다.

바람에 날려간 빼라가 멸악산의 어느 바위벼랑에 날아내렸는데 거기에도 《위인칭송무지경 천출위인 **김일성**》 이라고 새겨졌고 울울창창한 밀림에도 빼라들이 날아가 떨어졌는데 아름답리나무들에도 그런 글발이 새겨졌다고 한다.

일본사람들까지 **김일성** 장군님을 이렇듯 칭송하고 존경하여마지 않았다는 이런 전설이 널리 퍼진것은 바로 우리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으리만큼 출중하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지홍길

송암동굴앞에서

박창민

온 세상에 자랑 떨치는 선군8경은 우리 조국의 자랑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우리 나라에는 선군혁명시대에 땅우에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희한한 절경경계가 펼쳐져 사람들을 놀래운다. 얼마전 송암동굴을 찾았던 나는 아직도 그 희한한 지하경계앞에 서있는 심정이다.

꽃문동, 기암동, 폭포동, 백화동, 보물동... 동굴 그 어디에나 우아하고 황홀한 돌순들과 돌꽃들이 서리꽃처럼 하얗게 피여있어 꿈나라에 온것만 같다. 수십여개소를 헤아리는 명소마다 그 경계 너무도 황홀하고 기묘하여 신비의 세계에로 끌려 넣을 잃을것만 같다.

아무리 자연이 신비하기로서니 지하에 이렇게도 황홀한 세계를 펼쳐놓을수 있는가.

웅장함과 화려함,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기기절묘한 천만가지 절경을 이루어 이내 발걸음 멈추게 하는 송암동굴.

광란하는 대자연의 용해, 융석작용으로 석회암의 석수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루어 신기하기 그지없는 송암동굴은 위대한 령장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세상에 제모습을 드러낸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재부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에 심취하여 《야!》, 《야!》 하며 줄곧 탄성을 올리던 참관자들은 보물동에 이르러 그 모양들이 너무도 신통하여 한껏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어인 일인가. 나는 그들처럼 웃고 떠들수 없었으니.

그렇게도 와보고싶던 송암동굴인데, 사람들 웃으며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 절로 숙연해지며 깊은 감회에 잠기게 하였다.

이 동굴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잘 알고있고 어려운 동굴공사때 병사들의 투쟁모습을 취재하였던 나는 해설강사가 되어 가슴속에 넘쳐나는 걱정을 터뜨리고싶었다.

(유구한 세월 땅속에 묻혀있던 이 지하동굴이 어떻게 오늘처럼 내 조국의 만년재보로 그네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인민의 문화적재부로 이 세상에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아시는가?)

내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참관자들에게 그렇게도 친절하고 다정하여 깊은 인상을 안겨주던 다정한 처녀해설강사의 정색한 목소리가 동굴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은 송암동굴이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는지, 한번 와보면 10년은 젊어진다고 하는 이 동굴

의 명소 하나에도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지 다는 모를것입니다...》

상냥한 그의 목소리가 점점 격조를 돋구며 저력있게 울려왔다.

좋은 조건에서 평온한 나날에 건설한것이라면 우리의 눈시를 이렇듯 뜨거움에 젖어들지 않으리.

송암동굴공사는 이처럼 시련많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진행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키고 자주적인 삶을 누리느냐 하는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목청을 돋구어 사회주의의 《종말》을 부르짖으며 악착스럽게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던 그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병사들에게 송암동굴공사를 맡겨주실줄이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바라보시며 평양시복구건설의 전망을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령장의 슬기와 기성, 담력과 배짱 그 대로이시였다.

필승의 신념이 병사들의 가슴속에 거목처럼 억세게 뿌리내렸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병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가슴적이며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나갔다.

한사람이나 겨우 빠져나갈수 있는 비좁은 통로를 열어나가는 힘겨운 전투속에서도 발파를 하면 공사하기가 쉽지만 손가락만 한 돌순 하나라도 상할까 봐 함마와 정대로 바위를 가내며 명소들을 찾아낸 군인건설자들, 연기가 지하절경에 손상을 줄세라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켜놓고 일체 물등을 등짐으로 지여날랐다는 그들.

그러나 누구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길이 부강조국의 래일과 잇닿아있음을 잘 알기에 병사들은 고난을 헤쳐나갔다.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송암동굴공사정형을 보고받으시며 병사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열정의 샘이 되고 기적을 남게 한 열렬한 조국애의 억센 뿌리가 되어 가슴가득 채워주었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며 위인의 손길은 이름없던 산도 명산으로 빛내주신다. 선군 령장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병사들의 불타는 충성심의 정화인 송암동굴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그 나날에 군인건설자들은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고 창조할 권리만을 아는것이 병사의 행복이며 기쁨이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겨놓았다.

그러기에 병사들은 송암동굴공사를 끝내고 소리 없이 떠나갔다.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고 가꾸기 위한 새로운 전투장으로 발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들의 위훈을 빛내주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송암동굴을 돌아보시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동굴공사를 한 병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병사들은 애국심이 높기때문에 질통을 지고 오르내리며 공사를 보장하였다고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동굴입구에 병사들의 위훈을 잊지 않도록 천연화강석에 불멸의 글발을 새겨놓게 하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었다.

감사의 해설이 끝났다.

위대한 인덕정치를 펼쳐가시는 회세의 위인에 대

한 감사의 정과 자기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창조해주는 병사들을 생각하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령장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필승의 신념과 래일에 대한 혁명적락관으로 나의 가슴은 마냥 설레었다.

승리만을 펼쳐가는 선군시대 병사들이 진격의 길을 열어 가기에 우리는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리라.

송암동굴에 펼쳐진 절경들을 하나하나 눈앞에 떠올리느라니 거기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 창조자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에 가슴 뜨거워만 진다.

그 사랑, 그 믿음을 무슨 말로 다 적을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 표현할수 있으랴.

나는 자꾸만 샘솟아오르는 뜨거운 걱정애 가슴 후덥히며 글줄을 이어가고 또 이어진다.

내 운명의 영원한 불빛

박천걸

태어나 처음

내 맑은 눈동자에 비쳐든 그 빛

우리 당 기발이 나뒀던

당중앙창가의 그 불빛은

세월을 넘어 오늘도

내 인생의 앞길을 비쳐주고있어라

저 하늘의 해빛처럼 별빛처럼

언제나 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떠날줄 모르던 정깊은 어머니모습으로

매미잡이에 정신팔린 철부지소년을 따듯이 안아

노래소리 랑랑한 희망의 넓은 길로

내 한생을 이끌어준 그 불빛

그 불빛따라 걸어온 내 인생의 자욱마다

마음속 자그마한 그늘

잠 못들며 모태기던 마지막시름마저

다 가셔주었더라

세월이 갈수록 그 고마움에 눈물 적시고

철이 들수록 그 귀중함을 사무치게 안아보는

내 운명의 등대같은 그 불빛이여

정녕 그 빛을 떠나

오늘의 나의 삶을 생각할수 없고

래일의 가슴벅찬 미래를 간직할수 없어라

오늘도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며

멀고 험한 최전선의 산발들을 누벼가는

야전차의 사연많은 불빛으로 흐르고있나니

그 어느 고요한 창가에서 빛난다면

이렇듯 뜨거움에 목메일수 있으랴

이 땅에 드리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며

압살의 서리찬 얼음을 다 녹이며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으로 헤쳐가시는

민족수호의 그 길에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빛발치는 불빛이여

눈비오는 날에도 흐려진적 없었노라

광풍이 몰아쳐도 꺼진적 없었노라

시련의 날에도 변함없이

아침이면 나의 출근길을 따스히 비쳐준 그 해살

저녁이면 책상위에 펼쳐진

내 아들의 숙제장도 살피준 정다운 그 눈빛

정녕 그 불빛이 지켜주는 이 하늘아래

민족의 존엄을 마음껏 떨치는

우리의 자주적인 삶이 있고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그 불빛이 펼쳐준 사회주의선경과

선군의 드넓은 대지엔

인민의 기쁨과 웃음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거니

아 이 땅의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열화같은 그 심장의 빛발이여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우는

우리 운명의 그 불빛은

천만년 미래에도 잇닿아있어라

내 고향의 한드레벌

한원희

(1)

멀리 저 멀리
해빛에 덩굴며 뛰노는 물결을 안고
가없는 별가운데로 흐르는 송우천 넘어
눈뿌리 아득히
일렁이는 이삭을 넘어
너의 서쪽기슭 덕흥파원 끝까지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한드레벌

어제날 볼품없고 이름없던 곳
여기에 태를 묻고 자란 이 몸
어디 가나 아름다운 고장이 부럽더니
꿈만 같구나
온 나라에 이름난 명승지
선군8경으로 솟아오른 네 모습
너의 절승경계에
너의 천지개벽에

예로부터 금수강산 내 나라의 자랑인
관동8경 관서8경을 돌아보며
그 황홀경에 취하고
그 절승경에 넋을 잃었다지만

허나 한드레벌아, 내 고향아
가도가도 끝없는 지평선
너의 아름다움은
뜨거운 눈물을 자아내는 아름다움

무엇이더나
그 무엇이 네 모습에 어려
너의 절승경에 눈물을 떨구게 하느냐
어이하여 온 나라가 다 찾아와
감격에 목메여 바라보고 또 바라보느냐

너 파도치는 이삭을 안고
천이랑 만이랑 설레며 노래하누나
우리 장군님 여기에 오셨었다고
대소한의 추위를 잊으신듯
흰눈덮인 둔덕우에
토지정리전망도앞에서
오래오래 서계셨다고

노래하라, 너 한드레벌아
토지정리로 끝간데없이 펼쳐진

드넓은 포전을 바라보시던
우리 장군님
아주 회한하다고
사회주의국토답다고
기쁨을 금치못해하시던 그 모습

내 오늘도 가까이 뵈옵는것만 같아라
지난날 지주들이 토지문서를 가지고 와
제 땅을 찾아보자고 해도
찾을수 없게 되었다고
그리고 호탕히 웃으시던 장군님

보아라, 너의 가을풍치 더더욱 돋구며
쭈쭈둑 뿔뿔 날아드는 학두루미
저들이야 어이 다 알가
이 땅을 위해 기울이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을

험한 령을 넘어 전선길을 이으시며
토지정리현장도 지도해주시고
논두렁 감탕길을 이으시며
최전연의 부대도 찾으시는 그이
전선길 포전길을 늘 함께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거룩한 그 자욱자욱을 더듬으니
내 가슴에 뜨거이 타올라라
한무지의 작은 모닥불
장군님께 피워드리려던 모닥불

찬눈 찬바람속에 얼어든 몸이라도 녹이시라고
나무가지들을 모아왔건만
돌격대원들은 모닥불없이 일하는데
우리만이 불앞에 나앉겠느냐고
그이 끝내 사양하신 모닥불

이 어인 일인가
그날에 피워드리지 못한 모닥불이
왜 이리도 우리 가슴에 살아
이날 이때껏 꺼질줄 모르는가

새벽부터 한낮이 지나도록
끼니조차 번지신 장군님
한드레벌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또다시 전선길 떠나가실 때

내 가슴에 더더욱 뜨겁던 모닥불

오늘만은 군부대시찰을 미루시고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여쭙어올렸건만
부디 떠나시며 남기신
그 말씀 마디마디
불는 불에 불는 불을 더해주시지 않았거나
우리 가슴에 타는 그 모닥불

불, 불, 그 불은
우리 장군님 주신 불
그 불은 얼어든 대지를 녹이고
봄을 불러 씨앗을 움틔우고
가을을 안아왔나니

한줌한줌 너의 흙이 국토이고
한줌한줌 너의 흙이 내 나라임을
길이길이 이 벌에 새겨주신 그 자욱자욱
내 눈물겹게 소중히 안아보며 쓸어보며
나는 걷는다

여기 이 논머리가 아니었던가
나는 애국이란 말을 좋아한다고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동무들처럼 실천투쟁으로 해야 한다고
토지정리돌격대원들을 치하하신 곳

여기가 아니었던가 우리 장군님
토지정리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
또 한차례의 토지혁명이라고
위대한 토지정리대강을 펼쳐주신 곳
땅이 생겨 농토가 생겨 처음 보는
성스런 애국가령을 온 나라가 받아안은 곳

한드레벌아
너는 마치 애국가령을 펼쳐놓은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책페이지와 같구나
선군령도의 위대한 진리를 아로새긴
그이의 글발과도 같이 안겨오누나

아,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이 땅, 이 벌, 이 조선
우리 장군님처럼 사랑하는
절세의 애국자 세상에 또 있으랴

그 애국의 천만 아름다움이 어리고
선군애국의 위대함이 비끼여
너는 절경중의 절경으로 솟아났구나!
보고 또 보아도
뜨거움을 자아내는 천하명승
선군시대 선군8경의 하나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원한 자랑으로 태어났구나!

(2)

멀리 저 멀리
시원히 곧추 뻗어간 포전길너머
태천읍이 바라보이는 한끝까지
눈뿌리 아득히
하늘땅이 맞붙은 그 한끝까지
못잇을 추억을 불러내는
내 고향 한드레벌

한줄기 가을바람에도
끝없이 설레이는 네 모습
온벌이 떨쳐나 달려가는것만 같아라
총알처럼 하나같이 영광은 이삭을 이고

너 어디로 가느냐
너 가는 곳 어디냐
너의 설레임속에서 나는 듣는다
무적의 총대바람소리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온 나라의 토지정리를 선포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음성

어디냐
우리 장군님의 병사들이 달려와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던 곳
어디냐
《군민일치사상 만세!》
그 글발 그 구호가 사람들의 피를 끓인 곳

군인정신이 들가득 기발처럼 나래치고
총대정신이 불도젤어로 이어져
역척같이 밀고나갔더라
형클어진 그물코처럼 눈뿌리 아파오던
땀기논들, 쪼각논들, 다락논들을

가슴 후련히 덮어버렸더라
숙명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과 고역을 칭칭 동여매놓고
긴긴 세월 놓아주지 않던 그 논두렁들
력사의 낡은 유물들을

백년을 천년을 우불구불 이리저리 흘러서
해마다 수재를 몰아오던 송우천
원한의 그 굽이굽이를 곧게 펴던 그날
등굽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삶은 고구마팡주리 안고 나와
병사들앞에 놓아주며 말했었지

우리 장군님의 덕분에
땅이 주름살을 펴서 젊어지고

송우천이 허리를 펴서 청춘이 되었으니
우리 령감로친의 허리도 절로 펴지고
100살을 넘어 살게 젊어진다고

기쁨의 눈물을 그득히 담고서
병사들을 붙들고 탄복하였었지
천지개벽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 천지개벽이 아닌가고
우리 군대가 아니라면
살아생전 이런 경사 어이 봤을라고

아, 한드레벌의 천년 굳잠을 깨우며
천지개벽전의 진두에 나아간 우리 군대
얼음물속에 뛰어드는 병사들을 뒤따라
우리들도 뛰어들어 흠을 파올렀다
병사들과 함께 쌍목고로 내달리며
씩씩한 군가에 발을 맞춰 나아갔다

눈물없이 추억할수 없구나
밤이면 밤대로 굶이치던 해불의 바다
그속에 나도 한점의 불꽃
흠마대를 지고 달리며
그 밤에 나는 들었노라

-여, 1중대장
동무네 중대는 왜 또 나왔소?
-쉬- 누가 듣겠소
태천돌격대가 말은 구간을 돕자는거요
이밤에 그들을 좀 재워야지
-허, 그참 특보감이군
지금 동무네 구간에
바로 그 태천동무들이 돌격전을 벌리네
그들도 동무네들을 재우자는거요!
-아니 뭐... 우리 중대를?!...
그것이 아니었던가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는
군민의 한마음
해불의 바다되어 굶이치는
일심동체의 불바다

그것이 아니었던가
우리 장군님의 뜻이라면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군민이 산악같이 일어나 내달는
혼연일체의 불바다

그를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군민의 심장은 무엇으로 고동쳤던가
나는 직선직각을 좋아한다고
우리 장군님 하신 말씀이었더라

그보다 곧바른 길
그보다 더 시원하고 보기좋은것은 없다고
토지정리를 그렇게 해야 한다시던
최고사령관동지의 바라심이었더라

그이 좋아하시는 직선직각이라면
우리 군민도 좋아하는 직선직각
논두렁을 하나 지어도 직선으로
포전도로를 닦아도 직선으로
물길을 열고 석축을 해도
우리 장군님 보기 좋아하시는 직선직각으로

그 길에 천년암반이 막아서고
수천수만의 토량이 있다해도
오로지 그 한길을 뚫고나아간
그 길을 따라
한드레벌아, 너는 왔다
명승벌의 새 모습을 안고

그날의 그 숨결
이삭향기되어 넘치는가
드넓은 벼바다 기계화포전들
마치 군민의 사단과 군단의 대오와 같아라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열을 받으러가는
승리의 열병광장, 승리의 열병대오처럼

네 모습 이렇듯 승엄해라
네 모습 이렇듯 장엄해라
군민일치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는 노래하누나
만약 원수들이 달려든다면
군민일치의 보검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
백승의 신념을 안겨주누나

그것이 너의 가장 아름다운 풍치
그것이 너의 가장 빛나는 모습
장군님따라 폭풍헤쳐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이 어려있어
너는 절승경으로 솟아올랐구나
보고 또 보아도
너의 아름다움은
억센 힘을 불려오는 아름다움!
선군시대 선군8경으로 태어나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원한 자랑으로 되었구나!

(3)

멀리 저 멀리
푸른 하늘도 가을빛에 물들어
한낮에도 노을이 어리는 지평선끝까지
눈뿌리 아득히
끝없는 감회를 자아내는
내 고향 한드레벌

너 쉬임없이 설레이다가도
그 무슨 생각에 잠긴듯
깊어깊어가는 고요를 불러
속연히 말이 없구나

그럴 때면 내 가슴에도
조용히 깃들여라
우리 장군님 생각
한없이 그리운 그 마음

이 벌에 천지개벽을 펼쳐주시고
찬바람 찬눈을 맞으시며 오셨다가
찬바람 찬눈을 맞으시며 가신
우리 장군님

이삭이 한껏 무르익은
가을이면 오실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세번이나 왔다가 그냥 갔건만
한번 전선길을 떠나가신 뒤
이날 이때까지 오신다는 소식없는 그이

그러자고 그렇게 떠나셨던가
한드레벌 뒤에 두시고
전선길 그 어느 령을 넘으시던 장군님
먹을것이 좀 없는가
운전사에게 물으시지 않으셨던가

가마치밖에 없다는
그 눈물의 대답을 탓하지 않으시고
가마치로 때식을 대신하시며
천리방선을 찾아가신 그이

그러자고 그렇게 떠나셨던가
토지정리된 이 벌을 보셨더라면
아버이수령님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
기계로 마음껏 농사짓게 하하시던
수령님 유혼을 또 하나 꽃피웠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장군님

아, 가슴에 저러오는
그 가마치
가을이 오면
더더욱 가슴에 무거워오는
그 가마치

이 가을엔 참으로 잊지 못하겠구나
토지정리기념으로
천지개벽의 기념으로
새형의 새 프락포트를 보내주신 그 사랑
이리도 탐스런 이삭으로 흐늘어저

송구함도 그만큼 더해주는 이 가을

첫해 농사를 잘 지으면
한드레벌의 풍치가 더 멋이 있겠다고
필요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은정
하늘땅에 가득차 흐르누나

한번만이라도
우리 장군님 모시였으면
한드레벌의 낱알을 고르고 골라
지성다해 옥백미를 찧고 찧어
지성다해 밥을 지어드렸으면
그날의 그 가마치 옛말처럼 하시며
만시름 놓으시는 그 모습
우리 장군님 우러러 보았으면

아, 한드레벌아, 내 고향벌아
군민의 간절한 그 소원
군민의 끝없는 그 그리움
봄내 여름내 아지치고 열매로 영글어
너는 지평선끝까지 절경을 이루었구나

천이삭 억만이삭 하나처럼 고개숙여
감사의 큰절을 드리는 네 모습
그것이 너의 가장 아름다운 풍치
그 어느 절경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것이 너의 가장 황홀한 모습

보고 또 보아도
너의 아름다움은
우리 장군님을 기다리는
소원의 절경 그리움의 절경!
선군시대 선군8경으로 태어나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원한 자랑으로 되었구나!

×

삼천리 이 강산에
이름난 절경명승이 많고 많아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했던가
그래서 이 땅을 지켜 싸운
애국명장들이 많던가

하나 그들도 이 나라를 사랑해
서슴없이 바쳐온 그 목숨으로도
그것만은 만들수도 안아올수도 없었더라
이 나라의 절승경 산천의 명승경

한드레벌아, 내 사랑 고향벌아
오로지 우리 장군님만이
유구반만년 처음으로 안아오셨더라
너 표야지평의 절승경을
너 선군8경의 명승경을

력사에 전해오는 애국충신들은 많고많아도
우리 장군님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애국자는 없었거니

애국선군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애국총대로 이 땅에 절경을 안아오시는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계시여
너는 선군시대에 태어난 영광을
후세만대 자손만대 떨치게 되었구나
아, 한드레벌, 내 사랑하는 고향벌아

해와 달이 마주앉은 한드레

김정철

한드레벌을 한가운데 펼쳐놓고
해와 달이 마주 걸터 앉았네
세상에 다시없는 멋진 바둑판
그냥 헤어지긴 아쉬운듯
지는 해는 서쪽 고일령마루에
쫓는 달은 동쪽 마평언제우에

가로세로 끈게 뻗은 수로와 동쪽
네모반듯 포전들 귀잡이마다에
깜박이는 유아등을 뿌려가는 바둑알
해님이 반짝 한알을 떨구면
달님이 반짝 한알을 마주놓아
지평선에 자오룩이 들어가는 바둑알들

희한한 이런 구경 언제 또 보라
두루미떼 산기슭에 빙 둘러 내렸네
림천마을 은홍마을 운룡마을...

하얀 새집들로 그 모습 바꾸어
구름도 안개되어 벌에 내리니
넘려로다 시간마저 예서 덜컹 밟아설가봐

한드레 한드레 아름다운 한드레
금수강산 내 나라에 절경도 많지만
판동, 판서 그 어느 8경중에
해와 달을 마주앉힌 이런 절경 있더니
우리 장군님 총대로 다듬어 이 땅에 안아온
오. 선군8경 《표야지평》 한드레벌

변모된 한드레가 하도 좋아
세상만사 다 잊은 저 해 저 달아
래일 아침에도 이렇게 마주 앉으리
이번엔 서로 자리를 바꾸어
쫓는 해는 동쪽 마평언제우에
지는 달은 서쪽 고일령마루에

한드레벌처녀

김명철

해는 질가 말가
저녁노을 고운데
또 한아름 탐스러운 벼단을 베어안고
이마의 땀을 씻으며
저 멀리 고일령쪽을 바라보는 처녀
철령을 넘으실가
장자강을 건느실가
날이 저무니 더 그리운 장군님
돌보셔야 할 일이 많으실줄 알면서도

기다려지는 마음
태천땅 토지정리 가르쳐주신 그 봄엔
길이 바쁘시여 다리섬도 못하신 그이
천지개벽한 벌
찾아오신 그 겨울엔
농사일 의논하시며 찬바람만 맞으셨지

천방천옆이라
송우천밑이라
아득한 지평선 이 가을
보시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가

그래서 째째이 마을길에 꽃도 심고
이랑도 알뜰살뜰 가꾸온 처녀
행복이 넘칠수록 장군님 고마워
뵈오면 큰 절을 드리고싶어
이 저녁도 지는 해를 붙들고 선 저 모습

아, 비단우에 또 꽃이라더니
그러지 않아도 희한한 한드레벌에
저처럼 아름다운 처녀까지 서있어
이 가을이 더 좋구나!-
이 땅이 더 절경이구나!-

령수증

윤경찬

대문가에는 옷차림이 단정한 30대 후반의 젊잖은 사람이 서있었다.

《말씀 좀 물읍시다. 이 집이 한명섭로인네 댁이 옳습니까?》

《내가 한명섭이우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로인님, 한가지 알아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우.》

명섭은 제 먼저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퇴마루우에 걸터앉았다.

《앉으시우. 여기가 시원해서 집안보다 나을거우다.》

그러나 손님은 앉을념을 하지 않고 서류가방을 열며 물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군부대에서 후방부대대장을 하신것이 옳습니까?》

《예. 현대 갑자기 그건...》

《이 령수증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손님은 가방에서 누렇게 퇴색된 수첩장만한 종이를 꺼내어 내밀었다. 명섭은 돋보기를 찾아끼고 그 자그마한 종이장을 들여다보다가 흠칫 놀랐다.

《아니? 이게...》

그것은 50여년전 자기가 썼던 령수증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후퇴하는 인민군부대들은 정상적인 후방물자공급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식량이나 피복같은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인민정권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대신 령수증을 써주곤 하였다.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시작되고 정권기관들이 다시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령수증을 가지고있던 주민들에게는 현금이나 현물을 반환해주는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졌었다. 당시 후방부대대장이었던 명섭도 후퇴의 길에서 여러장의 령수증을 썼었다.

그것들은 후에 정확히 총화되었지만 신해방지구인 연천군에서 식량을 도움받고 써주었던 령수증은 종시 나타나지 않아 끝내 미결로 남겨두었던것이였다. 명섭은 그 령수증의 임자를 찾아 여러가지로 애써보았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속에서 그것을 찾는다는것은 조런치 않았다. 그런데 그 령수증이 50년세월이 흐른 오늘 꿈속에서처럼 눈앞에 나타날줄이야...

《이게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명섭은 떨리는 어조로 손님에게 물었다.

《얼마전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기간 인민군대원 호사업을 잘해 온 대상들을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참가 시키기 위한 료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원군사업에 모범을 보인 어느 한 가정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던중 이런것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철길대에서 선로반장을 하는 그 집 맏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가보처럼 간직하고있는것이랍니다.》

(그럼 혹시 그때 그 처녀가?...)

명섭은 주름살깊은 눈가에 의혹의 빛을 실으며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이걸 바치지 않았답니까?》

《그에 대해선 본인한테서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것 같아 그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이 령수증을 발급한 당시의 후방부대대장을 찾으면 구체적인 사연을 알수 있다고 하기에...》

《그렇단 말이지요.》

로인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세월과 더불어 퇴색해버린 자그마한 종이장을 점도록 들여다보았다. 그 종이장속에서 윤기흐르는 중발머리처녀의 모습이 약물에 담근 인화지처럼 점차 선명하게 떠올라왔다.

(아직 살아있단 말이지. 그런데 왜 여태껏 이걸 바치지 않았을가?)

이튿날 명섭은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제는 칠순 고개를 넘겼을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 처녀를 한시바삐 만나보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차창으로 흘러가는 주위의 산밭너머 아득한 하늘공간에 눈길을 주고 명섭은 그 처녀를 처음 만나던 잊을수 없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그 밤을 머리속에서 펼쳐보았다.

1

대오는 숲속을 조용히 행군하고있었다.

밤하늘의 구름장사이로 초생달이 얼굴을 내밀때마다 그들이 입고있는 군복이며 어깨에 멘 보총을 어렴풋이 비쳐주곤 하였다.

일행은 모두 다섯이였다. 대오를 책임진 후방부대대장 한명섭은 전방을 주시하며 맨앞에서 걷고있었다.

그들은 한주일전에 대대와 헤어졌었다.

전쟁초기부터 제1제대로 맹호처럼 내달리던 그의 대대는 부산을 코앞에 두고 후퇴명령을 받았었다. 지금껏 진격명령에 습관되었던 전사들은 입술을 깨물며 후퇴의 길에 올랐고 명섭은 주둔지역 인민들과 관계되는 문제를 마무리하느라 한결을 떨어졌던것이다. 그 내용인즉 무명고지에 나가있던 1중대에 어촌마을사람들이 가져온 생선값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명섭은 런대에 갔다오느라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정황이 너무 긴박하여 그에 대한 처리를 후날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방일군인 명섭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값에 대한 처리문제이기전에 우리 인민군대의 규률문제이고 군민관계문제였기때문이었다. 그때 물고기값을 받아든 어촌마을의 늙은이는 너무도 꿈같은 현실앞에 어안이 병병해있다가 명섭의 두손을 부여잡고 목이 메어 떠들거렸다.

《정말 놀랍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수? 그까짓 생선 몇마리값이 뭐라고 미국놈들이 코앞에 들어온 이때 사지판에 우정 찾아온단 말이요? 내 아이적부터 술한 전쟁이야기를 들어왔소만 이런 옛말같은 일은 처음이우다.》

정황이 급변하여 그들은 약속한 지점에서 대대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미 적들이 큰 길을 따라 앞질러간 조건에서 그들은 산밭을 타고 북으로 행군하였다. 열흘나마 계속된 행군으로 모두 지칠대로 지친데다 식량마저 떨어져 어제 낮부터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한 그들이었다. 우선 식량부터 해결해야 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명섭은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였다.

《마을입니다.》

명섭의 뒤에서 걷고있던 영복이라는 정찰소대의 중사가 나직이 속삭였다. 대대장은 헤어지면서 전투경험이 부족한 후방부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두명의 정찰소대 대원들을 붙여주었던것이다.

명섭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다른 대원들은 산기슭에 남겨두고 영복이와 둘이서 마을로 내려갔다.

여기는 이미 적들이 들어와 있는 조건에서 매사에 조심해야 했던것이다.

캄캄한 어둠속에 잠긴 마을은 무덤속처럼 괴괴하였다. 그 정적이 깨를한지 영복이가 중얼댔다.

《마을이 너무 조용한데요. 개짖는 소리 하나 안들리는게...》

《가만, 조용하오!》

그들은 산기슭에 붙어있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곧장 그리로 접근하였다.

영복이는 저쯤 떨어진 나무밑에서 주위를 살피고 명섭이만 대문가로 다가가 가만히 대문을 두드렸다.

《주인님 계십니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어 녀자의 겁기어린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왔다.

《누구세요?》

《우린 인민군대입니다.》

집안에서는 잠시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침묵, 침묵... 한초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 침묵에 불안을 느꼈는지 영복은 기관단총의 안전장치를 풀며 다가왔다.

《우리가 집을 잘못 고른게 아닙니까?》

그에 대답이나 하는듯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리더니 조금후에 찌쿠덩- 하고 한쪽 대문이 방싯이 열렸다. 문가에는 중발머리처녀가 서있었다.

《들어오세요.》

명섭은 마당안에 들어서자마자 처녀에게 용건부터 말했다.

《밤늦게 안됐습니다. 우린 후퇴하는 인민군대인데 미안하지만 식량을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어쨌든 들어가세요.》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명섭은 단마디로 거절했으나 처녀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제보기엔 많이 지치신것 같은데 더운 밥이라도 해자시고 떠나세요. 우리 집엔 아무도 없으니 마음을 놓아도 된답니다.》

처녀가 먼저 부엌으로 사라지자 명섭은 생각을 달리할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대원들에게 식사를 시키려면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가는게 빠를것이라는 타산도 있었지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후에라도 마음을 놓을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명섭이와 함께 방안에 들어선 영복은 밝은 불빛아래서 처녀를 바라보다가 무릎 굽어졌다.

《아니? 이게 누구요? 수연동무!》

처녀의 입에서도 기쁨의 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마나... 중사님!》

처녀의 얼굴엔 밝은 웃음이 확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마치 구름장에 가리워졌던 보름달처럼 대번에 환해지며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니 여기가 동무의 고향이었구만 서울에선 언제 왔소?》

《며칠전예요. 서울엔 미군이 또 들어왔거든요. 세상의 소란을 피하느라 고향에 왔는데 여기에도 미군이들어왔어요.》

《참, 그때 아버님이 집에 계신다고 한것 같은데...》

처녀의 얼굴에는 갑자기 어두운 그늘이 비껴들었다. 대답을 못하고 당황해하는 처녀의 태도에서 어떤 상서롭지 못한것을 예감하며 두사람은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는 한참만에야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풀이죽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진 <치안대>에...》

마을에 벌써 《치안대》라는게 생겨났단 말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갔다는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처녀는 명섭이와 영복의 찌르는듯 한 시선앞에 당황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마을 송지주아들놈이 미국놈들을 앞세우고 들어 오자바람에 <빨갱이> 들을 숙청한다면서 만들어낸건데 아버지도 거기에 가담하라는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잡이를 하는 그런데는 들수 없다고 딱 잡아뗐는데 그러면 <빨갱이> 로 몰아 온 가족을 멸살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어제 또 강제로 끌어갔는데 아직...》

처녀는 말끝을 흐리며 앞에 서있는 두사람을 얼핏 스쳐보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눈길에는 이런 치욕스럽고 악몽같은 현실의 수난자로 밖에 될수 없는 자신의 무책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진하게 비껴있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오늘 밤에라도 만약 아버지가 적들의 강박에 못이겨 《치안대》에 들게 된다면... 처녀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이 밤도 자기의 결국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아무런 담보도 없었던것이다.

명섭은 밥을 안치려고 부엌으로 나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경계심어린 눈초리로 예리하게 주시했다. 그러고보면 처음 대문을 두드렸을 때 순간이나마 망설이던것이 리해되었다.

명섭은 부엌쪽에 귀를 강구며 영복에게 시선을 돌렸다.

《동무들은 언제부터 아는 사이요?》

명섭의 물음에 영복은 쓰겁게 웃으며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학교운동장에서 련환모임을 하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영복은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들이 처음 만나던 때의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주었다.

2

서울해방전투에 참가했던 그의 부대는 의용군탄원자들을 환영하는 군민련환모임에 참가했었다. 서울장안이 이렇게 들썩해보기는 아마도 8. 15광복후 처음일것이다. 련환모임이 진행되는 학교운동장은 미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감격과 환희로 들뜬 서울 시민들이 한여름의 폭양에 땀을 절절 흘리면서도 앞을 다루어 밀려드는 통에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잠뱅이차림에 배꼽을 내놓은 조무래기들은 어른들 틈에 끼우지 못하고 학교앞 도로에 늘어서있는 인민군 땅크우에 지붕우의 호박처럼 조롱조롱 매달렸는데 어떤 녀석은 인민군전사의 모자까지 얻어쓰고 으시대고있었다.

조국을 위해, 참된 새 세상을 위해 손에 총을 잡자는 열띤 토론들에 이어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는 춤과 노래가 펼쳐졌다.

영복이도 무대에 달려나가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의 한대목을 멋지게 읊었다. 요란한 박수속에 학생복차림의 중발머리처녀가 무대우에 달려나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영복은 제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배심종게 꽃다발을 안겨준 처녀를 따라 들어가 그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내 이름은 영복이요. 동문?》

《수연이예요, 리수연.》

《동무도 물론 탄원했겠지요?》

《...》

처녀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붉히었다. 영복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깨우에서 가쁜하게 자른 중발머리, 그때문에 더 상큼하게 빠진듯 한 목, 하얀살결, 터질듯 팽팽한 청춘의 탄력이 느껴지는 날씬한 몸매... 첫 인상에 다감하고 청신한 기운이 풍기는 처녀여서 의용군에도 제일 선참으로 탄원했을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허물어진것이다. 자기는 분명 용감하고 정의롭고 열정적인 처녀에게서 꽃다발을 받았고 그래서 친할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영복은 마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차라리 이 처녀옆에 앉지나 말걸... 영복은 통명스레 말했다.

《하긴 억지로 총을 잡을수야 없지요. 그렇게 잡은 총은 맥도 추지 못하구요.》

수연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는 영복에게 랑해를 구하듯 말했다.

《전 아직 이 손에 총을 잡고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전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게다가 전 천성적으로 연약한 처녀이거든요. 어쨌든 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따스한 봄날같은 세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가요?》

수연은 고개를 들며 묻는듯 한 시선으로 영복을 바라보았다.

영복은 갑자기 대답이 궁해졌다. 처녀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게 분명하긴 한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던것이다.

《동문 뭔가 잘못 생각하고있군요.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 인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생활을 지키기 위해 총을 잡은겁니다. 말하자면 정의의 총대이지요.》

영복의 말에 수연은 알릴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였지만 입술을 꼭 다물고 말없이 앉아있는것을 보니 리해가 닿지 않은 모양이었다.

영복은 그 처녀와 더이상 앉아있고싶지 않아 다시 만나자는 말을 허아래소리로 중얼거리고는 자리

에서 불쑥 일어섰다.

(젠장 평인줄 알았는데 메추리라더니...)

그 다음날 영복은 대대장의 명령으로 린접부대에 갔다가 돌아오고있었다.

아직 시내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차단물의 잔해들과 파괴된 적군용차들이며 전투기재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그 낡고 험오스러운것들을 조소하듯 건물의 지붕들과 길거리 곳곳에서는 공화국기와 인민군대를 환영하는 내용의 프랑카드들이 참다운 새 생활을 약속하며 힘차게 나뭇기고있었다.

시대는 어디라 할것없이 승리와 해방의 환희로 들끓고있었다. 시민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인민군대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길가의 얼음물매대들에서도 인민군대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저마다 잡아끄는 판이었다.

영복의 뒤에도 한무리의 아이들이 어미닭을 따르는 병아리들처럼 줄줄 따라오고있었다. 그들에게 전투이야기를 해주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영복은 어느 길모퉁이를 돌아서다가 문득 굳어졌다. 길 옆의 2층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술한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있었던것이다. 영복은 다급히 그곳으로 뛰어갔다. 불길은 이미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휩싸고있었다. 현관은 물론이고 창문들마다 시뻘건 불길이 피물의 허바닥처럼 널름거리며 열기를 내뿜고있어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영복은 사람들이 두서없이 주고받는 말마디들을 통하여 시내에 숨어있던 반동놈들과 패잔병놈들이 민심을 불안케하고 시내에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곳곳에서 방화를 일으켰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불을 놓은 두놈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금전에 시위수경무부로 끌려갔다고 했다. 지금 불타고있는 건물은 개인병원인데 워낙 목조건물인데다 휘발유까지 뿌렸으니 불을 끌 가망은 없었다.

(악독한 놈들! 병원에 불을 놓다니...)

얼굴이며 위생복이 온통 그을음으로 매닥질된 반백의 사나이가 사람들에게 불들리워 몸부림치고있었다.

《이걸 놓으라지 않소. 저기... 저 2층입원실에 중환자가 있단 말이요!》

《이젠 늦었소. 저 불길속에 들어갔다면 원장선생도 다시 못나온단 말이요.》

《아이구!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절망에 빠진 사나이의 처절한 부르짖음은 모여선 사람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으며 울려퍼졌다. 하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직분으로 한생을 살아온 의사로서 사람이 불에 타죽게 된걸 뵈히 보면서 도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랴.

영복은 사람들속을 헤치며 다급히 앞으로 나갔다. 더 지체할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누가 만류할새

도 없이 총알처럼 불속으로 뛰어들었다. 건물안은 무섭게 타번지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때문에 눈을 뜰수도 숨을 쉴수도 없었다. 영복은 자기가 어떻게 2층까지 올라갔으며 입원실에 실신해 쓰러져있는 환자를 어떻게 안고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영복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사람들속에서 뜻밖에도 위생복차림의 수연을 알아보았다.

《정신이 드세요?》

《동무가?...》

《전 어제부터 이 병원에서 일한답니다.》

영복은 화상당한 팔을 개인봉대로 대충 싸매고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어섰다.

병원원장은 자기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눈굽을 연신 훔치며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간청했다.

《군대어른! 그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소?》

《가야 합니다. 전 지금 임무수행중입니다.》

수연이만은 잘있으라는 작별인사도 못들은 척 하고 영복을 따라나섰다.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하던 처녀는 머리속에서 고패치는 의문을 종시 풀길 없었던지 먼저 말을 건넸다.

《어떻게 되어 그 무서운 불길속에 뛰어들 용단을 내렸는가요?》

《뭐요?》

영복은 처녀의 질문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 무뎠다.

《그거야...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처녀는 고집스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누구나 그런 용단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엔 술한 사람들이 모여있었지만 불속에 뛰어든건 유독... 말은 쉽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남을 위한다는게 전 도무지...》

《나야 인민군대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란 말입니다.》

《또 어째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군대이기때문에 더구나 이해하기 힘들다는거예요. 어느 전쟁에서나 전승군이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된다는데 인민군대는 오히려...》

그는 처녀에게 인민군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들사이에는 도무지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것이다. 영복에게는 어둠속에서 장님처럼 헤매이고있는 처녀가 불만스러우면서도 그의 눈을 띄워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것이 자기의 책임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렇게 헤어진 뒤에도 그의 눈앞에서는 처녀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 부대는 서울을 떠나 남진의 길에 올랐다.

길 량쪽에 서서 인민군대를 손저어 환송해주는

시민들속에 끼여있던 수연이가 영복을 알아보고 자그마한 꽃 한송이를 들고 달려왔다.

《시내 꽃방을 다 뒤졌는데 겨우... 사실은 인민군 대환송바람에 시내 꽃방들이 텅텅 비었어요.》

《그렇소.》

꽃송이를 받아든 영복은 처녀의 손을 굳게 잡아 주었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게 될가요?》

처녀 쓸쓸한 어조로 물었다.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것이다.

《꼭 만나게 될거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고향에 놀러오오. 평북 정주라면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났지. 정주기관구에 와서 영웅 김영복이를 찾소. 아직은 영웅이 못됐지만 앞으로는 꼭 영웅이 될테니까 하하...》

영복은 처녀와 밝은 얼굴로 작별하고싶었었다.

처녀의 얼굴에는 아침해살라도 같은것이 조용히 피어 올랐다.

《몸조심하세요.》

《잘 있소.》

영복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가 대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황급히 뛰어갔다...

영복의 말을 들으며 명섭은 다소 마음을 놓았다.

3

부엌문이 방석이 열리며 처녀가 밥상을 챙겨 들고 들어왔다. 오래간만에 따끈한 밥상을 마주 대하니 구수한 토장국냄새에 창자가 비틀리우는듯 싶었다. 그래도 명섭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며 처녀에게 말했다.

《고맙긴 하지만 우린 그럴새가 없습니다. 곧 떠나야 합니다.》

《어쨌든 해놓은 밥이야 자셔야지요.》

《안됐지만 그걸 좀 싸주십시오. 산에서 우리 동무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수연은 명섭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것이라는것을 깨달았던지 더 권하지 않았다. 빈 배낭을 들고 나갔던 처녀는 잠시후에 한배낭 가득 쌀을 담아 가지고 들어왔다. 대충 눈짐작만으로도 20여키로그램은 잘될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집에서도 식량이 귀할텐데...》

《걱정마세요. 인민군대를 도와주는거야 옹당하지 않나요.》

명섭은 곁과 속이 하나같이 아름다운 처녀를 새삼스런 눈매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집주소와 이름을 대주시겠습니까?》

《그건 왜요?》

《우리한테 지금 돈이 없습니다. 대신 령수증을 써드리지요.》

수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다소 책망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참, 그런건 필요없어요. 그저 성의로 알고 가져가세요.》

《성의는 고맙지만 우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건 인민군대의 규정입니다.》

수연은 의문이 가득 실린 얼굴로 명섭이와 영복을 번갈아보았다. 처녀에게는 이 모든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후퇴하고있다, 미군은 방대한 무력으로 밀려오고있다. 혹시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령수증은...

처녀는 분명 그렇게 묻고싶었다.

그리나 처녀는 아무말없이 주소와 이름을 대주었다.

령수증

연천군 X×면 리수연에게서 흰쌀 20kg 을 정히 인수함.

1950년 10월 X일

인수자 조선인민군 X×군부대 X대대

후방부대대장 한명섭

수연은 그 령수증을 받아들고 무슨 신기한 보물처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종시 참지 못하겠던지 명섭에게 물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분명 확신하는게지요?》

순간 명섭의 검은 눈썹이 사납게 꿈틀거렸다. 그는 분명 처녀의 말속에서 그 다음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무서운 말을 들었던것이다.

《그러니 동문 이 령수증이 필요없게 될수도 있다는건가요?》

명섭은 울컥하는 마음을 자제하느라 애쓰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수연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짙은 고뇌가 어린 소리로 대답했다.

《제 말이 노엽게 들렸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으로 범벅이 되고 애매한것이 가득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게 저같은 처녀에겐 그리 험치 않답니다.》

영복이가 처녀의 회의적인 태도를 참을수 없었던지 버럭 소리쳤다.

《수연동무! 동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고있는가?》

영복은 무서운 표정으로 처녀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그래도 동무를 다시 만나면 제 갈길을 찾고 제발로 곳곳이 걸어가는 좋은 동무를 보게 될것이라구 희망했었는데...

에익! 대위동지! 그까짓거 그냥 갑시다.》

《영복동무!》

명섭은 문제로 향하는 영복을 엄하게 불러세웠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처녀를 바라보았다. 명섭의 생각도 사실 영복이와 다를바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도 인민군대를 믿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동정을 받고싶지는 않았다.

(그냥 갈것인가? 그럼...)

하지만 명섭은 그저 감정 내키는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할수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그냥 가버린다면 이 처녀는 우리 인민군대에 대해 옳바른 인식을 가질수 없을것이 아닌가.

명섭은 격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그 령수증은 잘 건사했다가 인민정권기관이 복구되면 가져다 바치십시오. 그럼 꼭 보상해줄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우린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섭은 배낭을 돌려메었다.

《우릴 도와준데 대해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대문이 덜커덩거렸다. 방안의 공기는 대변에 긴장해졌다.

명섭과 영복은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혹시...

잠시후 늙은이의 신음섞인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수연아-》

겁질린 표정으로 꼼짝 못하고 굳어졌던 수연은 그제서야 막혔던 숨을 호- 내쉬며 다급히 속삭였다.

《아버지예요.》

그리고는 부리나케 달려나가 대문을 열었다.

그런데 수연의 아버지는 대문이 열리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풀쩍 쓰러지는것이였다.

《아니,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딸의 무릎에 안긴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되어 아무런 흔들어도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불빛에 보니 얼굴이며 옷이며 온통 피칠갑이 되어있었다.

명섭은 무작정 수연의 아버지를 안아들었다.

《어쨌든 방안에 들어갑시다.》

수연의 아버지를 아래목에 눕힌 그는 어쩔바를 모르고 울상이 된 수연에게 물을 떠오게 하고 영복의 배낭에서 개인봉대와 비상용약품을 꺼내게 하였다.

얼마후에 간신히 눈을 뜬 수연의 아버지는 머리맡에 앉아있는 딸과 인민군대를 알아보자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리며 베개잇을 흥건히 적셨다.

《아버님, 어찌된 일입니까?》

수연의 아버지는 입귀만 실룩거리다가 띠엿띠엿

끓기는 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그놈들이... 그 개놈들이 <치안대> 에 들지 않겠다고 한대구... 그 송지주아들놈은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그대신 저 애더러 래일 미군기계화부대놈들이 마을에 들어오는데 꽃다발을 들고 나오라는 거요.

이 마을에 신식물을 먹은 녀자는 저 애밖에 없으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녀를 죽여버리겠다구...》

수연의 낯빛은 대뜸 해쓱해졌다.

꽃다발을 들고 미군놈들을 마중한다는것이 어떤 치욕의 길인가를 잘 아는 수연이였다. 수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돌려 명섭이네를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명섭은 동정이나 처녀에 대한 옹호의 감정대신 먼저 쓰거운 모멸의 감정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마당에 와서까지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는새에 적들은 처녀에게 그 무엇으로든 씻을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안겨주려 하고있다.

《대위동지, 어떻게 할가요?》

뒤에서 영복이 낮은 소리로 명섭의 생각을 깨치였다. 묻지 않아도 처녀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명섭은 잠시 망설이였다. 지금은 적후다. 될수록 전투를 피하면서 전원 무사히 후퇴할것을 명령받은 그들이다. 게다가 열흘나마 식량을 입에 대보지 못하여 지칠대로 지친 몸들인데다 전투인원도 적다. 명섭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불던 수연의 아버지는 뿌연물기가 어린 눈을 들어 명섭을 쳐다보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인민군대어른, 그 개놈들이 래일 미군놈들앞에서 술한 애국자들을 학살한다고 기고만장해서...》

《뭐요?!》

명섭의 눈에서는 불씨가 튀었다. 기관단총을 틀어쥔 주먹에서 뼈마디 튀는 소리가 났다.

놈들이 미군놈들앞에서 수십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려 한다. 아까와는 달리 한조도 늦출수 없는 절박감에 피줄이 팽팽히 헝기워진다. 더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명섭의 사나운 눈길에 영복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인민군인인 그는 그런 마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알았습니다.》

금방 영복이 문을 차고 마당에 뛰어내리는데 별안간 수연의 아버지가 황황히 앞을 막아섰다.

《이보시오 군대어른, 지중하시오... 지금 거기에는 아군의 어중이떠중이놈들이들까지 모여들어서 그 수가...》

아마 로인의 눈으로 보기에다 명섭이네 일행의 형편이 짐작되었을것이었다. 명섭은 로인에게 다가 가 아까와는 달리 빙긋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버님, 우린 인민군대입니다. 인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리할수 없는 인민군대란 말입니다.》

명섭의 드팀없는 신념에 찬 모습에 로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고맙네, 고마워.》

《지금 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지주네 집이지요. 미군놈들은 본채에서 술판을 벌리고 <치안대> 놈들은 환영준비를 한답시고 개지랄이우다. 그리고 애국자들은 고간에...》

명섭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적정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는 영복에게 간단히 지지했다.

《빨리 가서 동무들을 데려오시오.》

영복이 문밖으로 바람처럼 사라지자 여직껏 숨죽이고있던 수연이 앞에 나섰다.

《저, 제가 길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가요?》

명섭은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안됩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 간단한 락도만있으면 됩니다. ... 동문 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피신하는게 좋겠소.》

그러자 수연은 고집스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예요, 저를 꼭 데려가주세요. ...》

그 길은 제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나는 잘 알아요. ... 전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이젠 나두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안것 같아요.》

처녀는 마지막말과 함께 머리를 끝추 들었다.

처녀의 눈에서는 사랑에 불타는 녀의 호소가 몸부림치고있었다. 명섭은 그 눈빛에서 자기 갈길의 선택을 힘들어 하다가도 일단 선택되면 그 길에 청춘의 열정을 깡그리 바치려는 강요한 의지를 똑똑히 보았었다. 그저 아련해 보이기만 하던 처녀의 어느 구석에 그런 담차고 서리발같은 기운이 숨겨져있었는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군대어른, 데려가주시오. 그건 그 애 몹이우다.》

그의 아버지도 진정으로 간청했다. 명섭은 위험한 길이지만 그 길에 수연을 세워주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길은 여직껏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외면하고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을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될수 있기때문이었다.

《좋소, 그럼 지주집까지만 길안내를 하고는 돌아서야 하오. ...》

얼마후 그들은 마을길에 나섰다.

그들보다 몇걸음앞에서는 흰 저고리를 입은 수연이가 총총히 걸어가고있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어서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처녀는 발을 헛디디지 않고 자신있게 걷고있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나 남몰래 해본적 없었던 순박하고 순결한 처녀의 가슴은 긴장과 흥분 그리고 책임감으로 하여 세차게 놀뛰고있었다. 여느때같으면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는 마을길이건만 지금은 모든게 낯설어보이고 바람에 줄당콩넝쿨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등골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수연은 이를 옥물고 침착한 자세로 걸어갔다.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다가온 영복이가 수연을 불러세웠다.

《저게 지주집이 아니요?》

그의 예리한 눈길은 담장너머로 비쳐나오는 불빛에 어렴풋이 드러난 지주집의 룡곽을 알아보았던것이다.

그러나 수연은 돌아서고싶지 않았다.

《좀더 가야 해요.》

지주집이 눈앞에 다가왔으나 처녀는 발길을 멈추지않았다. 이제는 그를 불러세울수도 없게 되었다. 수연은 활랑거리는 가슴을 두손으로 꼭 부둥켜안고 대문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치안대》 완장을 두른 보초놈은 어둠속에서 언뜻언뜻 나타나는 흰 저고리에 눈이 켤-해서 황황히 충을 쫓아들었다.

보초놈은 떨리는 소리를 내질렀다.

《누... 누구야?》

보초놈이 수연이에게 정신이 쏠렸을 때 뒤에서 다가온 영복은 그놈의 가슴에 단도를 푹 박았다. 수연은 얼결에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한참만에 눈을 떠보니 영복이 이미 보초를 한옆에 처리해버린 뒤였다. 영복은 온몸이 마비된듯 꼼짝 못하고 서있는 처녀와 마주섰다. 활활 타는듯 한 그의 눈빛은 처녀를 당장 태워 버릴듯 싶었다.

《고맙소!》

무엇이 고맙다는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는 처녀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놓고는 전우들과 함께 대문안으로 달려들어가며 나직이 소리쳤다.

《이젠 빨리 가오!》

전투를 끝내고는 곧장 떠나야 할판이라 작별인사를 그 한마디로 대신한것이었다.

대문안에서는 기관단총의 연발사격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한데 섞이여 야밤의 정적을 흔들어놓았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그때까지 대문밖에서 말뚝처럼 굳어져있던 수연은 그 무엇에 이끌리듯 한발작 한발작 마당안으로 들어갔다. 여느때 같으면 피비린내나는 싸움터를 멀찍이 에돌아 갔을 수연이었건만 지금은 왜서인지 그 싸움마당 한복판에 자기를 세워보고싶었다.

수류탄벼락을 맞은 본체에 불이 달려 사위는 대낮같이 환한데 여기저기에 죽어자빠진 놈들이 수두룩했다. 미군 환영준비를 한답시고 밤새 떠들어대던 놈들이 네활개를 뺀고 자빠진 꼴을 내려다보며 처너는 쓰겁게 랭소했다.

대원들은 매 방들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있었다.

《수연동무! 아직 안갔소?》

창고에서 나오던 영복이가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있는 수연에게 달려오며 반색을 지었다.

일은 그 순간에 벌어졌다. 퇴마루우에 쓰러졌던 미군장교놈이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체일 가까이에서 서있는 수연에게 권총을 겨누고있었던것이다.

《수연이!》

영복은 비호처럼 몸을 날리며 처너를 밀어버리고 기관단총을 추켜들었다. 그러나...

《땅!》

외마디 권총소리를 짓누르며 영복의 기관단총소리가 길게 메아리쳤다.

《따따따...》

영복은 천천히 모재비로 쓰러졌다. 적의 흉탄은 그의 왼쪽가슴에 치명상을 입혔던것이다.

너무도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명섭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있었다. 이 무슨 일인가. 쉽게는 믿을수 없는 사태앞에 정신이 아득해졌던 명섭은 한달음에 달려가 영복을 부둥켜안았다.

《영복동무! 영복이!》

그러나 영복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전우들의 부름에 영영 대답할수 없었다.

영복이가 밀치는 통에 마당에 넘어졌던 수연은 눈앞의 현실이 꿈속의 악몽같아 났자간 사람처럼 멍해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깨닫고는 그만에야 악- 소리들 치며 실신해 쓰러졌다. ...

동들무렵.

마을뒤산에 영복을 안장했다. 영웅전사와의 영결식은 침묵속에 조용히 진행되었다. 조총도 쏠수 없어 빈격발기만 당기자니 가슴들이 터져왔으나 참을수밖에 없었다. 구원된 애국자들이 소리없는 울음을 삼키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다. 봉분우에는 수연이가 가져다놓은 소박한 들꽃묶음이 놓여있었다.

처너는 너무 울어 눈이 툭툭 부었는데 아직도 슬픔에 껴켜 흐느끼며 무덤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갈

은 소리만 되풀이했다.

《제탓이에요. 모든게 저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명섭은 수연에게로 다가갔다. 과연 영복이가 정말로 처너가 떠나기를 바랐을가... 아니, 그는 수연이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진리의 그 길을 영원히 함께 걸어가기를 바랐을것이다.

명섭은 수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수연동무, 그만하고 진정하오.》

그는 가슴이 빠근해 와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푸른 산밭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영복동문 동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동무가 거기에 없었다면 그는 섭섭했을것입니다. 그러니... 동무가 슬퍼하기만 한다면 그건... 그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것으로 됩니다. 그는 인민군전사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켜 목숨을 바친것입니다.》

처너의 흐느낌도 잦아들고 주위에는 승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대원들은 전우의 령전에 마지막작별인사를 남기고 묵묵히 배낭들을 메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도 멀고도 간고한 시련의 길이 놓여있었던것이다.

묘지앞에는 명섭이와 수연이만 남았다. 주위세계를 망각한듯 초연한 자세로 서있던 수연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했다.

《중사동지! 저도 이제부터 중사동지가 바라던 처너로 살겠어요. 전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어요. 이제 부지런히 그 길만 걸으렵니다.》

수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불리워진 동지라는 말이 명섭에게는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지금껏 습관적으로 부르고 들을 때보다 더 스스럼없고 더 친근하고 더 승엄한 의미를 담고있는듯 싶었다. 그도 그럴것이 동지라는 그 말을 스스럼없이 부르기 위해 처너는 이 하루밤동안 웅근 하나의 거대한 세계, 사랑과 증오의 첨예한 세계를 체험해야 했던것이다.

명섭은 봉분앞에서 떨어질줄 모르는 처너에게 돌아섰다.

《다시 만납시다. 수연동무!》

《저... 이결.》

뜻밖에도 수연은 명섭이가 써준 령수증을 내미는 것이었다.

《전 이결 받을수 없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못받겠어요.》

처너는 고집스레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처너의 진심이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가정의 불행을 가서주고 인민들을 구원하자고 어려운 후퇴의 길에서도 전투를 벌렸어요. 중사동지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

지 바쳤구요. 나같은게 뭐라구... 과연 내가 그 중사 동지의 목숨과 바꿀만 한 가치가 있는 여자인가요? 내 한생을 다 바친대도 그 중사동지의 하루와 맞바꿀수 없다는걸 전 알아요. 그러니 저의 남은 생은 인민군대를 위해 바쳐야 할거예요. 전 깡그리 바치고싶어요. 뭐든 보탬이 되는것이라면 힘자라는것 바치겠어요. 그런데...그런데도 난 후날에 쌀 한배낭을 도로 받겠다고 이 령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세상에 그럴수 있어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나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처녀의 마지막말은 날카로운 웨침소리로 숲속에 울려 퍼졌다.

명섭은 감동어린 눈길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달리 말할수 없었다. 그것은 명섭의 견한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그 누구도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흥정할 여지가 없는것이었으니 그것은 나라의 법이었고 인민군대의 엄격한 규정이었었던것이다.

《동무의 진심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령수증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것은 우리 군대의 영원한 군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 군대가 강한것이지요.》

《그게 군률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가장 엄격한... 가장 뜨겁고 가장 신성한...》

그들은 떠 나갔다.

찬란한 아침해살을 받으며 숲속으로 멀어져나가는 인민군대를 뜨거운 눈길로 바태우는 처녀의 두손에는 자그마한 종이장- 인민군대가 남기고간 《령수증》이 무겁게 들려있었다.

×

조국해방전쟁시기 헤어졌던 사람을 50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흥분으로 가슴을 조였지만 명섭은 그를 만날수 없었다.

《어머니는 방목지에 가게됩니다.》

철길대에서 선로반장을 한다는 말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명섭을 맞아주었다.

《방목지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제 몸은 인민군대가 살려주었다면서 군내 로병들이 저-기 등판에 자체로 꾸러놓은 방목지에서 염소를 기르면서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도우며 사는것을 락으로 알고 산답니다.》

명섭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서둘러 물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난 전쟁때

헤어진후로는 도무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어머니는 인민군대가 마을에서 떠난후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유격대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는데 외할아버지는 놈들에게 맞은 어혈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재 진격하는 인민군부대가 마을을 지날 때 무작정 따라나섰는데 하두 떼를 쓰며 쫓아오니까 사흘만에 입대시켜서 군의소에 보내주더랍니다. 전쟁이 끝난후 어머니는 고향마을이 아닌 여기 정주에 제대배당을 메고 찾아왔답니다. 여기가 자기를 위해 목숨바친 인민군병사의 고향이라면서... 그때부터 년로보장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 철도병원에서 일하셨지요.》

명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바람벽에는 그동안 인민군대원호를 잘하여 받은 표창장만 해도 세개씩이나 액틀에 끼워져있었다.

《자넨 잘 알겠지? 어머니가 어째서 그 령수증을 아직 바치지 않고있는지...》

아들은 오히려 놀랍다는 표정으로 명섭을 바라보았다.

《바치다니요? 어머니는 그걸 가보처럼 간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그는 창밖을 통해 산너머 멀리 바라보며 답답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긴 나두 언젠가 어머니에게 그 사연에 대해 물은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라에선 군대원호를 잘한다고 표창도 주고 신문에도 내주지만 나에겐 전쟁때 받은 이 령수증이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하게 생각된다.》

이 령수증이 갈대같은 내 인생을 참대같이 살도록 해 주었구나....

난 그때에야 어머니의 심중을 다소나마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걸 단순히 쌀 한배낭 바친 확인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국에 자기의 량심을 바쳤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 령수증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크나큰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머니를 만나보시면 더 깊이 알게 되겠지요.》

그가 방목지로 가는 차를 알아보겠다고 나간뒤 명섭로인은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방금전에 들은 말들이 귀전을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명섭로인은 방목지가 있다는 저 멀리 푸르른 산봉우리너머를 추억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혼자소리로 말했다.

《수연동무, 고맙소! 그 어려웠던 시기에 다진 그 마음을 안고 50년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한 모습으로 사는구려. 정말 고맙소!...》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용사에 대한 진실한 형상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을 읽고-

강창호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친 리수복영웅을 원형으로 한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을 수령결사옹위의 위훈으로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고있는 총대용사 주인공 리수림영웅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간결하고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만 청춘도 생명도 아름다운 희망도 꽃피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는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리수림이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광복전의 주인공의 생활은 가난과 멸시뿐이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마저 일제의 모진 채찍속에 쓰러져 의지할데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설분과 원통함을 어디에도 하소할길 없었다. 일제의 민족적멸시를 참을길 없어 《앵무새사건》을 일으켜 놈들에게 반발하면서 인간적존엄을 지켜가는 수림은 언젠가는 기어이 자유의 새 세상이 오리라는 기대로 심장을 불태웠다.

드디어 광복의 그날이 왔다. 작품은 주인공 수림이 광복후에 겪게 되는 행복한 생활과 체험세계를 통하여 수령결사옹위의 주도적성격이 어떻게 발현되고 신념으로 간직되었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 처음 논밭을 분여받고 너무도 고마와 눈물흘리는 달밤장면,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중학교,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며 한량없이 높뛰는 심장을 부여안고 풀 한포기, 꽃 한송이, 벽돌한장, 쇠붙이 하나라도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애국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는 주인공의 체험세계 등은 수림의 혁명적세계관형성

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기름진 형상들이다. 작품에서 이러한 생활과 체험세계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을 깔아주면서 광복후 주인공의 생활과 체험을 더욱 승화시켜 보여줌으로써 수령결사옹위의 주도적성격이 어떻게 공고화되고 신념화되었는가를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광복된 조국땅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첫 민주선거를 하게 된 궁지와 행복, 천대받던 농민들이 나라의 떳떳한 주인이 되었다고, 이 소중한 조국을 원썬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피눈물나는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새 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고 열렬히 말씀하시는 명명하신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는 마을사람들의 모습... 참으로 이 모든 현실은 주인공 수림에게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량만, 희열을 안겨주었다. 하여 수림은 이 행복, 이 기쁨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찬 삶이 없다는것을 깊이 새기게 되는것이다.

주인공 수림이의 주도적성격을 생활적으로 강조함에 있어서 항일혁명투사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안창근선생에 대한 형상은 매우 의의있는것이다. 그는 수림이네들에게 진실한 사랑처럼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그 진실한 사랑이란 명명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마음이며 바로 이것이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의 그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청다운 은천강기슭에 백양나무를 심고 푸르싱싱 자라나는 백양나무처럼 아버지수령님께 충성 다하라고 가르쳐준다.

특히 시집 《백두산》에 대한 세부형상은 수림이의 성격을 부각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수림이는 언제나 시집 《백두산》을 그렇듯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면서 늘 암송하군 한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의 설한풍을 헤치며 강도 일제와 싸우시던 그 나날들을 심장에 새기며 전설의 빨찌산 김대장,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을 위하여 벽돌 한장이라도 더 고이고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하리라 굳게 마음 다지는것이다. 하기에 시집 《백두산》에 심취된 수림이를 보며 기하선생마저도 그 《백두산》은 우리 수학에도 거대한

넋을 부어주는 굉장한 학문이라고 탄성을 올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데 있다. 이 감동적인 세부형상은 매우 이채로운것으로서 작품의 형상생리에 맞게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잘 맞물려지고있다.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은 수령결사옹위의 총대 용사로 자라난 주인공의 주도적성격을 힘있게 담보하는 생활적바탕을 타당성있게 깔아주었을뿐 아니라 그 성격의 발현과정을 잘 그리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 청춘의 아름다운 포부와 꿈을 실현하리라 희열에 넘쳐있던 수림의 리상은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하여 시련을 겪게 되었다. 수림은 동무들아, 눈물을 닦으라, 깨어진 벽돌장을 눈물로 닦을 때가 아니라고 분노의 시를 읊으면서 원수들의 폭격에 중단되었던 교정의 종소리를 다시 울린다.그리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부끄럽없이 바라보려거든 내 나라의 땅과 우리 학교,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총대를 잡고 전선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삶의 보금자리와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을 지키는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슴깊이 새기며 총포탄이 울부짖는 전선으로 용약 펼쳐나선다.작품은 여기에서 감동깊은 생활세부들로 주인공의 성격을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은 바위처럼 굳고 비단처럼 고와야 한다.

수령님 받들어 잘 싸우라고 당부하면서 아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와의 역두작별장면, 누에가 석잠갔으니 빨리 집에 들어가 돌보라고 하는 수림의 말 등은 참으로 눈물겨운 세부들이다.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은 또한 총대를 틀어쥔 결사옹위전사의 전선 생활과 그 체험세계를 감동깊은 극적인 생활로 충만시켜 형상을 이끌어내었다.

《호랑이》 중대장으로 이름떨친 송두호중대장의련락병이 된 수림은 언제나 배낭속에 교과서들을 수두룩이 넣고다녔다. 중대장과 특무장(사관장)은 처음 저으기 놀랐으나 수림의 심장속에 고동치고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지향과 포부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어느때든 그를 다시 학교에 보내리라 마음다지는것이다. 전쟁은 전투만이 아니다. 그것은 상봉을 기다리고 승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기다리는것이다! 그것을 앞당기고 현실로 되게 하기 위해 수림은 싸움터마다에서 적탄을 맞받아 용감하게 돌진해나가는것이다.

그는 적후에 홀로 남았을 때도 아버지수령님께서 마을에 찾아오시였을 때의 그 우렁우렁하신 정깊은 목소리를 사무치게 그리며 적후련대의 땅크습격전에 나가 위훈떨치기도 하며 사품치는 쌍바위천을 단신으로 헤엄쳐가 전투명령을 무조건 수행하기도 한다. 이때마다 그는 총잡은 병사로서 수령님 찾아

주신 이 땅을 지켜 부끄럽없이 싸웠는가고 자신의 심장에 반문하며 결사의 각오를 굳히는것이다.

더우기 민청위원장이었던 석동무와 안창근선생의 희생, 고향의 옛 동무였던 성철이가 계급적원수인 민영달이와 같은 《치안대》 패거리에 끌려 들어가 일시적이거나 밀려다니데 대한 적의와 분노, 동지와의 우정에 대한 배신을 두고 가슴치는 수림의 형상 등은 깨끗한 량심과 심장을 다 바쳐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신념을 새겨가는 주인공의 주도적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은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나는 충분한 생활적계기들과 체형세계를 깊이 개방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가 발휘하는 결사옹위의 영웅적행동이 사람들의 심장에 강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며 감화력을 발휘하는것이다.

…1211고지와 룡선으로 잇닿아있는 무명고지를 탈환하고 아군부대의 유리한 전략적목적을 달성해야 할 전투명령을 받은 중대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피끓는 심장으로 엄숙히 맹세 다지고 돌격전에 나선다. 리수림분대장은 불뿜는 적의 화구에 수류탄을 던지며 《돌격 앞으로!》 하고 결사전의 앞장에 선다. 그런데 돌격전에 내닫던 전우들이 적의 화점에서 다시 내뿜는 총탄에 쓰러지지 않는가 사랑하는 전우들, 사선의 언덕을 함께 넘으며 피의 길을 헤쳐온 동지들…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도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

머리를 번쩍 들고 땅을 박차고 일떠선 수림이는 불사신처럼 불뿜는 적의 화점에 몸을 날렸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것은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피끓는 그의 심장의 메아리였다.

격전을 앞두고 그가 쓴 심장의 웨침.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이것은 고지가 불타고 총포탄이 울부짖는 싸움터에서 원수 미제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은 전사, 계급적원수들과의 판가리결전장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불굴의 혁명전사의 심장의 웨침이며 가장 깨끗한 량심이며 헌신이며 충성심의 최고정화였다. 영웅은 희생되었어도 그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은 영원히 살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전사의 위훈을 잊지 않으시고 리수림영웅을 모교앞에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였다.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은 청춘의 희망과 열정이 나래치는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에 맞게 박력있

고 생기에 넘치는 생활세부들에 대한 질은 묘사, 시적인 기치가 번뜩이는 문장구사와 극적건인력의 담보 등으로 하여 사람들을 작품세계에로 즐기치게 이끌어 가면서 조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의 아들이어야 할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데로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켜나감으로써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하기에 작품이 나온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선군시대 천만군민을 수령결사옹위의 가장 고귀한 삶의 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면서 생활과 투쟁의 길동무로 되고있는것이다.

수필

오늘도 울려오는 한나의 메아리

양의선

나는 얼마전에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 주인공들의 원형인 강규찬, 고진희부부의 가족들과 함께 신미리에국렬사릉에 갔었다.

따스한 봄볕에 푸르려 가는 잔디에 둘러싸여 세워진 비들에서는 오래전에 우리들결을 떠나간 통일 애국렬사들이 찾아온 우리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이처럼 여기에 찾아와 살아있을 때의 그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곳에 애국렬사릉을 건립하도록 해주신데 이어 묘비에 돌사진을 새기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기때문이다.

따사로운 봄볕도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그들의 모습과 유가족들과의 상봉을 더욱 유정하게 해주는듯 싶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강규찬, 고진희부부의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고 잠시 묵상하고 서있었다. 포근히 덮은 잔디위에 봄볕이 애무하듯 비치고 묘비에 새겨진 그들의 모습이 조용히 내다보고있었다.

그들이 우리결을 떠나간지도 어언간 반세기가 지나갔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은 감격과 환희가 채 가라앉기도전에 분렬이라는 가슴저미는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가. 외세때문이었다. 미제때문이었다.

이들은 외세와 나라의 분렬을 반대하여 4. 3인민봉기에 떨쳐나섰었고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하자고 지리산에서 아낌없이 피를 뿌렸다.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된 제주도의 한나산에 모시는것이 이들의 일생소원이였다.

그들이 바라던 역사적위업은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다. 오직 통일만이 먼저간 이들과 우리모두의 가

슴속에 평온을 가져다줄것이다.

오늘 아침보도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을 하고계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백두대산줄기가 굽이쳐 뻗은 최전연의 험한 산밭들을 걷고 또 걷고 계시는것이다. 두동강난 이 나라 땅을 한나산까지 이어갈 가장 끝은 지름길은 오직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선군의 길뿐이다.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로선이 있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지켜지고 6. 15북남공동선언이 태여났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이 땅의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고 룡성번영하는 래일의 조선도 있다. 4. 3인민봉기며 지리산과 태백산을 피로 물들인 유격투쟁이며 온 남조선땅을 진감시킨 각종 반미항전은 모두가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의 출로를 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결사의 싸움이였다. 바로 것처럼 곡절 많고 혈전도 많았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위대한 승리의 보검이 우리앞에 찬연한 빛을 뿌린다. 그것은 이 땅에서 외세를 영영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인 선군정치인것이다. 그 진두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신다.

통일을 위해 먼저간 통일의 애국렬사들이 지리산과 한나산, 이 나라 하늘과 땅들에서 소리없는 웨침을 터치고있다. 그 웨침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에 메아리쳐온다.

7천만 겨례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로선만을 받들고 따르라. 선군로선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 조국의 통일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룡성번영하는 래일이 있다.

부 리

유현

1

도당전원회의를 마치고 밖에 나선 나는 하늘을 치며보았다. 희뿌연 공간을 빼곡이 메우며 흰 눈송이들이 엇비스듬히 뿌려졌다.

회의에서 받아안은 과업이 군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인 나의 두어깨를 무겁게 내려누르고있었다.

북변의 우리 고장의 넓은 들에도 눈이 내릴것이다. 이해에 접어들어 또다시 후더분히 쌓여지는 이 눈속에 그곳 대지는 벌써부터 몸을 뒤채기며 서둘러 봄갈이를 재촉할것이 아닌가. 씨뿌리는 계절이 방금 눈앞에 박두한것만 같아 지레 마음이 설레발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회의가 끝을 맺자마자 책임일군의 부름을 받고 사무실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위원장동무, 군내 농업을 말아보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임에 의해 군당책임비서로 주성민동무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결상에서 몸을 일으킨 헌칠한 중년의 남자가 인상적인 미소를 담고 서있었다.

《리학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그앞으로 다가갔다.

《주성민이라고 합니다.》

목단추를 꼭 채운 불깃불깃한 목덜미며 솜옷안을 꽉채운 팽팽한 몸집의 40대 젊은 당일군은 웃으며 나의 두손을 뜨겁게 움켜쥐는것이였다.

그의 두툼한 손을 통해 미쳐오는 묵직한 힘을 느끼자 나는 힘겨운 짐을 벗어놓았을 때처럼 어깨가 가벼워짐을 느꼈었다.

나는 정문밖에 세워놓은 《갱생》 차로 다가갔다.

방금전 신임책임비서는 하루 쉬고 래일 도당조직비서와 같이 내려가라는 도당책임일군의 만류를 밀막으며 나를 따라 군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펜스레 승용차를 한바퀴 빙- 돌면서 생각을 굴리였다. 도에 올라올 때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을 불러 논밭에 거름반출을 다그칠때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일이 어떻게 돼가고있는지...

예순고개를 넘어서부터는 웬일인지 로파심만 커가는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든다. 그럴 때마다 나라의 한개군의 농업생산을 맡은 일군이 왜 잔걱정이 많지 않으랴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긴 이번 도당전원회의기간에만도 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회의 휴식참에는 다른 군의 일군들을 만나 군농사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논도 했고 좋은 경험을 듣기 위해 러관

방들을 두루 돌아가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발판개용영농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밤길을 걸어 제철소일군의 집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성과는 컸다. 거기에다가 새 책임비서까지 왔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될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차에 뺑각수를 넣고있는데 뿌드득 뿌드득...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등뒤에서 멎었다. 책임비서였다.

나이 지숙한 이전 책임비서와 달리 운동선수처럼 패기에 넘쳐있는 신임책임비서는 먼길을 앞둔 사람처럼 색바랜 숨신발의 끈을 꼭 졸라매고있었다. 나는 얼른 그의 뺑어깨에 나뉘여 메어진 두개의 배낭을 벗겨내려 차안에 들여놓았다.

《독신살림을 꺾야겠기에 거 책임랑 옷가지랑 두루넣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미안쩍어 하며 나직이 얼버무렸다.

《참, 운전사동문 어딜 갔습니까?》

《이동작업을...》 내가 왜 이렇가. 나는 열결에 던진 실언으로 뒤덜미가 화끈하였다. 사실 이번 도당출장을 떠나기전에 운전사가 갑자기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내가 이 차를 끌고오지 않았는가.

나는 점화스위치를 돌리며 화제를 돌리였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제격 새집을 짓구 이사집두 실어웁시다.》

차거운 대기속에 차를 오래동안 세워두어선지 발동이 쉬이 걸리지 않는다.

《전 아직 일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군 농장들에도 제대군인들이 많이 왔는지요?》

《오긴 왔는데 글썽 휴가를 갔다가 고향에서 색시들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집이 모자라지요. 우선 리농장합숙방들을 통채로 내줬더니 좋아들합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살림집이 문제로구만요.》

《신혼살림때야 방이 좀 좁은들 뭐랍니까. 이 제 해토가 시작되면 살림집건설도 와짜 내밀겠습니다.》

차는 여러번 가쁜숨을 토폴며 움쩍 자리를 뒀다. 이어 차는 크고작은 차들이 어기고 봄비는 번잡한 거리를 따라 유유히 달리였다.

《운전기술은 언제 배웠습니까?》

주성민이 호기심어린 눈길을 나에게 던졌다.

사실 내가 운전사출신이란것을 아는 사람이 별반 없을것이다. 초면에 자신의 경력을 펼쳐보인다는것은 서로의 친근감을 더해주고 빨리 가까와지게 하

는 일이다.

《군대에서 포차를 끌어보았지요.》

《전 전연구분대서 복무했었구 몇해전까지는 부대정치부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군대복무가 오래다 보니 사회생활에 대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많이 배워주십시오.》

바로 저 어깨우에 어제날엔 영예로운 사명감으로 빛나던 오각별이 없혀있었을것이였다. 지금은 그것이 비록 보이진 않아도 얼마나 크낙한 무게가 실려 있는것인가.

차창밖에서는 흰눈이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주성민은 조용히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왜선지 전 책임비서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지난 세월 그와 나는 한전호속의 전우들처럼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배짱이 맞아 손발이 잘 어울렸다.

내가 오늘껏 왕성하게 일할수 있는것도 그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서로의 얼굴표정과 눈빛만 보아도 대뜸 속마음을 헤아리곤 하던 그가 군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군내 전력수요를 풀고 이어 큰 규모의 염소방목지를 꾸리다가 뜻밖에도 현지에서 뇌출혈로 숨을 거두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책임비서동무, 우리 군을 기름진 룡마우에 태올 때까지 쓰러지지 말자고 하더니…)

나는 눈부위가 찌르르 저러났다.

군에 빨리 내려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에 벌려놓은 여러 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할 계획들을 면밀히 짜야 할것이다. 그래서 떠나기 전 전화로 내가 당도할 때까지 부서성원들은 늦게라도 기다리라고 연락을 취했던것이다.

나는 차를 몰면서 또 생각에 잠겼다. 우리한테도 주성민과 같은 제대군관들이 있다. 부기사장, 자재과장 그리고… 군복을 벗은지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군인품성 그대로이다.

차는 교외를 벗어났다. 여기서부터 우리 군까지 2백여리길이 실히 된다.

포장길을 벗어나자 방금전 도시의 온갖 소음이 어디론가 잦아든듯 하였다.

《좀 출출하구만요. 아침밥을 설쳤더니…》

《아, 그래요.… 내게 뭐 좀 요기할게 있습니다.》

주성민은 기다린듯이 반색하며 뒤좌석에 놓인 배낭하나를 끄당겨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평양에서 내려올 때 꾸러가지고온 도중식사가 좀 남은게로군.…)

나는 속이 쿵쿵하여 슬며시 결눈질을 하다가 그만 놀랐다. 그의 배낭속에서 하다못해 건빵이라도 나질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검붉은색의 대추 한줄이 나졌다. 나는 그 토색질은 과일을 보자 허거뜰 웃음이 절로 나왔다.

《책임비서동문 과일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나의 말에 책임비서는 싱긋 웃었다.

《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이젠 우리 고향마을에서 살다가 평양 아들집으로 올라온 할아버지 한분이 자기 집마당에 심은 나무에서 탄것이라며 맛보라기에 별생각없이 배낭에 넣고 온것인데… 경영위원장동문 과일을 덜 좋아하는게지요?》

나는 고개를 기웃했다.

《글쎄요.》

나의 애매한 대답에 책임비서는 빙그레 웃었다.

《제 고향에서 난 물건이 돼서 그런지 내겐 여간 맛있게 생각되지 않더군요.》

《예-》

나는 뜻모를 대답을 길게 끌며 실눈을 지었다.

저 멀리 뿌연 운무속에 잠긴 산발들이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그 산발가운데 봉밀에 나의 고향마을이 있다. 이따금 출장길에 지나곤 하는 마을이다.

《책임비서동문 고향이 어딴니까?》

《광천리라고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광천리라면 내가 살던 영평땅에서 두 고개만 넘으면 닿을수 있는 곳이다.

고향소리가 나오자 주성민의 얼굴은 느닷없이 화기가 감돌았다.

《위원장동진요?》

《저 멀리 산기슭이 내 살던 고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잊지 못할 곳이구만요.》

《그렇지요. 일에 쫓기다나니 자주 들리지 못해와서…》

나는 이 영평리의 모래땅을 밟아본지가 퍼그나 오랬다.

흰눈이 덮인 무연한 들판이 소리없이 흘러갔다. 강냉이그루터기들만 뽕뽕뽕뽕 눈우에 남았다.

얼음진 늪기슭을 따라 차는 계속 달렸다.

나의 옛 시절의 성장과 결부되어있는 그 빈포늘은 터갈라진 밭이랑에 물을 대는 유일한 생명수였고 어릴적 우리에게 놀이터였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산촌에 생겨난 그 늪가에 여름철이면 짙은 해갈내가 건들바람에 실려오곤 하였다. 밭가숭이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어 해빛이 부서지는 푸르른 수면우에 까딱않고 떠있는 물새를 향해 살금살금 헤엄쳐간다. 그 물새는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한듯 그자리에 있었다. 바투 다가가 물밑에서 치솟으며 팔을 뻗치려는 순간 물새는 푸드득 깃을 치며 상공으로 날아오른다.

지금은 그우에 갈풀같은 가는 마른 수초들이 들성들성 가덕에 보일뿐 사람그림자라곤 얼씬하지 않는다. 추억이란 신비롭게도 어느때에는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어째서 그 고장에 오면 그처럼 생생히 되살아나는걸까. 나는 별스레 마음이 평온해져 천천히 말을 꺼내었다.

《…저 늪을 보니 어릴 때 일이 생각납니다. 이른 봄철이면 참 볼만 했었습니다. 온 동리사람들이 모여들어 잉어를 잡곤 했지요. 겨우내 늪바닥 감탕속

에서 가스가 분출되는데 잉어란 놈이 **그에** 질식해서 떠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느러미가 얼어붙어 움썽달썽 못하고 죽습니다.

한번은 구경삼아 늪에 나가보니 정미소칸 털보령감이 도끼로 얼음을 까고있겠지요. 작은 그의 딸 경순이가 다래끼를 앞에 놓고 오도카니 앉았고… 그 주변에서 어스멍거리려니 내 눈에도 잉어가 보이질 않겠습니까, 얼음겉면에 노르끼레한 기름기가 피어있는데를 까보면 영악없습니다.

무슨 눈이 이리도 지겹게 퍼붓는담!

그래서 나도 어른들처럼 도끼질을 해서 내 손으로 그놈을 잡아보고싶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이 독감으로 앓고있느라였습니다.

나는 그 령감한테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도끼 좀…> 령감은 나의 청을 귀동으로 넘기며 그냥 도끼질이겠지요. <이크, 한놈 잡았다!> 령감은 너무 기뻐 쩡쨍쨍 땀이다. 성수가 났던지 또 한참동안 도끼를 휘두르고난 령감이 맥이 빠져 씹씹거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엉덩이밑에 도끼를 칸채 말ियो.

나는 그의 딸을 보고 슬쩍 결눈질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빠 아까부터 서있어요. 쉬는 동안만 좀…>

령감은 내가 발견한 얼음속 거뭇한것을 슬쩍 훑쳐보고는 <야장집너석이군.> 하며 아닌보살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속심은 모름지기 내가 포기하기만을 바란것이겠지요. 하는 수없이 돌아서 몇걸음 걸던 나는 그만 얼음이 꺼지면서 물에 빠지고말았습니다. 해빙기인데다 령감의 도끼질에 얼음장에 금이 갔던가 봅니다. 나는 어쩔새없이 얼음구멍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동리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있는것이었습니다. <됐구나! 살았구나!> 하며 모두가 기뻐하는데 그들속에는 눈물이 글썽해있는 털보령감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후에 듣자니 그 령감이 찬물속에 뛰어들어 나를 건져주었다더군요. <이 녀석아, 난 네가 물귀신이 될가봐 도끼자루를 손에 쥘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 않구나…> 그의 말이 우스운지 어른들은 물론 조무래기들까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마을이 잉어찜이며 찰수수지짐 등을 해가지고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나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는것 같았다.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자그마한 마을이 너무도 빠르게 휘회 지나갔다. 나는 세월의 년륜에 싸여 아득히 멀어져 간 그 사연이 새삼스레 돌이켜지는데 스스로 놀랐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고향마을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게 그려졌던것이다. …

《고마운분들이군요.》 주성민이 차창밖에 시선을 던진채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군에 가면 무슨 일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진정이 내배인 그 물음에 얼마간 당황하였다.

내가 흥군에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35년… 인제는 우리 군의 유래며 본토배기가 누구인지까지 손금보듯 알고있는 나로서는 새 일군에게 군의 연혁 같은것부터 설명했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현재 군에 벌려놓은 대상건설들, 이를테면 백학천청년발전소 언제쌓기며 군식료공장 기초공사며 토지정리작업정형에 대해 간단간단히 알려주고나서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관건적고리인이 모든 공사를 빨리, 그것도 봄갈이전에 해제쳐야 할 긴장한 전투임을 그루를 박아 덧붙였다. 전 책임비서동무가 작전하고 지휘하던 거창한 건설전투의 규모와 방대성에 대해 늘어놓고나니 어쩐지 열적은 생각이 들었다. 사회생활의 첫 기슭에 선 사람의 눈앞에 너무도 엄청난고 아름찬 현실을 그려보게 한것이나 아닐가.

눈은 그냥 내리고있었다.

《위원장동지, 공사를 빨리 끝내자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습니까?》

《자재와 로력도 문제지만 우리 일군들한테 달렸지요.》 나는 자신에게 힘을 주듯이 말하였다.

《뛰어야지요. 이놈의 눈까지 이렇게 짐작없이 퍼부어대니 참… 공사속도가 눈우의 달구지 걸음을 할게거든요.》

나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뿜었다.

《…》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어느덧 들쭉날쭉한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인 광천리의 오붓한 마을이 멀리 보이었다.

회유스름한 눈발속으로 소발구 한대가 거름을 듬뻍싣고 앞서가고있었다. 허리를 구뭇하니 숙인 체통 큰장년이 얼핏 뒤돌아본다.

차는 어느새 그의 걸을 지나 저만치 달렸다.

별안간 주성민은 불안스레 엉거주춤 하더니 《아니?!… 위원장동지.》 하고 불렀다. 기쁨인지 놀람인지 분간할수 없는 야릇한 빛발이 일순간 번쩍하다 사라졌다. 웬일인가? 혹시 차바퀴밑에!

나는 제동디디개를 꼭 밟았다. 차문을 열고 뒤쪽을 살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어느새 소발구쪽으로 뛰쳐간 주성민의 웨침소리가 들렸다.

《경남동무!》

《아니, 이제 성민동무가 아닌가?!》

《그렇다니까. 예잇, 이렇게… 문득 만나다니…》

두사람은 가슴을 꼭 맞붙였다 떼며 어깨부위를

마구 잡아흔들었다.

《여전하구만. 응!》

《이제 몇해만인가 히야...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배치지로 가는 길이지 저 등군으로 말이네.》

그는 소잔등을 끌어만져 눈을 건어주고 멍에를 바로 메워주고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신선한 공기를 쏘이려고 차에서 내려서던 나는 발등을 덮는 눈속에 바지가랭이가 푹 빠져드는걸 보고 근심에 휩싸였다. 좁체로 밋을줄 모르는 이 폭설에 모든것이 묻혀 버릴것만 같았다. 이런 큰 눈이 계속된다면 불피코 운행길도 막힐것이다.

기관실덜개우의 눈을 대충 털어버리고 차안에 든 나는 경적누르개를 누르려다 굳어지고말았다. 푸근한 대기를 흔드는 소방울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보던 나는 내심 놀랐다. 발구 군은 앞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았는데 주성민이 그 소의 후리고삐를 쥐고 《이라》 하고 걸으며 병싯병싯 웃음짓고 있었던것이다.

나는 간간이 들리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였다.

《생각하나? 어릴 때 우리 둘이 소잔등에 올라타고 저 중촌 개울물을 건느던 때 말이야.》

《그때 소낙비가 온 뒤라 물이 불어 형편없었드랬지.》

《그놈의 검정소가 그날 글썽 센 물살을 헤치며 건느다 다리를 휘친하바람에 우린 둘 다 물속에 텀뽕 떨어졌거던. 엉엉 울면서 기슭으로 기여나와선 패썹스런 소한데 막 돌팔매질을 하했는데 <이녀석들, 새끼뽕 암소를 때리면 어쩐단 말이냐!> 하고 복순이 할아버지가 우릴 쫓아왔겠지.》

《핫하하》

절렁절렁... 소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이 울려온다. 나는 좌석등받이우에 머리를 기대였다. 형언할수 없는 이상야릇한 감회가 조수마냥 조용조용 밀려들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나이든 오늘에도 눈송이를 맞으며 소꿉친구와 머나먼 유년시절을 추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불현듯 망각의 두터운 이끼를 헤집으며 누구인가 뇌리속에 어슴푸레 떠오른다. 나는 그의 모습을 기억속에 되살려 내려고 애썼다.

그것은 몇해전 초봄이였다.

출장준비를 부랴부랴 해가지고 집대문앞에 선 승용차로 향할 때였다.

《저... 위원장동지》 하고 조심스레 부르며 웬 녀인이 걸어왔다. 그날 이른아침부터 내린 보슬비에

녀인은 함초롬히 젖은 희숙한 귀밑머리를 쓸어넘기며 반색을 지었다.

《아니, 이제 누구요. 경순동무가 어떻게?》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뜰안으로 들어섰다.

안해도 마른 수건을 쥐어주며 방안으로 그를 끌었다. 했으나 나를 따라서는 녀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손목시계를 보았다. 손님과 마주하고있을 때 시계에 시선을 옮기는것처럼 실례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레의법절을 따질 경황이 아니였다.

나는 고향사람을 만난 반가움보다 바쁜 출장길때문에 주춤거렸다. 올해농사총화와 다음해 농사준비...

《그런데 무슨 일루 이렇게?...》

《저...》

녀인은 농장관리위원회의 부탁을 받고 《교》 생물농약을 해결 받자고 온것이였다. 그는 빈손으로 찾아온것이 미안스러웠던지 우리 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심을 봄가을남새종자를 보내주겠다는 농장일군의 말을 덧달았다.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동지...》

그 목소리는 친근한 사람한테 청원하듯 부드러웠다.

《<교> 생물농약이라. 조런치 앓구만. 하여튼 닷새후에 오우. 출장 갔다와서 토론헤봅시다.》

나는 그를 《파견원》으로 보낸 그곳 농장일군들의 **처사**에 슬그머니 기분이 흐려졌다.

녀인은 절절한 빛을 담은 얼굴을 수그리더니 머리수건을 꼬깃꼬깃 모아쥐였다.

《뽕!...》 승용차에서 울리는 경적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차안에 나와 동행하는 농업성의 일군이 재촉하고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승용차를 향해 걸음을 내짚으면서 집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따라나서며 신선히 말하였다.

《안됐습니다. 바쁘신데...》

《정 가려면 광천리까지만이라도 내 차를 타고 함께?》

《아, 아니... 전 또 들릴데가 있습니다.》

차는 녀인을 남겨두고 멀어져갔다.

굽인돌이를 지나서 무심결에 피곳 고개를 둘러보니 길가운데 못박힌듯 서있는 녀인의 모습이 보였다. 녀인은 점점 작아지더니 조그만 점으로 되어버렸다.

어째서인지 그후 녀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에는 별로 상기조차 해본적이 없던 일들이

지금 선명하게 떠오르며 웬일인지 마음이 불안하고 죄스러웠다.

소방울소리가 똑 멎었다.

《이 눈길에 안되네. 큰 눈이 오게 되면 저 광주령 고개길이 막힌다는거야 잘 알잖나. 하루밤 쉬게.》

《부임인사를 하구 며칠내루 한번 들리겠네. 하지만 어찌겠나. 술한 일감들이 날 기다리고있으니 빨리 넘어가야겠네.》

주성민은 그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이쪽을 향해 달음치며 소리쳤다. 《수고하라우.》

눈길이 막히기전에 령을 넘으려고 나는 차를 전속으로 몰았다.

길옆의 유치원마당에서 처녀교양원과 눈사람을 만들고있는 조무래기들이며 빠르게 흘러지나는 정든 고향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새겨두려는듯 주성민은 창유리에 바짝 붙어앉았다.

《아, 위원장동지, 저게 온천 박우물입니다.》

푸르청청한 술술이 우겨진 저 멀리 김이 서려오르는 우물터를 가리키며 주성민은 반색하며 말했다.

《일년 내내 더운 물이 솟아오르는 저 온천덕을 톡톡히 보지요... 저 뜨거운 온천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늘 뜨거워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말을 새겨들으며 가속답판을 밟던 나는 광주령에 접어들어 그만 차를 멈춰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구배가 심한데다 낭떠러지가 아찔한 이 구간에서 눈이 쌓여 더는 갈수 없었다.

《도로관리원》 완장을 두른 한 여인이 길에 쌓인 눈을 치고있었다. 령마루로 치달아오르는 눈바람에 가래질한 자리가 메워지곤 하였지만 거기엔 아랑곳없이 그냥 눈을 밀어내고있었다. 나는 눈사태진 이런 구간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눈가래를 든채 돌아서던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가슴은 놀란듯 후드득 뛰었다. 언제인가 나를 찾아 우리 집으로 왔던 경순이라는 여인의 모습과 신통히도 같았기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그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나의 색다른 눈길에 의아함을 금치 못하며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다가 내뒤통을 따라선 주성민을 띄여 보더니 대뜸 탄성을 질렀다

《아니, 성민동무구만.》

눈가래가 털썩 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성민의 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몇해만입니까? 그새 안녕하십니까?》

《나야 여전히. 언제 봐야 성민동문 광천중학교

분교시절의 그 학급장모습 그대로라니까.》

《참 선생님도...》

주성민은 눈언저리가 붉어진채 여인의 두손을 꼭 움켜쥐고있었다. 여인은 성장한 제자의 얼굴을 찬찬히 더듬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상긋이 웃음기를 머금었다.

《또 급한 걸음을 하는걸 보니 중책을 맡은게로군.》

《네... 현대 선생님은 언제부터 도로관리원이 됐습니까?》

《넌로보장을 받으면서 나라에 보탬될 일이 있어야지.》

지난해 우리 령감이 돌아가기전까지 말아보던 길이네.》

《선생님은 오늘도 여전하시군요. 몸을 돌보십시오...》

《난 아무 일 없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들은 내쪽을 향해 돌아섰다.

《흥군경영위원회 위원장동지입니다.》

《흥군이러니?》 여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와 나를 번갈아보았다.

나는 목례를 보내고나서 주성민의 부임소식을 알려주었다.

《저런! 책임비서리니...》 와들 놀란 여인은 황황히 주성민을 돌아보았다. 어느새 주성민은 저편에서 가래질을 하고있었다.

나는 별안간 마음이 불안해났다.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령길에서 머물거리다가는 오도가도 못하고 밤을 새울수도 있지 않는가. 나는 속이 타들어 안절부절 못하였다.

《위원장동지- 발동을 걸고 천천히 전진해오십시오...》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듯이 주성민의 쾌활한 음성 이 날아왔다.

젊은 책임비서가 저앞에서 부르고있다. 마치 나 이많은 초기복무사관을 부르듯이...

별로 흥떠진 나는 한팔을 허공에 쳐들어 보이고 차에 오르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령길 아래편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니 삼이며 눈가래를 멘 사람들이 이쪽으로 반달음쳐온다.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눈길우에 소발구 군의 재빛털모자가 눈결에 띄었다. 그들은 나를 지나 주성민을 예워쌌다. 반가운 인사말들이 오고갔다. 《이 사람...》 산짐승털가죽으로 만든 목도리를 두른 늙수그레한 사람이 주성민의 팔소매를 잡아흔든다.

《임자가 벌써 군당책임비서라니... 우리 마을에서 자라 군대로 나가던 일 그리고 입대하여 처음으로 찍은 영예사진을 장군님께서 보내주시여 온 동네가 법석 끓던 일이 눈에 선하구만...》

참, 임자는 군관이 되어서도, 일군이 되어서도 우리 마을을 잊지 않았지...》

《원 형님두, 새삼스레... 아, 이제야 군당책임비서인데 쑥스럽게스리...》

옆에서 누군가 통을 주려 했으나 로인은 막무가내였다.

《수염이 석자라도 좋은 소리는 계속 들어도 싫지 않은거야.》

로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중년사나이가 주성민을 덥석 안았다.

《나하고 씨름 한판 겨뤄보세. 아이때처럼 말이네. 하하...》

주성민은 하늘에 대고 큰소리로 웃으며 검은 테안경을 낀 그의 가슴팍을 가볍게 내질렀다.

《그 익살은 여전히하군. 그래 철삼이 아직도 농장 축산기사로 일하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돼지하구 씨름하지.》

결에서 터치는 폭소가 가라앉자 주성민의 중학교 시절의 담임선생이 무척 아련해 보이는 한 녀인을 앞으로 이끈다.

《성민동무, 복순이예요. 동무와 한 책상에 앉아 공부한...》

성민은 두눈을 습벅이며 서너명의 조무래기들이 매달린 녀인을 여겨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복순동무!》

《성민동무, 축하해요.》

녀인은 숫처운 웃음을 지으며 성민이앞으로 다가섰다. 성민은 한무릎을 꿇고 앉으며 녀인의 몸에 조롱조롱 붙어다니는 사내애들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너희들이구나. 복순동무, 그간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니 정말 수고 많겠소.》

《일없어요. 모두 도와주니까요.》

그때 작달막한 웬 젊은이가 혈레벌떡 달려왔다. 청년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주성민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형님, 정말 오래간만이요.》

뒤켤에 서있던 한 처녀가 청년의 별스러운 인사에 민망한듯 종주먹으로 그의 등을 쳤다.

《철구동무, 무슨 인사가 그래요. 책임비서동지보구.》

그러거나 말거나 청년은 스키모를 벗어 손에 들며 처녀에게 눈을 흘겼다.

《성민형님이 큰 간부가 됐지만 이 철구한테는 언제나 형님이요. 그렇지요.》

주성민은 너스레가 여간 아닌 청년의 어깨를 꺼안으며 응수했다.

《아, 그렇지 않구.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철구하고 산에 산토끼옹노를 놓으려 가던 일이 못견디게 생각나던걸...》

성민의 키질에 사기가 돋은 청년은 자못 위엄스런 표정을 짓고 한수 더 뜬다.

《어험, 성민형님은 우리 산골마을의 자랑이여늘. 여봐라- 빨리 길을 열어 먼 길가는 형님을 바래올 지어다.》

어느 동화극의 대사같은 말을 서툴게 흉내내는 통에 아까 그 로인이 청년의 엉덩이를 철썩 갈겨댄다.

《이 녀석, 축사경비는 어따 뽕개치구 여기 와서 웬 노죽이나.》

《חתחת》

그들은 들바람에 가뭇가뭇해진 얼굴들에 함박웃음을 담고 크게 웃어댔다.

《이 사람 책임비서...》

로인은 자기 털목도리를 벗어 주성민의 목덜미를 감싸주며 떠듬거렸다.

《손이 몹시 차구만. 이러다 감기라도 들면 어쩔려구. 우리 장군님의 뜻을 제일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자네가 앓으면 안되네... 이제 가면 자네 할 일이 여복이나 많을텐가. 어서 차에 오르게. 길은 걱정말구.아무래도 우리가 할 일인데...》

《아버님, 고맙습니다.》

주성민의 감심어린 표정을 보는 순간 나도 부지중 눈시울이 달아올라 지그시 눈을 감았다.

나에게도 저처럼 인정 많고 다정한 이웃들이 있었다.

《야장집》 아들이 혼장을 가슴에 달고 온다며 저녁노을에 물들여진 번포늪기슭을 따라 나를 향해 손저으며 달려오던 고향사람들...

바로 그들이 좁전에 지나온 길에서 멀지 않게 있지 않았는가.

이윽고 사람들이 주성민을 차안으로 떠밀었다.

그와 함께 자그마한 보꾸레미가 차안으로 들어온다.

《맛이나 보세요. 우리 고장 감으로 만든 껏감이예요.》

속삭임 비슷한 쟁쟁한 목소리가 날아든다.

복순이라 부르는 녀인의 음성이다.

마을사람들이 내여주는 길을 따라 차는 앞으로

달렸다. 골짜기를 벗어나 평퍼짐한 둔덕길에 나섰다. 사람들속에 《도로관리원》 완장을 낀 녀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안겨왔다. 그러자 내 고향마을 녀인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우릴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던 목소리가 고막을 찡-하니 울려주는것 같다.

그가 다시 찾아오지 않은것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던 어제날의 일이 후회되었다.

여전히 령길에 나선 사람들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며 오래도록 서있다. 후사경을 통해 그 모습들을 바라보느라니 속깊은 죄책감이 슬며시 머리를 든다. 어찌하여 그때 나는 모처럼 먼길을 찾아온 고향손님을 나그네처럼 대하고말았는가.

내가 들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맞고 보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뽕혹스러운 일일 것인가.

조향륜을 잡은 손에 점점 맥이 풀리고 머리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차안의 공기가 희박해진듯 답답하여 견딜수가 없었다.

마지막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나는 긴장을 풀며 차를 세웠다.

《고장입니까?》 주성민은 놀란 눈길로 내쪽을 보는 것이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차가 어지간히 베차하는것 같습니다.》

나는 기관덮개를 젖혀놓은채 짐짓 피대를 눌러보고 뽕각기에 손을 얹었다.

그와 나는 광천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둔덕위에 나란히 섰다. 눈발이 어느 정도 성글어진듯 싶었고 사위는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멀리 산자락의 오붓한 집집들에선 저녁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주성민은 유정한 산촌의 저녁풍경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둘러보고있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녀을 함께 키우고 인생의 귀중한 영양소를 부어준 사람들이 친혈육처럼 뜨겁게만 안겨줍니다.… 내가 병사생활을 하던 어느해 겨울 오늘처럼 함박눈이 내리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날 우리 전원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우리 중대 병실에 들어서실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언제 입대하였는가, 고향은 어딘가 일일이 물어주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앞에 이르셨을 때 걱정이 북받쳐 인사말도 변변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학습장과 일기장을 보시다가 글썽 그 갈피

속에서 사진 한장이 나졌습니다.

첫 군공메달을 받은 날 찍은 사진이지만 송구스럽기만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저를 대견히 바라보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첫 군공을 세운 소식을 아직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랑 왜 알리지 않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량부모를 잃고 고향도 아닌 광천리의 먼 친척집에 와서 얹혀살던 홀몸이나 다름없는 저로서는 편지를 보낼데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를 눈여겨보시다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것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전사동무, 동문 뛰놀며 자란 산천과 송아지동무들과 이웃들은 생각해봤소? 부모없이 외지에서 온 동무를 베풀주고 기쁨과 웃음을 함께 나누는사람들, 저 땅과 같이 것처럼 평범하고 수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잊어선 안되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과 깊은 애정이 이 가슴속에 꿰고있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병사, 참된 인간이 될수 없는거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광천리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라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전 걱정을 터뜨렸습니다. 잊을번 한 추억을 되찾아주시고 그들과 내 삶을 이어놓으신 은인의 품이 고마와 뜨거움을 삼키고 삼켰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떠나가신 그날 초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초소로 떠나던 나를 배려주며 배낭안에 저마끔 무엇인가 꽂겨넣어주던 모습들이 떠올라 마을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주성민은 두손에 눈을 한옹큼 집어들어 얼굴을 문지르며 천진스런 미소를 머금었다.

《!…》

나는 왜 그런지 울렁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잊을수 없는 번포늬, 흰 구름송이며 산그림자를 푸른 수면우에 비껴담은 그 늬가로 되돌아 가보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예대로 있는 그 늬기슭에 철부지 시절처럼 발가송이몸으로 텀벙 뛰어들어 물장구치며 놀았으면. 수염이 더부룩한 털보령감이며 파아란 봄하늘아래 덩굴넋 소꿉친구들이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영평리의 그 들에서 그들은 오늘도 땅을 걸구며 곡식을 키울것이다.

푸접없이 둘러보낸적이 있는 그 녀인에게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빌고싶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 될수 있게 힘껏 일하고싶은 의욕을 뿌듯이 느끼었다.

《위원장동지, 차 기관상태가 혹시?...》
 나는 기관덮개를 덮으며 웃었다.
 《기관은 정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고개마루에서 한숨 돌렸으니 더 잘 달릴것입니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눈부위가 뜨끔해났다.
 《책임비서동무, 오늘 눈이 참 많이도 잘 왔습니다.》
 내 눈앞에는 흰눈이 두툼히 덮였을 우리 군의 들판들이 언줄언줄 지나갔다. 내 마음을 엿본듯 책임비서는 빙그레 웃음짓는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정열에 넘친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그가 뛰어다닐 발전소건설장이며 토지정리전투장, 군식료공장건설장이며 살림집건설장들과 군내의 크고작은 농장들과 공장들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의 더운 숨결이 미치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펼쳐나선 군내 인민들의 힘찬 투쟁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번질것이다.
 《빨리 갑시다. 군에선 지금 우릴 기다릴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벌써요?》
 초저녁의 옅은 어둠속으로 쪽 내비치는 전조등빛 속에 은빛눈가루들이 무수히 반짝거렸다.
 《위원장동무, 가던 길에 발전소건설장에 들려갑시다.》
 《?》
 《청년돌격대친구들한테 필요될가 해서 뭘 좀 넣었는데...》
 나는 뒤좌석에 놓인 배낭속에 든것이 피땀 떠올랐다. 통장갑... 축구공... 그리고 여러문권 잘되는 소설편...
 (원 사람두!...)
 나는 그를 힘껏 포옹하고싶은 충동을 누르며 조향륜을 짊어잡았다. 속으로 뇌었다.
 (주성민동지, 당신은 벌써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상식

민속음식 쉬움떡

쉬움떡은 우리 민족의 오랜 민속음식이다.
 《동국세시기》, 《규합총서》, 《시의방》 등 여러 역사기록들에는 쉬움떡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있다.
 쉬움떡은 일명 증편이라고도 불리워 왔는데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흰쌀을 불구어 가루를 낸다. 그 가루를 익반죽하고 거기에 술(혹은 탁주)을 섞은 다음 30℃정도의 물을 두고 숟가락으로 떠내여 겨우 흘러내릴 정도로 묽게 반죽한다. 이것을 30℃에서 7~8시간 발효시킨 다음 사탕가루와 증조를 물에 풀어 섞고 골고루 짓는다. 떡반죽이 피어오르면 시루에 떡보를 펴고 고명을 한 다음 김에 찌서 익힌다. 그다음 떡을 보기 좋게 썰어서 기름에 발라 담아낸다.

쉬움떡에는 그 모양에 따라 편증편, 방울증편이 있다.
 쉬움떡에서 고명은 떡맛을 돋구어주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고명이란 음식의 맛과 모양, 색깔을 돋구기 위하여 음식위에 덧놓거나 뿌려놓는 가공부재료이다.
 쉬움떡은 독특한 향기와 색깔, 맛을 내는 대추, 꽃감, 돌버섯 등의 고명을 놓아 찌냄으로써 떡이 먹음직스럽고 맛도 좋다. 쉬움떡은 쌀가루반죽을 삭혀서 부풀게 찌낸 떡이기때문에 씹는 맛이 매우 부드럽고 여름철에도 쉬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쉬움떡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민속음식으로 되고있다.

전호가의 꽃

민성숙

또 하루 새날이 밝아왔다.

서둘러 출근길에 오른 나의 마음은 교단에 처음 서던 그때처럼 마냥 설레었다.

그것은 이 아침에 선군시대의 미래를 가꾸는 보람찬 나의 교단이 있고 기다려지는 졸업생들의 초소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과 군대에 나간 졸업생들의 림름한 모습을 엿갈려 그려보며 학교길을 다그쳤다.

바쁜 걸음으로 교문에 들어서니 수학교원이 기다렸다는듯 한통의 군대에서 온 편지를 내놓는 것이다.

절로 즐거워지는 기분으로 편지를 펼치니 한송이의 들꽃이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얀 종이위에 식물표본인양 납작하게 붙여 놓은 들꽃옆에는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방금 피어나려하는듯 한 한송이의 들꽃!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이것 봐요, 꽃편지.》

《아, 초소의 향기가 그대로 풍기는것 같군요.》

《아마 전호가에 피었던 꽃이 아닐까요?》

꽃편지는 모든 교원들의 끝없는 감동을 자아내며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갔다.

전호가의 꽃!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무심히 대할수 없는 꽃이었다.

아마도 전호가에 조용히 피어나 병사에게 그리운 고향의 다정한 이웃들과 잊지 못할 모교의 모든것을 추억해준 꽃이 아닌지...

초병과 함께 근무의 긴긴밤을 지새우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속삭였을 전호가의 꽃.

그 꽃일수 있으리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초소에 오셨던 그날 병사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꽃잎에 담고 방울방울 이슬에 젖던 그 꽃이...

총천 병사의 공지가 안겨오는 들꽃.

그 꽃을 어찌 화려한 꽃다발에 비길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병사의 모습이 어려오는 꽃을 보니 문득 며칠전 초

소에서 온 또 한통의 편지가 떠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멀고 험한 철령을 넘으시며 부대에 찾아오신 날 전사는 영광스럽게도 직일병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직일병의 씩씩한 영접보고를 받으시며 이름은 무엇인가, 군대는 언제 입대하였으며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가, 학교에는 편지를 보내는가 친어버이심정으로 다정히 물으시고 옷매무시도 바로잡아주시며 못내 대견해하시었다.

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사들의 잠자리도 더듬어보시며 몸소 앉으시여 이름표를 보시다가 이자리는 지금 직일병의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병사의 자리구만 하시며 이름까지 친근하게 거듭 불러보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떠나실 때에는 훈련을 더 잘하라고, 전사들과 약속도 해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전사는 그 감격을 적은 편지를 제일 먼저 모교에 보내었다. 기념사진 두번째 줄 네번째 키 큰 병사가 바로 자기라고 꼭 신문을 보아달라고 공지에 넘쳐 편지를 썼다.

어찌 그 병사뿐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내주시었다는 이야기, 화면음악기재들을 보내주시고 조종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며 오랜 시간을 병사들과 함께 계시었다는 이야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지에 오르시자 지꽃게 내리던 비도 멎고 청청한 하늘에 무지개가 비끼여 신비경을 펼쳤다는 이야기...

하많은 이야기를 전하여주는 들꽃송이.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병사들이 지켜선 초소의 산마루에 피어난 들꽃송이.

고향과 정든 모교, 다정한 부모형제들과 이웃들, 친구들과 스승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병사의 가슴에 불러 일으키는 꽃...

보면 볼수록 끝없는 사랑과 정을 느끼게 하고 깊은 사색을 불러주는 꽃이다.

이 나라 산과 들, 어디에나 피여있는 수수하고 평범한 꽃이지만 우리 장군님 못잊어 찾고 찾으시는 병사들이 있는 초소에 피어난 꽃이어서 이 세상 가

장 진귀한 꽃처럼 나의 가슴에 안겨진다. 어찌 안그러랴.

자기를 따뜻한 사랑의 한푼에 안아 키워주시고 병사로 내세워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으로 보답할 맹세로 병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전호가의 꽃.

나서자란 고향과 부모형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열렬한 조국애로 가슴뜨겁게 달구어주는 전호가의 꽃...

나에게는 그 꽃이 단순히 자연의 꽃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스승과 모교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병사의 인사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가고 가자는 병사의 부탁으로 안겨진다.

나는 학생들에게 복무의 푸른 꿈을 키워주는 《초소에서 보내온 소식》 판에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보다 무성해질 전호가의 꽃들을 그려보며 새로운 신심을 안고 교단으로 향했다.

총대와 붓대

리일섭

나는 제대군관
그 시절을 못잊어
언제나 그 시절처럼 살고 싶어
붓대를 총대처럼 틀어잡은 시인

가볍지 않노라
내 틀어잡은 이 붓대가
열여덟 작은 어깨에 메였던
그 총대의 무게보다

결코 가볍지 않노라
목숨으로 서약한 군인선서와 함께
총대에 새겨안았던 수호자의 의무
변함없이 이 붓대에 실려있어

장군님 앞서가시는 선군길 따르며
정보로 찍어가는 취재길 자욱자욱
메고가는 가방조차 행군길에 지녔던 배낭인듯
그날의 병사의 의무
오늘도 장구류처럼 두어깨에 무거워

쓰고쓰노라
한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실탄사격장에 나선 사수처럼
원고지우에 한자한자를
결사용위의 총탄으로 채우며

쓰고 또 쓰노라
땀에 걸고 눈비에 젖어도
돌격전에 뛰어든 병사처럼
원고지우에 한자한자를
조국수호의 총창으로 비껴들고

저울에 달아도 천평에 놓아도
조금도 기울지 않는 무게
총대와 붓대에 꼭같이 실린 그 의무
더없이 성스러운 수호자의 사명감이
이 시각도 심장의 더운 피를 끓여

내 오늘도 장군님 가리키시는 목표마다
명중탄만을 안길 백발백중 명사수로
그 어떤 미싸일과 핵탄에도 비기지 못할
사상의 《철갑탄》
붓대에 만탄창하고 화선을 차지했거니

오, 조국이며 인민이며
나에게 명령을 달라
군복은 벗었어도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해 한목숨 다 바칠
병사시절 그 맹세 변함없는 종군시인
나는 결코 이 붓대를 가볍게 잡지 않았노라

철령의 철쭉꽃

최정옥

아슬한 철령
굽이마다 고개마다
기슭에도 벼랑기슭에
피어웃는 철쭉꽃

오시는 걸음걸음
가시는 자욱자욱
장군님을 반기며 곱게 뿔구나
만산에 활짝 피어난 철쭉꽃을 보시며
우리 장군님 하신 그 말씀
-올해엔
철령의 철쭉꽃이 매일씩 뿔구만...

아, 우리 장군님
오실줄 알아, 오시는줄 알아
철을 당겨
바위처럼 절벽에도 불이 붙는듯
빨강게 타오르던 철령의 철쭉꽃

너없이야 어떻게
내 나라에 펼쳐진 선군길을 말하랴
너없이야 어떻게
이 땅우에 꽃피난 강성대국의 봄을
오늘에 노래할수 있으랴

너는 우리 장군님

고난의 날
이 령을 넘으실 때에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일
희망의 밝은 빛을 안겨준 꽃송이
항일의 녀장군 모습, 빨찌산 어머니의 당부를
설레이는 꽃잎마다 고이 담고서
장군님의 선군길을 축복해준 꽃송이

준엄했던 혁명의 날과 달들이
장군님 뜨거우신 심중의 추억이
네 향기에 소중히 실리어있어
너는 선군시대에 태어난
아름다운 꽃

그때문이 아니라
봄맞은 철령의 기슭을 덮으며
장군님을 반기며 따라서는 네 모습
선군으로 복받은 인민의 마음속에
천하절경 자랑으로 붉게 붉게 꽃핀 그것은...

아, 철령의 철쭉꽃
정녕 네가 아니더냐
최후승리의 그날
력사의 광풍을 총대로 헤치신 우리 장군님께
조국이, 인민이 삼가 드릴
오, 선군의 꽃이어

땅이여, 고향이여

신동필

땅이여
그냥은 무심히 가꿀수 없는 고향이여
가꾸기전에 먼저
너를 지키고 돌아온
나는 그대의 아들

지키지 않고서는 가꿀수도 없기에
어깨에 총메고
산과 강들을 누벼갔다
가꾸기 위한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를
자욱마다 새겨왔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말았던 전호의 한구간
그것은 너의 땅과 이어져있어 소중한였고
이름모를 행군길 한치한치도
너의 포전길에 닿아있어 정답지 않았더나

청춘을 바쳐 너를 지키고 돌아온 아들
너를 가꾸어 걷는 이 들길이
오늘은 또 그날의 행군길의 계속이고
가꾸는 이랑마다에 흐르는 정도
가슴 맞대었던 전호의 그 숨결 같구나

땀에 젖어 칼벼랑도 날아넘어온
그 길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물길에 이렇듯 사랑스러울수 있으랴
겨울이나 여름이나

땅을 그려안고 지새운 낮과 밤이 아니라면
이랑 하나 포기 하나에 쏟는 땀방울들
이렇듯 뜨거울수 있으랴

오, 지키기 위해 바친 그만큼
가꿀수 있고 사랑할수 있는 땅이여
지키지 않고서는 가꿀수 없고
가꾸는 땅이기에 목숨처럼 귀중한 고향
그대에게
지키고 가꾸는 길이 따로 있는것 아니구나

그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그대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을
총을 잡고 배운 그대의 아들
지켜낸 청춘을 가꾸는 생으로 빛내이며
가꾸는것으로 그대를 지키며
그대의 주인으로 한생을 바치리
아, 나의 땅 나의 고향이여

전사는 웃고있다

-전승기념탑의 한 인민군전사 조각군상앞에서-

주성일

미제사단장놈을 생포한 그 통쾌함
하도 크고 끝이 없어서
50년세월넘어 오늘까지도
전사는 웃고있는가

《상승사단》의 상징인양
장성별을 두개나 새긴
사단장 띠의 철갑모 지그시 눌러딘고
멀시에 찬 눈길로 굽어보며
바위우에 척 걸러앉아
웃고있는 전사여

아직은 견장에 줄하나 없는 전사
네 군화밑에 밝힌것은
미제 편사단장놈만이라
수백년 침략의 《전송》을 자랑하던
미국이

네 발밑에서 허우적거리고있거니

생각케 하는구나
하늘로 날아들던 《이씨-121》
바다로 기여들던 《푸에블로》호
덤벼들적마다 통쾌하게 짓뭇개버린
자랑찬 승리의 나날들을

오늘도 《유일초대국》의 거드름 피우며
핵무기를 휘둘러 우리를 위협하는 미제
접어만 들면, 감히 덤벼만 들면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들은
무적의 보검 선군의 총대로
최후의 죽음을 주리라는 그 신심
우리의 가슴가슴 벅차게 새겨주며
아, 전사는 웃고있다!

병사가 안고산 당부

김호석

총창우에
별빛이 내려앉는 밤
이슬돋는 전호가에서
병사는
선생님의 당부를 생각한다
-영웅이 되어 돌아오세요

군복입고 모교를 찾은 그날에
교정에 세워진
영웅의 반신상 앞에서
조국애의 참뜻을 심어주며
뜨겁게 하던 그 당부

군공을 펼쳐가는 복무의 날에
순간도 잊은적 없노라
칼벼랑을 뚫어도 깊은 강을 건너도
그 당부 안고산 행군길 훈련길 우엔
위훈의 날개만이 퍼덕이었거니

아, 총대를 틀어잡은 병사
모교를 생각할 때면
그 당부 날마다 마음속에 울려와
이 밤도 그려보는 해빛밝은 교실
지켜선 조국이 한없이 소중하구나

병사는 다시금 새겨안는다
나서자란 고향과 어머니조국에
피와 땀을 아끼지 말라는 그 당부
그 품 위해 바친 청춘은
가장 아름다운 한생을 산다는 그 목소리
-영웅이 되어 돌아오세요

심장이 끊고 온몸이 불탄다
선생님의 그 당부 되새겨볼 때면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총폭탄신념이 더 굳세지고
멸적의 용맹이 온몸에 솟구치나니

전호가에 더 크게 더 높이 울리라
초소의 어디서나 울리어오라
탄창속의 탄알처럼 그 당부 언제나
병사와 함께 있으리

기다려다오
들국화언덕우에 활짝 피는 내 고향아
백양나무 잎새 반겨주는 마을길 지나
병사가 영웅이 되어 다시 찾을 모교여
그날에도 축복으로 들려다오 선생님의 그 당부
내 군복입고 떠나던 그날처럼 그날처럼...

고향이여!

김정삼

멀리 북방의 철의 도시 떠나
대학생되어 수도에 올라온지도 그 몇해
새사람들과 낯익히던 그 나날들에
사귄 정 더욱더 깊어지던 그 나날들에
종종 듣게 되더라
-고향이 어디요?

아, 불려만 봐도 가슴찌릿해오는 그 부름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 찾아오셨던 장군님께
쇠물로 힘을 드린 영광의 교장

이 시각도 역센 사람들의 숨결안고
거세차게 타오를 용광로의 불길이어
보여오더라 용해장에 대학생이 났다고
쇠소리나는 글을 팡팡 쓰라며
굳게 손잡아주던 미더운 작업반원들
기적소리 울리는 역구내에서
점도록 바래주시던 나의 어머니
정답게 손 흔들어주던 스승의 모습...

마치 나를 통해
 그 정깊은 사람들을 보고있는듯
 쇠물고장 후더운 인심을 보는듯
 인생의 신들메를 조여준 그 넋을 보는듯
 아 천리 먼 이곳 새 사람들속에서
 나는 고향을 비쳐보이는 하나의 거울인듯

그날엔 미처 몰랐구나
 고향을 떠난 그 시각부터
 나는 결코 혼자몸이 아니였다는것을
 선군의 무쇠기둥으로 자랑높이 살고있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이 얼굴로 대신하며
 소중한 그 지명을 내 이름속에 비껴담고
 인생의 새 렬차에 올랐다는것을

하기에 때로 작은 성과라도 거둔 날엔
 동무들과 대동강반의 잔디밭우에서
 고향이야기 하기가 별스레 즐거웠더라

때로 가슴저미는 자책의 순간이면
 나로 하여 고향의 순결한 모습에
 한점 얼룩이라도 지운듯 싶어
 잠 못이루던 마음 그리도 괴로웠더라

고향은 들고 다닐수 있는 트렁크도 아니며
 품속에 넣고 다닐수 있는 수첩도 아니여라
 허나 수도의 한복판에 달려와
 새사람들속에 둘러싸인 나 자신이
 떠올려진 또 하나의 고향이 아니던가

오, 내 사무치게 느끼노라
 선군의 대지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이
 고향아, 네가 내세운 장한 아들딸들로 하여
 조국의 곳곳마다에서 네 모습은 펼쳐지더라
 그들이 펼쳐가는 삶의 구간, 애국의 구간들로 하여
 벽차도록 너는 넓어지더라
 고향이여 고향이여!

나는 총을 놓을수 없다

박영호

한생을 고동칠 나의 심장처럼
 나는 총을 안고있다
 떨어져 못살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안고있다 나는 이 총을

군기앞에 군인선서 다진 날부터
 나와 숨결을 같이한 이 총
 총잡고 그려보는 고향은
 더없이 소중한게 안겨와
 언제나 놓지 않은 총
 령장없는 군복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에도
 이 총은 내 마음속에 함께 있으리

총을 놓고서야
 순간이나마 그려볼수 있으랴
 솔나무 많아 밤이면 달이 걸린다 하여
 송월리라 부르는 내 고향
 어머니 기다리는 그 품에
 어찌 달려가 안길수 있으랴

포화에 불타던 고지
 흉탄에 더운 피를 적시면서도
 나의 할아버지 놓지 않은 총

군관인 아버지가 한생을 함께 하고
 나 또한 그렇게 운명을 엮고사는 총

달빛에 서슬푸른 총창이 번뜩이는
 전호가에서 내 그려보았다
 진달래 목란꽃 피어나는 송금산
 귀진사기슭을 감돌아 흐르는 내천가에서
 물장구치며 놀던 그 삼돌바위...

행군의 실참 땀을 들일 때에도
 총을 안고 내 잊지 못했다
 모교에 영웅되어 돌아오라며
 목달개 하얀 군복깃 여며주던 선생님
 군용렬차 차창가에 꽃뭉을 뿌려주던
 한책상 너동무의 얼굴도...

총이여 사랑하는 나의 총이여
 꿈결에도 그리운 우리 장군님
 험준한 최전연고지들을 찾으시여
 병사들의 가슴마다 뜨겁게 안겨준
 은빛자동보총이여
 내 이 총을 놓고
 어찌 안아볼수 있으랴

어릴적 추억깊은 그 물소리
종다리 우짖는 푸른 들에서
벼포기를 가꾸며 밝게 웃을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병사가 비껴든 이 총대우에
내 나서 자란 정든 고향이 있고
병사가 틀어잡은 이 총대아래
내 조국의 행복한 생활이 있나니

아, 총! 이 총을 놓고

찾아갈 고향집이 나에겐 없어라
총은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을 떠받든 기둥
이 집을 잘 받들라 초소로 나를 떠밀어준
내 어머니 축복이 이 총대에 있어라

나는 총을 놓을수 없다
한생을 고동칠 나의 심장처럼
떨어져 못살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나는 이 총을 안고
조국의 영원한 병사로 살리라!

코 무덤

-중앙계급교양관 전시대앞에서-

하복철

코무덤
내 지금껏
들어본적이 없는 말이다
두툼한 사전의 어느 갈피에도
올라있지 않는 말이다

이제는 아득히 흘러간 임진년
이 땅에 기여들었던 섬나라 사무라이들
악으로 빚어진 제나라 땅에
버젓이 만들어놓은 코무덤
세상 그 어디에도 일찌기 없었던
조선사람의 코무덤

민기조차 어렵구나
백명도 아니고 천명도 아닌
수십만명
그 무고한 우리 선조들을 마구 죽이고
인간도살을 표창받을 증거물로
코와 귀를 베어간 야수의 무리들

저렇게 만들어놓았구나
력사의 자랑거리나 되는듯
그 무슨 기념비마냥
꺼리낌없이 세워놓은
섬나라 짐승의 무리들

오, 이가 갈린다

온몸이 증오의 분노로 끓어번진다
하늘아, 어찌 이런 야수들에게
너의 한폭을 그냥 펼칠수 있단 말인가
바다여, 어찌 이런 죄많은 땅을
너의 한가운데 그냥 뒤둘수 있단 말이나

내 뼈에 저리도록 절감하노라
일제는 조선인민의 백년속적
만대가 흐른대도
한하늘 이고 못살 칠천지 원썩임
저 사진속의 코무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있거니

툭-툭
병사의 이 가슴 터질듯 높편다
침략의 야망을 품고
옛꿈을 되살려
오랑캐들 또다시 덤벼든다면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리라

흘러온 세월과 함께 쌓이고쌓여온
그 모든 세대들의 복수를 합쳐
악마의 소굴을
천길만길 바다속에 수장해버리리라
다시는 저주로운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고구려화가 담징

일본 법륭사의 금당에 그린 벽화는 우리 나라 경주석굴암, 중국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 3대미술품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벽화는 동방미술사는 물론 세계미술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으로서 일본회화사의 첫째 페이지를 장식한 역사적인 예술품이다.

이 걸출한 미술작품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 전 고구려화가 담징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동양 3대미술품중에서 경주석굴암과 법륭사벽화 두가지가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수 없다.

모두 12개의 벽면으로 된 금당의 벽화 《사불정토도》는 담징이 그린 작품인데 그중 특히 우수한 것은 제6호벽의 《아미타여래상》과 제2호벽의 《일광보살상》이다.

이 그림들은 그린 때로부터 천여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세계적인 보물로, 만고의 미술품의 하나로 여겨왔었다. 그러다가 1949년 1월 26일 법륭사가 불탈 때 이 벽화도 소실되었다.

1968년에 일본의 수많은 일류급화가들이 원상대로 복구한 법륭사 금당벽에 벽화를 다시 그리기는 했지만 원화보다 못하다는것을 그들자신도 인정하고있다.

그러면 그토록 훌륭하고 걸출한 미술작품은 어떻게 그려졌는가...

지금으로부터 근 1,400년전인 고구려 영양왕 21년(610년) 3월에 고구려의 화가이며 중인 담징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있었다.

순풍이었다.

돛은 바람을 타고 배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밀어간다.

하염없이 늘실거리는 물결 저쪽으로 벌어지는 고국산천, 겨레의 땅을 바라보는 담징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그들이 질게 어려있었다.

담징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는 승려인 법정은 바다바람에 펄럭이는 가사(중의 겉옷) 자락을 여미며 까딱도 않고 갑판우에 서있는 담징의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30대의 장정, 흰칠한 얼굴과 사나이다운 골격 비록 머리를 깎고 몸에는 가사를 걸치였으나 고구려 사람의 그 장하고 도도한 기상이 그의 온몸에서 풍

겨나오고있었다.

팔목에 감은 넘주와 손에 든 목탁을 버리고 장검을 비껴들고 철갑의 준마에 높이 앉아 드넓은 광야를 줄달음친 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놀래울 장수로 되었을 담징이었다.

그러한 헌헌장부였기에 고국을 떠나 한조각의 돛배에 몸을 의지하여 일본땅으로 가는 그의 마음은 맑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외적이 수백만 군사를 모아 땅과 바다로 고구려를 다시 들이치리라는 흉흉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있는 때에 사랑하는 고구려의 아름다운 강토와 귀중한 그 겨레들을 위하여 성돌 하나 메나르지 못하고 떠나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평생에 열망하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자기의 처지가 원통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수가 없었다.

왜국의 거듭되는 초청은 수락되었고 몸은 이미 배에 오른것이다. 마음속엔 회오리바람이 일었으나 바다바람은 순풍이 었다.

3월의 봄별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물결을 늘실늘실 가르며 배는 살같이 일본땅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일본땅에 배를 대이자 법륭사 주지를 비롯한 관리들이 나와서 담징을 나라(지명)로 인도하였다.

낮설은 산천이요 눈설은 사람들이다.

안개속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산발, 키높이 자란 소나무, 그 울창한 숲속에 일본 최대의 사원건축물인 《법륭사》가 자리잡고있었다.

법륭사!

이 호화롭고 화려한 대불당이 담징으로 하여금 수천리길을 헤치고 이곳으로 오게 한것이다.

법륭사가 이곳 나라에 일떠선것은 일본 추고천왕(스이교) 15년(607년)이었다.

당시는 일본의 너왕인 추고천왕의 사위 성덕태자가 섭정으로 일본을 다스리던 시기였다.

성덕태자는 우리 나라(고구려, 신라, 백제)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여러 부문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보급하게

되었다.

바로 법룡사도 607년에 백제에서 건너간 사원건축미술가들의 집단에 의하여 8년동안 건설한 일본 최대의 사원이었다.

그런만큼 법룡사는 건축양식이 백제의 7당가람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다.

법룡사는 금당(황금으로 장식한 불당)인 중심불전을 비롯한 5층탑, 중문, 회랑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강당, 서실, 동실, 복실, 고루, 종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큰 가람(절에 달린 집)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금당은 가장 화려하고 예술성의 최고를 이루는 중심건물의 하나였다.

그런만큼 이 금당안팎의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일만은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승려들과 백제건축가들은 한결같이 불교문화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고 또 백제와 신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불교를 전파시킨 고구려의 유능한 예술가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법룡사가 완공되자 일본에서는 유능한 화가를 보내줄것을 고구려에 청탁하여왔던것이다.

담징이 망망한 대해를 건너 일본 법룡사로 온것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담징은 벌써 서른살전에 불교경전에 능통하고 미술은 물론 채색과 종이, 먹제조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유명한 학자, 예술가, 기술자로 인정되었었다.

담징이 일본으로 오게 된것은 그가 겸비한 이러한 학식과 기술과 예술적재능때문이었다.

가을이 깊어가고있었다.

담징이 법룡사에 온지도 어느덧 두해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법룡사의 나무잎은 두번 지고 두번 다시 피었고 이제 세번째 지려고 한다.

주변야산의 키낮은 나무들이 누룩누룩도 해지고 울긋불긋도 해지는것을 바라보는 담징의 마음은 어느덧 먼 북쪽에 두고온 고국, 고구려어로 하염없이 달려가고있었다.

저 대동강기슭의 아름다운 도읍지 평양성, 모란봉과 대성산의 나무잎도 저렇듯 붉게 물들었으리라.

소나무 수림속으로 천천히 저녁노을빛에 스며들고있었다.

감빛노을을 등뒤에 받으며 승려 한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키낮은 짙관목을 헤치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린다.

담징의 깊은 생각을 깨뜨릴 가보아 매우 저어하는 기색이었다.

《오- 법정!》

담징은 걸터앉았던 바위돌에서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법정은 나무가지에 걸린 가사자락을 잡아당기며 겨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여기 계시었구려. 해종일 보이지 않기에...》

법정은 담징의 어두운 얼굴을 근심스럽게 살펴본다.

《대사,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게 아니시오?》

《이 한몸이야 불편한들 무슨 일이 있겠소.》

담징의 눈길은 어느새 숙연한 빛을 띠고 먼 북서쪽으로 향하였다.

법정은 담징의 피로운 마음을 알고도 남았다.

그와 비슷한 심정은 그자신도 체험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도 법정은 왜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금당벽화를 그리겠노라고 약속한지도 1년이가까와오는데 아직도 손에 붓을 들지 못하는 저 담징은 아무래도 수상하다. 승적에도 없는 건달승이 아닌가, 채색이나 종이, 먹 만드는 법은 알지만 그림재간은 없는것이 분명하다...

이런 소리를 벌써 여러번재 들은 법정은 지금 담징에게 이젠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권고하고싶어 찾아온것이였다.

근엄한 표정으로 이윽히 서있던 담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건달승이란 말은 열백번도 듣겠지만 제 나라를 모르는 중이란 말은 죽어도 듣지 못하겠소. 내 나라대 고구려를 위해 서라면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담징임을 대사도 부디 알아주오.》

이 순간 법정은 두해전에 부두가를 떠나는 돛배우에서 가사자락을 날리며 못박힌듯이 서서 북녘을 우러르는 담징의 거룩한 모습이 다시 보이는듯 하였다.

그리고 그 언제인가 그와 함께 고달픈 먼길을 걸을때 들꽃이 활짝 핀 산등성을 넘으며 《우리는 고구려사람이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도 고구려를 위해 믿어야한다. 부처만 알고 제 나라를 모른다면 부처의 종일뿐 고구려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던 담징의 말이 문득 귀가에 울려오는듯 했다.

저러한 담징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법정은 담징과 함께 고구려를 떠난 후 오늘까지 그의 고매한 기풍과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대고구

려의 아들이라는 끝없는 금지와 자부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백제와 신라의 여러 절을 순례하면서 고구려의 웅건한 불교예술의 묘미를 가르쳐주기를 1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승려들과 공인들에게 종지와 채색, 먹 제조법을 배워주고 고구려의 발전된 기술로 왜의 나라에 문화의 밝은 빛을 던져주기를 거의 2년!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적은 일들이 아니었다. 더 우기 얼마전에는 전애라는 기계매돌을 만들어 왜인들을 경탄시키던 일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물의 힘으로 체철로 돌아가며 망질을 하는 전애를 보던 왜인들은 담징을 새로 온 고구려스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과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짧지 않은 나날들을 함께 보내면서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범정은 담징의 뛰어난 재능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몇년이 되어오도록 붓을 들지 못하고 모대기는 담징을 보기가 안타까웠고 잠시나마 왜승들의 뒤소리를 듣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두사람은 어느새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수림속을 벗어나와 범룡사로 향하였다.

뽀- 뽀- 새들이 깃을 찾아 분주히 날아가고 우수수- 저녁바람이 소나무가지를 흔들며 불어지나고 있었다.

그날 밤,

금당앞 찬란한 불당앞에는 불이 밝았다. 금당의 화려한 금빛장식이 너울거리는 불길을 받아 더욱 활활 타오르는듯 하는데 곳곳에서 왜승들의 목탁소리와 불경읽는 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온다.

담징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결엔가 잠결인듯도 하고 현실인듯도 한 꿈의 세계에 파묻혀들어갔다.

왜승들이 담징을 무섭게 쫓아오고있다.

검은 장삼자락을 독수리날개처럼 펄럭거리며 달려드는 왜승들의 눈자위에는 살기가 어리고 입에서는 짐승의 소리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온다.

《화공으로 가장한 건달패!》

《승적에도 없는 거지중!》

담징은 온몸이 격분으로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그러나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발광하는 왜승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금당안팎의 벽면을 바를 때부터 보아왔지만 압두고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었다. 《모래에 수사(풀이름)를 섞어 바르거라.》 하면 그저 허리를 갑작거리며 《하이, 하이》 했고 《아마와 풀을 섞

어 바르거라.》, 《백토를 칠하거라》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일러주어야 할바를 알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어느틈에 그 강한 시기심과 야비하고 경박한 본심을 감출수 없어 이렇게 야료를 부리는 무리를 눈아래 굽어보는 담징의 마음속에서는 울분과 수치의 세찬 물결이 굽이치고있었다.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솟고 가슴이 저리고 숨이막혔다....

악몽에서 깨어난 담징은 밖으로 나왔다. 아직도 곳곳에서 등불이 너울거리고 왜승들의 목탁소리와 불경읽는 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온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빛나고있었다.

북녘하늘에서 유독 빛나는 밝은 별, 꿈결에도 잊지못하던 북극성! 그 별이였다.

저 별빛아래서 대고구려의 광대한 령토가 몸부림치며 침략자를 맞받아 일어섰으리라. 아, 부디 승전고를 울려주소서.

이역만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오게 크게 울려주소서. 부디 울려주소서.

담징이 가슴높이로 쳐들어 합장한 손끝에서는 녀주가 별빛을 받아 알알이 반짝이고있었다.

그것은 불전을 향한 녀불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뜨거운 마음의 열렬한 소원이였다.

×

이러한 밤은 그 얼마를 지났는지 모른다.

가을은 사정없이 깊어가고 밤마다 별빛은 더욱 빛났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담징은 이미 정제해놓은 채색을 하나하나 검사하여 본 다음 금당안으로 들어와 흰 비단을 펼쳐놓은듯 하얗게 빛나는, 아직 아무 그림도 없는 벽면에 마주섰다.

장대한 체구가 벽면앞에서 못박은듯이 굳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어느덧 승엄한 화폭이 펼쳐지고있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머리속에서 오래전부터 구상되여온 화폭이였다. 빛발치며 너풀거리는 환상의 나래는 거침없이 벽면우를 날르고있었다.

이때 누군가 담징의 등뒤로 조용히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비단으로 지은 가사자락이 스치는 가벼운 사르륵소리가 들리였다.

《대사!》

옷자락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담징은 말없이 돌아섰다.

범룡사 주지였다.

생불(살아있는 부처라는 말로서 불교의 도를 잘

닭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불리우는 말수 적고 침착한 백발의 중이었다. 고구려와 고구려문화를 남달리 숭상하는 사람으로서 담징일행에게 불편이 있을세라 처음부터 한결같이 극진한 정성을 보이는 로승이었다.

《대사, 기뻐하소서.》

주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기뻐하소서. 고구려에 쳐들어갔던 외적들이 가랑잎같이 흩어졌다고 하나이다.》

너무도 기다려오던 소식이었으나 잘못 들은듯만 싶었다.

《주지님, 확실한 소식이나이까?》

담징은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들고 저도 모르게 다시한번 묻고야 말았다.

《확실하나이다. 백제로 갔던 우리 절의 중이 돌아왔소이다. 지난 칠월 스무나흘날에 고구려군사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튿날로 외적의 무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하나이다. 지금 저 반도 세나라(고구려, 신라, 백제)가 온통 기쁨으로 흥성거리고있다는 소식이나이다.》

《주지님, 감사하옵니다.》

담징은 두손을 합장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주지는 손목에 감긴 념주를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사들이 전장에서 대고구려의 명예를 떨쳤으니 대사는 화필로 대고구려의 명성을 떨칠줄 믿소이다. 범룡사에 영광을 베풀어주소서.》

주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층계를 내려가고있었다.

담징은 문득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앉았다.

두뺨으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조국은 승리하였구나. 끝끝내 대고구려는 동방강국의 영예를 떨치였구나. 이제 무엇을 아끼고 주저하랴. 대고구려의 빛발로 이 땅을 밝히는 이 성업에 한몫을 바치리라.

어느덧 동녘이 밝아오고있었다.

울창한 소나무숲은 새벽빛을 받아 더욱 푸르렀다.

눈부신 아침해빛이 금당으로 쏟아져내린다.

새들이 우짖는다.

《대사가 벽화를 그린다!》

소문은 범룡사 드넓은 뜰안으로 바람처럼 퍼돈다.

지나가던 백제장공인들도 왜승들도 주지도 그 어떤이름할수 없는 기대와 호기심을 안은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금당안의 동정을 살핀다.

법정이 승엄한 자세로 문밖에 서서 잡인의 출입을 엄금하고있을뿐 금당안은 쥐 죽은듯 고요하다.

해도 하늘중간에서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건만 금당안은 텅 빈듯 바람도 드나들기를 주저하는듯 고요하기만 하다.

들리는것은 새의 지저귀, 간혹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며 소곤거리는 바람소리뿐!

우뢰를 안은듯 한 침묵, 신비하리만큼 고요한 정적만이 계속되었다.

어느덧 밤, 어느덧 새벽, 어느덧 또 아침...

금빛해빛이 금당벽을 어루만진다.

법정은 이슬에 적적해진 가사자락을 여미며 금당안의 동정을 살펴본다.

이때 금당문이 소리없이 열리었다.

벽면을 향해 돌아서는 담징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

《담징이 벽화를 그렸다.》

어느 사이에 소문을 들었는지 범룡사 주지가 왔다. 뒤미처 왜승들도 하나 둘 숨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금당으로 모여들었다.

주지가 금당 돌계단에 천천히 올라선다. 그때까지 등초롱을 들고 그린듯이 서있던 법정은 주지에게 두손을 마주잡아례의를 표시하고 금당안으로 안내한다.

담징은 사람들이 들어서는줄도 모르고 금당바닥에 뿌리내린듯이 장대한 체구를 까딱도 않고 서쪽벽면을 향해 서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옷자락과 손에는 몇점의 채색이 묻었다.

금당바닥에도 역시 점점이 채색이 떨어져 꽃떨기를 이루었다.

아직도 담징의 모든 정신력은 저 알지 못할 만 세상에서 떠도는듯 눈빛은 황홀하게 불타고 얼굴은 얼음처럼 창백하고 청렴한 기운을 풍기고있었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성...

《아! 과연 명화가로구나!》

엄숙한 장소인것도 다 잊었는지 누군가 참지 못하고 입속으로 부르짖는다.

과연 눈앞에 펼쳐진 벽면의 그림은 승엄한것이였다.

부처(아미타여래)가련꽃방석우에 앉아있고 그량옆에 대청으로 관음보살이 서있다.

화려한 벽면의 공간에는 무수한련꽃송이들이 바람에 날리는듯 가볍게 떠돌아 그윽한 향기마저 풍기는데...

부처의 부드럽고 근엄한 얼굴표정, 아름답고 고결한 인상의 두 보살님! 입김으로 불어도 금시 하

들하들 날릴듯 한 옷자락, 그밑에서 살아 숨쉬는듯한 생동한 모습...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리었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재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에 이 끌어간것이다.

힘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고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서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다.

실로 그 세계는 불교정전의 환상속에서가 아니라 지상에 구현된 이 벽면속에서 생동하고있는것이다.

담징의 뒤에 서있던 주지는 벽면에 구현된 이 숭엄한 세계에 도취되어 그만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합장한채 꿇어엎드린다.

《관세음보살...》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념불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왜승들도 일시에 주지의 옆과 뒤에 꿇어엎드리며 합장한다.

《나무관세음보살...》

담징도 조용히 벽면을 향해 꿇어앉았다. 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음은 젖어들었다. 외적을 쳐부신 강대한 조국의 승전의 기쁜 소식만 아니였어도 담징은 붓을 들지 못했을것이다. 아니, 담징의 조국에 대한 식을줄 모르는 사랑과 고구려의 친근한 사람들을 위한 그 마음이 없었던들 이 벽면은 흰대로

남아있었을것이였다.

화려하고 웅건한 벽면의 그림, 그것은 곧 담징의 아름답고 고결한 조국애의 념의 반영이였다.

담징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림앞에 꿇어엎드렸다.

그것은 벌써 자기손으로 그려진 한쪽의 그림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고맙고 귀중한 조국이였고 보고싶고 그리운 고향사람들이였고 말아보고싶은 조국의 꽃향기였다.

그것은 가슴저리도록 듣고싶은 조국의 말발굽소리였고 사뭇치며 굴러내리는 강물소리였고 광야에 울려퍼지는 랑랑한 뿔나팔소리였다.

누군가 피워놓은 향불이 타오르면서 향기로운 파란연기가 금당안으로 천천히 퍼진다.

가사를 걸친 주지가 어느새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린다. 누군가 뒤에서 법고(절에서 쓰는 북)를 울린다. 그러자 왜승들은 일제히 일어섰다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절을 한다. 끝없이 념불을 외운다.

그것은 저 반도와 대륙의 광대한 령토를 차지하고 일본땅에 찬란한 문화의 빛발을 던져준 대고구려에 대한 감사와 찬탄과 칭송의 메아리였다.

향불연기속에서 그 념불과 목탁과 법고의 소리는 끝없이 울려오고 왜승들의 합장배례가 그칠줄 모른다.

그 소리는 금당을 지나 아슬한 탑꼭대기들에 은은히 메아리치고 다시 중문을 벗어나 저 아득한 소나무수림을 지나 온 일본땅으로 서서히 울려퍼지고 있었다.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메아리치고있었다.

가사

장군님사랑

김재룡

시련많은 나날엔 천만자식 품에 안고
불구름도 눈비도 다 막아주셨습니다
아 우리의 장군님 사랑
운명의 하늘같은 아버지사랑입니다

이 세상 험한 길 다 걸으시면서도
인민위한 그 교생 락으로 아십니다

아 우리의 장군님 사랑
한생을 다 바치는 은혜론 사랑입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뜨거운 그 사랑에
인민들은 언제나 그이밖에 모릅니다
아 우리의 장군님 사랑
충정을 꽃피우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모란꽃

알렉산드라 아니씨모바 작
김여삼 역

아침해빛이 눈부셨지만 날씨는 좀 쌀쌀하였다.

밤새 열어놓았던 창문을 닫으려고 창가에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니 이웃에 사는 이완 알렉세예비치가 잎이 넓고 실한 꽃나무에서 새빨간 모란꽃을 꺾고있었다.

《나에게 주려고 꺾을거야...》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로서도 알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끼었다.

얼른 거울앞에 다가가 머리를 대충 빗고 간단한 화장을 하였을 때 초인종이 울리었다.

《이걸 받소.》 이완 알렉세예비치가 꽃송이를 내밀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도 나직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나무로 지은 우리 살림집복도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3층의 모든 세대들에 다 들리었던것이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너무 좋아 춤을 추다싶이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커다란 꽃병에 물을 붓고 꽃을 꽂았다. 그리고 꽃병을 조심히 방안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붉다 못해 분홍빛이 도는 모란꽃에 얼굴을 가져다댔다.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상긋한 꽃의 정기에 그만 머리가 펑 돌 지경이었다. 바로 이 순간 어데라 말할수 없는 가까운 곳에서, 나의 곁에서, 내 심장속에서는 정가로운 꽃속에서 주위의 모든것을 밀어내고 우아하고 활달한 한 여성의 모습이 활짝 피어난 모란꽃처럼 우렁치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그 여자를 한번도 본 일이 없었고 또 볼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기때문이다. 나는 어느해인가 우연히 그의 생활을 알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것, 그 여자의 개체생활과 관련된 모든것은 늘 나를 흥분시키었다.

그 여자의 사진들을 여러장 보았었는데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과 여위고 지친 혼자몸으로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사진도 내가 상상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었다. 나는 어째서인지 내가 머리속에 그리는 여자의 모습이 오

히려 실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는 훌륭한 여성활동가였다. 절반은 프랑스출신이기도 하고 절반은 영국출신이기도 한 그 여자는 볼셰비크당과 10월혁명에 대한 충실성에서는 로씨야녀성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름은 이네싸로서 아름다운 에스빠냐녀자의 이름이였다.

상냥하고 매력적이면서도 의지가 굳센 여성이였다. 내가 머리속에 그리는 그 여자의 생은 방금 꽃망울을 터친 밝고 화려한 모란꽃을 련상시켰다. 나는 모란꽃을 볼 때마다 이네싸 아르만드를 생각하였다.

1940년 전쟁을 앞둔 마지막해 여름에 나는 6학년과정을 마치였다. 부모님들은 나를 어디로 보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있었다. 소년단야영소에 가자고 해도 시험을 치느라고 늦어서 갈수 없었다.

이럴 무렵 이웃에 사는 라야가 자기 고모가 살고있는 알료쉬노에 가자고 하였다. 라야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나이도 나보다 두살 우였지만 우리는 가깝게 지냈었다.

이 세상 어디로 간들 마다하랴. 더구나 알료쉬노는 모스크바근방의 촌이겠다 나는 꽤히 라야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 마을로 다니는 빠스가없었다. 우리는 찌는듯 한 여름날씨에 기차에서 내려 마을까지 오랜 시간 걸어갔다. 로상에서 지칠대로 지친 나는 커다란 2층목조건물에 도착했을 때 앉아 쉬고싶은 생각뿐이였다. 저녁녘에 나는 라야와 그의 사촌동생 월로차(동갑인 그에게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리고 이네싸(월로차의 조카별인데 나이는 두살 우이였다.)와 함께 잘 가꾸어진 집주변의 공원에서 뛰여다니며 놀았다.

월로차의 어머니 쓰쨤샤아주머니는 놀음에 정신판린 우리들을 겨우 저녁상에 불러앉힐수 있었다.

우리는 널직한 식당 한구석의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벽에는 검은 액틀에 넣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었다. 한 녀성의 사진이 유묘하게 눈에 띄었는데 그는 아름답다고 하기보다 인상적인 얼굴과 눈매로 해서 매우 매력있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월로차와 라야가 무어라고 저희들끼리 속삭이는통에 그 녀자의 모습을 찬찬히 눈여겨볼수 없었다. 다만 눈짓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이네씨에게 물었다.

《저 녀자는 누구니?》

《우리 할머니야.》 이네씨가 대답했다.

《할머니이름도 이네씨였다.》 하고 그는 마치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것처럼 말하였다. 그 말이 우스웠지만 우리는 식탁가운데 앉아있는 월로차의 아버지가 어려워 큰 소리로 웃지 못했다. 그날저녁에 본 월로차의 아버지 싸샤아저씨는 매우 엄해보였었다.

나는 알료쉬노에서 지내던 나날 월로차에게 잡보이려고 무등 애를 썼다. 현판에 세면대가 걸려있었지만 나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 우정 강가로 나가 세수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월로차는 목석인듯 본체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도 공원으로 나갔다. 공원은 놀라리만치 아름답게 꾸려져있었다. 우듬지가 무성한 아름드리나무들이 던지는 그늘아래는 선선하고 좁춍기까지 하였다. 땅에서 쑥 머리를 내민 파리한 풀들이 있을 드리우고있었다. 강가의 골짜기는 습하였고 풀밭속에 흰 방울꽃들이 한창이었다. 양지바른 공지에는 키높이 자란 풀들이 부드러운 주단을 깔아놓은듯 한벌 쪽 깔리었다.

나는 하루아침 연보라제비꽃과 흰방울꽃, 아롱아롱한 패랭이꽃으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들고 따뜻한 해빛을 향하여 얼굴을 쳐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걸어가는 자신이 퍼그나 아름답고 고상한 녀자로 생각되였다. 그러나 집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었다. 그 누구도 그처럼 아름다운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은 서운하였다.

나는 그만 길을 잘못 들어 탄 방향에서 집쪽을 향해 오다가 생소한 곳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런데 이곳에 싸샤아저씨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울긋불긋 꽃들이 만발한 꽃밭속에 서있었다. 그는 한동안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나서 몇송이 꺾어 꽃다발을 만들고 얼굴에 가져갔다.

나는 가까이 서있는 나무뒤에 숨어 그가 이를

모를 꽃냄새를 한껏 들이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싸샤아저씨는 천천히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였다.

나는 발자욱소리를 죽여가며 꽃나무밭으로 다가가서 탐스럽게 핀 꽃송이들에 얼굴을 묻고 꽃향기를 맡다가 그만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나는 모스크바중심구역에서 자랐다. 거리를 걷는 우리 집앞으로는 종일 궤도전차가 소리를 내며 달리였다. 뒤뜨락의 좁은 구석에는 정향나무 몇그루와 섬긴풀밭이 있을뿐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모란꽃이 활짝피어 그 싱그러운 정기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것이다.

꽃나무에서 얼굴을 뻗 나는 방이 여럿인 덩치 큰 집이며 잘 꾸려진 아름다운 공원, 넓지는 않으나 물살이 빠른 강 그리고 강건너편에 무성하게 자란 아카시아나무 수림을 배경으로 펼쳐진 마을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진에서 본 그 녀자가 회상되였다. 미묘하고 풍부한 표정의 얼굴, 긴 머리를 깎듯이 따올린 머리단장, 레스를 달고 복잡한 구식모양을 한 귀부인옷...

여기 알료쉬노에서 들은바 있는 이야기들이 생 각되였다. 그것들은 그 녀자와 싸샤아저씨와 직접 관계되는 말들이였다.

마치도 눈앞에 과거로 돌아가는 작은 문이 열려진듯 싶었다. 그리고 그 어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도 한듯 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공원쪽으로 되돌아섰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가?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동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알았더라?》

나는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걸음을 옮기며 혼자생각을 하였다.

놀라운 운명의 녀성이 이 세상에 살고있었다. 이네씨, 그 녀자는 싸샤아저씨의 본처였다. 이네씨할머니는 녀성혁명가였고 올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과 그분의 부인의 가까운 친우였다. 레닌의 가장 신임하던 동지들중의 한사람으로 그의 방조자며 서기, 통역원이였고 볼셰비크당과 10월혁명의 위대한 투사였다. 그 녀자는 수천수만의 노동자들속에서 《이네씨동지.》라고 불리웠다.

그 녀자에게 다섯남매가 있었다. 이네씨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자기가 필요되는 곳, 가기의 지식과 힘,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리념에 대한 충실성이 요구되는 그곳에 자기 한생을 바쳤

다.

그 녀자는 공민전쟁시기 세상을 떠났다.

나는 공원에서 돌아오면서 저택으로 통하는 여러 갈래의 길들을 보며 생각하였다. 헌병들이 어느 길로 들이닥쳤을까? 밀정들이 어느 길로 기여들어 이네씨와 그의 벗들을 립탐했을까?

나는 충계를 지나 2층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네씨 아르만드가 여기로 다니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그 녀자처럼 옷차림을 하고 거닐고싶었다. 싸라판(로씨야식 옷저고리)의 긴 치마자락을 약간 쳐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녀인의 모습, 이것이 귀족부인들의 걸음새가 아니었던가?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턱을 약간 쳐들고 천천히 식당에 들어섰다.

《왜 그러니, 이발이 쏘니?》 이네씨가 동정하듯 물었다. 라야와 월로차가 의문과 동정의 눈으로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도고하게 그들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그들을 보지 않고 아침상에 앉았다.

쓰제샤아주머니가 크림을 넣고 만든 딸기요리를 차려놓았다. 우리는 딸기를 먹느라 어른들에게 주의를 돌릴 사이도 없었다. 나는 한순간 딸기 접시에서 머리를 들고 쓰제샤아주머니와 싸샤아저씨가 우리를 보며 무어라고 말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다.

몇해 지나서 안 일이지만 알렉산드르 예브게니 예비치 아르만드는 안해인 이네씨 표도로브나의 훌륭한 벗이었고 방조자였다. 헌병들은 그를 《반란자들의 비호자》로, 《질서파괴자들의 옹호자》라고 불렀다. 대대로 명예공민의 아들이었던 그가 자기 공장에서 있는 정치파업을 동조했다는 이유로 짜리감옥의 《신세》를 톡톡히 보았던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을 두고 싸샤아저씨에게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른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때문에 그렇게 된듯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명해 나서기도 하였었다. 《왜 그때 싸샤아저씨에게 헌병들에 대하여, 수색에 대하여, 비합법적 출판물들에 대하여, 기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내게 귀뜸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기억력이 한창 좋은 때인 소녀의 머리에 무엇인가 많은것을 새겨넣을수도 있었는데...》

그때 싸샤아저씨가 자주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지금와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야 떠오르는것이 없다. 다만 생각되는건 그의 구부정한 허리와 느리지만 단정한 걸음걸이, 친절하고 리해력있는 눈매 등이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것은 그가 막내아들 월로차를 살뜰히 애무하며 따듯이 포옹해주던 일이다. 그러면 월로차는 그러한 애무가 창피스러웠던지 아버지의 품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우리들의 놀음판에 끼여들곤 하였다.

동무들의 놀음에 대하여 리해하지 못하고 성을 내는것은 좀 빛한 일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사람마다 자기의 취미가 있는것이다. 한번은 월로차가 룡질을 하며 나와 이네씨를 강물에 밀쳐넣고 웅근 한시간동안이나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털을 뽑힌 병아리모양으로 추워서 새파랗게 되었다.

어느날 일요일, 아르만드일가들이 많이 모여있었다. 널찍한 식탁에 빈 자리없이 빼곡이 앉아 떠들썩하니 신이 나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싸샤아저씨만은 말없이 덤덤히 앉아있었다. 선량한 미소를 지은 입술만이 실룩거렸다. 식당에 걸려있는 젊었을 때의 그의 사진을 보며 과연 그가 한때 그런 신사멋쟁이었을까? 생각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나는 이네씨와 월로차하고 집주변의 공원을 산책하였다.

공원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다. 강녕의 큰 초원과 강물우에 흰 안개가 자욱히 서렸다. 그런데 하늘중천에 유난히 밝은 두개의 별이 걸려있었다. 하나는 우리들 머리우에 떠있었고 또 하나는 안개 가장자리에 걸려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어른들의 말소리를 듣고있었다. 나는 침묵을 깨뜨리며 물었다.

《이네씨 표도로브나어머니는 어느 방에서 살았니?》

《우리 어머니는 이 집에서 살지 않았어. 설이 가까와서 찾아오곤 했는데 그것도 인생말년이었어...》 월로차가 대답하자 라야가 덧붙여 말하였다.

《그 어머니는 엘리지기나에서 오래 살았어.》

우리는 삐걱거리는 충계를 지나 자기 방에 들어갔다. 나는 설때 찾아오곤 했다는 이네씨 아르만드를 상상해보았다. 툴림없이 이네씨는 샤르르 소리를 내는 비단옷차림에 이 계단을 지나 소나무들이 키높이 자란 공원쪽으로 창문이 난 내 방

으로 드나들었을것이다.

이네씨가 쌀쌀한 가을날 밤 수수한 옷차림에 다 해진 구두를 신고 어두운 모스크바 골목길을 지나 로동자들의 소조들을 찾아다니며 활동했다는 말을 여러번 들어왔지만 나는 어쩐지 항상 화려한 옷단장을 한 귀부인만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여러번에 걸치는 체포, 류형살이, 망명생활, 부모 친척들과의 가슴아픈 리별을 용감히 이겨낸 이네씨의 영웅적 생애에 나는 저으기 탄복하였다. 특히 그가 우리 당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동지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었는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올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은 (혁명이전시기) 브뤼셀회의에 그를 초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일을 할 사람은 동무밖에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꼭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씨야로동계급속에서 볼셰비크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것을 시기한 제2국제당 지도부는 《로씨야의 일》에 간섭해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레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랴부랴 로씨야 사회당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임으로 동무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단성원으로 되어주십시오. 동지는 우리의 사업을 잘 알고있고 프랑스어를 잘 알고있으며 <쁘라우다> 를 읽고있으리라 믿습니다.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나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청소한 볼셰비크당의 운명을 두고 몹시 걱정하면서 안타깝게 편지를 쓰고 썼을 올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브뤼셀회의 연단에서 카우쯔끼와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열변을 토한 이네씨가 얼마나 억세고 대담하고 설득력있는 웅변가였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41년 가을 파쑈무리들이 모스크바를 침범해 오고 전쟁의 첫해 겨울이 들이닥칠 무렵 4층짜리 우리 집은 거의나 비고 조용하였다. 어느날 저녁 초인종이 울리어 문을 열었다. 알렉산드르 예브게니예비치가 어깨에 큰 배낭을 지고 집안에 들어섰다. 나는 전실에서 그의 배낭을 벗겨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허리를 펴고 히죽히 웃었다. 그때 라야와 그의 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나혼자만 있었다. 나는 싸샤아저씨에게 방열쇠를 주었다. 그는 외투를 입은채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도 털외투를 입고있었다. 난방이 끊어진지 오래고 폭풍에 날아난 창문유리대신 누런 합판을 댔었다.

나는 그에게 차를 끓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몇마디 물음에 대답하였다. 그밖에 아무것도 생각나지않는다.

이것이 알렉산드르 예브게니예비치와의 마지막 상봉이었다. 아니, 그것은 상봉이라기보다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본것이였다.

1943년 나는 집을 떠나 전선으로 달려갔다.

나의 생애에서 늘 운이 좋았던것은 아니였다. 하지만은 내가 그야말로 행복했었다고 자부할수 있다. 한것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쟁위훈에 비록 적지만 나도 한몫 했다는 자각이다.

내가 열다섯살의 소녀때 모스크바조직들을 찾아다니며 당장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그것도 제일 어렵고 위험한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조를 때, 적후 멀리에서 몇달씩 사령부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 이네씨 아르만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치열한 싸움에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가졌던것은 혁명투쟁의 랑만이 깃든 알료쉬노의 집과 내가 난생처음 어머니 로씨야자연의 아름다움을 심장깊이 느꼈던 모란꽃이 아름답게 핀 알료쉬노공원 그리고 조국의 안평과 우리모두가 하나로 리해하고있는 밝고 장엄한 모든것을 위한 투쟁으로, 위훈으로 부른 그 하늘에 반짝이던 별들때문이 아니었던가!

나는 천천히 꽃다발을 내리우고 꽃발을 벗어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오늘은 하루종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것이다. 나는 내가 한 잘한 일들과 잘못된 일들을 자기 량심에 비추어본다.

《동무밖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쓸모있고 필요한 일을 해야하고 또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은 마냥 부풀어오른다.

《강통령》 부쉬

리영복

여보게 부쉬
자네 채선될 꿈을 꾸고있다는게 사실인가
설마 그럴리아 있나?
세상에 무식하기로 소문난 자네가 어찌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 《대통령》 인데
아무말이나 탕탕하면 되나

물론 대학시절엔 락제생인데다가
술주정뱅이 난봉군이였고
지금은 주변나라
브라질에 흑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강통령》인줄 내 모르는바 아니오만
그래두 난 당신이
악과 축의 개념도 모르고
《대통령》질 하는줄 정말 몰랐소

그래 자네의 조종막대기인
《명석한 부인》라이스가 안대주던가
보좌관것들은 뭘 하고있나
저희 어르신이 무식한줄 알면
망신이라도 하지 않게
잘 곁들어줘야지

그럼 내가 좀 가르쳐주지
남의 나라 원유에
군침을 흘리다 참을수 없어
허위날조로 생트집 걸어
파리잡듯 때려덤했던 미국이
자네 눈엔 악이 아니고 선으로 보이나

그리고 남의 나라 무역선에
《검색》소동을 피우며
해적행위를 일삼는 미국이
자네 눈엔 《악의 축》이 아니고
무엇으로 보이나?

남의 나라 내정에
한사코 간섭하고
민족리간을 조장시켜
류혈참극을 빚어 내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덩어리라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터에
무식한 망발을 자꾸 내뱉으니
세계가 소란스러워질수밖에...

요샌 《전쟁계결병》까지 들어
《선제공격》이요 《외과수술식타격》이요
한다면서...
외과수술이 뭔지나 알고 췌치는지
《빈통령》으로부터 《강통령》이 됐으면
자기 몸값을 알겠는데

여보게 부쉬, 그러지 말고
세계각국이 자네에게 《하사》한 《바보》,
《저능아》
그 모든 《칭호》들을 다 걷어가지고
빨리 자리를 뜨게 지옥으로
시간이 없네
서두르지 않으면
《강통령》부쉬를 공동표지에선들
받아주겠다고 하겠는지...